

위대한 도전으로 새 시대를 열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코로나19 백서

자료집

2021년 2월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본 백서는 2020년 8월 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정(母情)의 영웅들

제중원(濟衆院)의 단간방에서 한결같이
섬김의 길을 걸어온 여인이 있다

어제는 강창교를 내려다보며
내 속을 비워내어 '최초에서 첨단' 으로,
또 하나의 동산(東山)이 성서에 우뚝 섰다

어미는 모처럼 굽은 허리 펴며 대견스러운데
때 아닌 환난이라니,

긴긴 담장을 기웃기웃하더니
코로나19란 고얀 놈이 생사를 가르며
나라와 세상을 휘젓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으로
통째 몸을 내어놓는 어미는
마구 쓰러지는 환자들을 한 없이 보듬기로 하였다

온갖 모자람을 견디며 밤이 지나
곳곳에서 제 발로 달려온 창백한 천사들
흰 가운, 푸른 가운, 자원봉사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김중강 명예교수/이비인후과

새 하얀 밤 속으로 서둘러 몸을 던진다
힘겨운 방호복이 땀으로 후끈 젖어들고
어미의 품에서 역병(疫病)과의 사투가 치열하다

도심의 거리에는 적막이 쌓이고
스스로를 방에 가두어야 하는 딱한 이들과
‘서로 멀어지기’ 구호들이 예사롭기만 하다

지혜의 백신(vaccine)인가,
선한 일깨움이더냐
어느덧 피어오르는 감은(感恩)의 아지랑이
잃어버린 봄을 좇아 가슴속을 데운다

‘대구를 지키자’, ‘덕분에 챌린지’, ‘여러분의 영웅’
창(窓)가의 흰 손, 작은 손이 깃발처럼 흔들리고
모두가 가진 것을 다 내어 놓네

사랑으로 이어온 세기의 흐름, 오늘은
얼룩진 붉은 치마가 강물에 씻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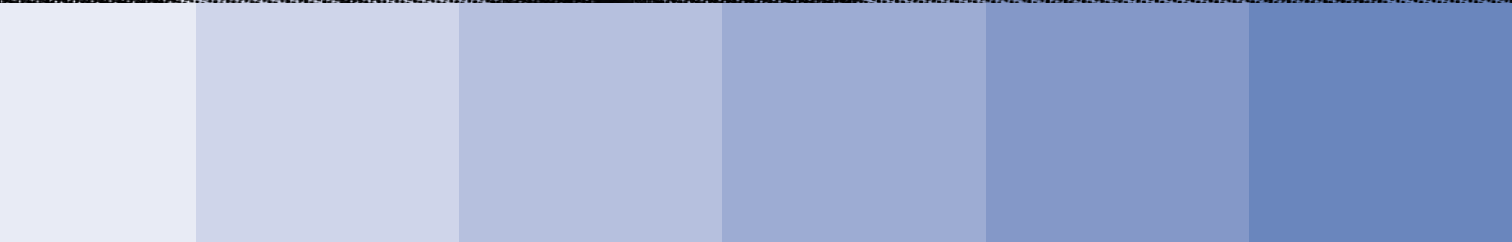
장하도다 가룩한 여인이여
그래, 어미는 본디 그대의 ‘동산(東山)’ 이니라





CONTENTS

1. 사진으로 보는 코로나19
2. 코로나19 체험 수기
3. 언론보도사례
4. 격려와 관심 응원 메시지



A blue-tinted photograph of three people in a room. On the left, a person is seated, wearing a light-colored top. In the center, a person stands, wearing a light-colored shirt and dark pants. On the right, another person is partially visible, wearing a patterned top. A large white number '1' is overlai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The text '사진으로 보는 코로나19' is positioned above the number '1'.

사진으로 보는
코로나19

1



권영진 대구시장 방문(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관련 회의)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 방문



비상대책본부 운영



진료대책반 운영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준비 중인 교직원들





시민들이 보내온 기부물품을 정리하는 자원봉사자들



교직원 식당 거리두기 식사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의료봉사자들



코로나19 병동 근무 후 의료진의 모습





근무 후 휴게공간에서 식사하는 의료진





물품 소독





환자 상태를 체크 중인 의료진

병실





방호복 착의 중인 의료진



방호복 탈의 중인 의료진



중환자실



코로나19 확진자 중 3명 첫 퇴원



방호복 착의 점검 중인 의료진





병동 내 의료진 회의



처방약 확인 중인 의료진



마지막 벤틸레이션 인공호흡기 환자 퇴원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



선별진료소 전경



대구동산병원 입원환자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이송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환자 이송



코로나19 출입 통제소



병원 출입구 체온측정



세계보건기구(WHO) 자문위원단 방문



응급실 앞 선별진료소



외래 앞 선별진료소



병원 출입구 출입통제문진표 작성



외래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 절차 안내 중인 의료진



검체 채취 중인 의료진





음압격리병동



내과계 중환자실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 전



영상의학과 CT실에서 Heart CT Guide 조직검사



음압이송카트를 이용해 수술실로 환자 이송



응급환자 이송



중환자 이송



코로나19 환자 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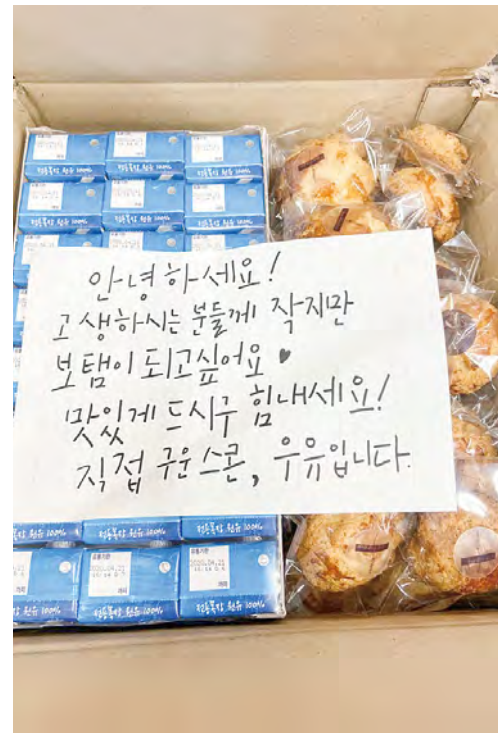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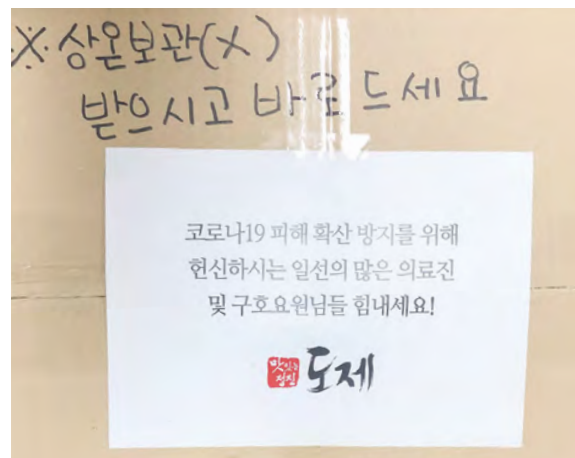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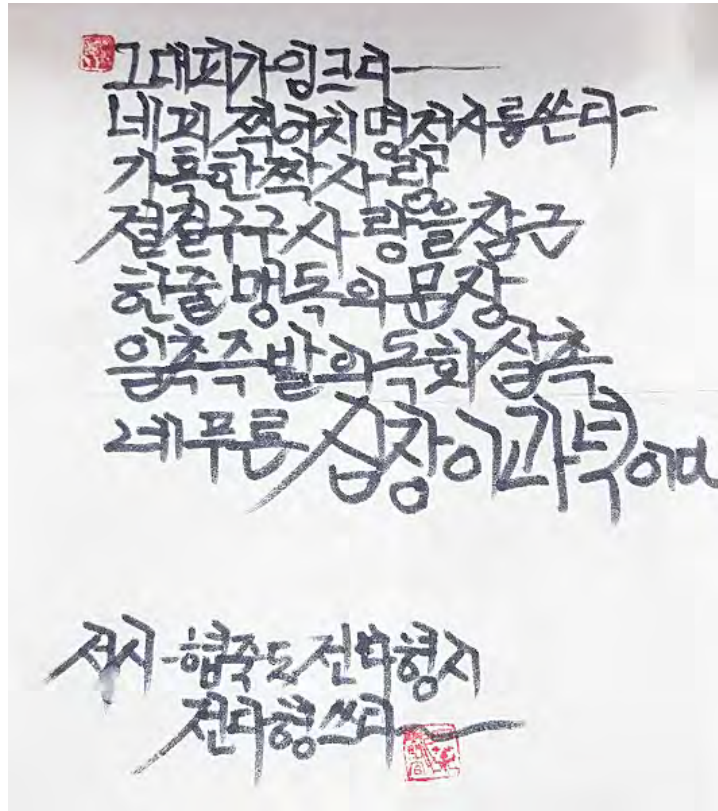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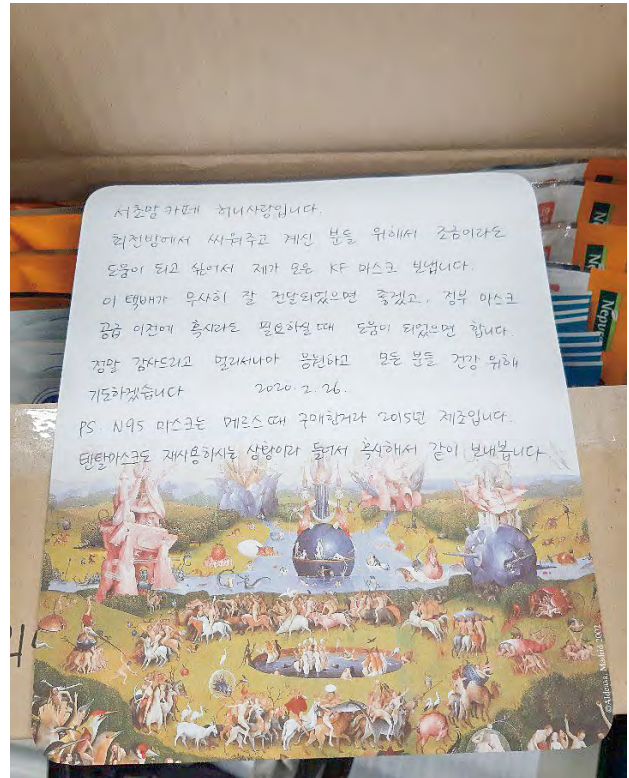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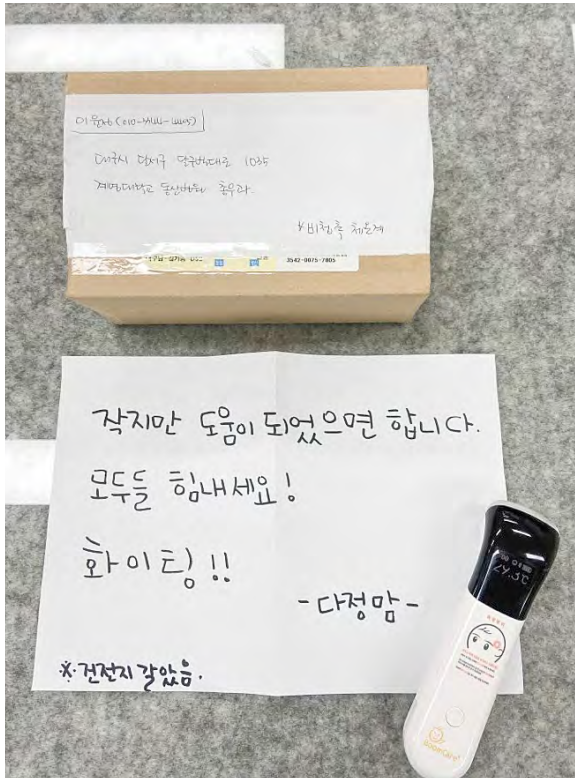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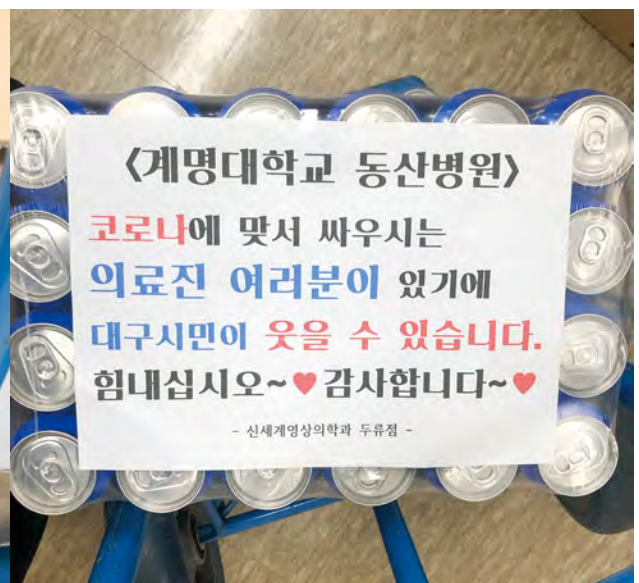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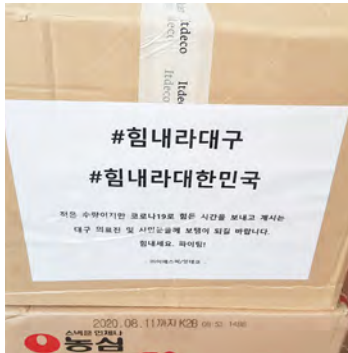
의무장교 파견 복귀 기념













손수 쓴 편지와 성금을 전달한 시민들



정세균 국무총리 방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



안철수 전 국회의원 방문



보건복지부 장관 '덕분에 챌린지 배지' 의료진에 전달



대한병원협회 성금 및 구호물품 전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방문



방송인 김제동 씨 방문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성금 전달



경북중고 재경동기회 코로나19 성금 전달



계명대학교 성금 및 구호물품 전달



극동방송 성금 전달



서대구 세무서 성금 전달



MEDICAL NGO 글로벌케어 성금 전달



광주기독병원 의료용품 전달



서울산성교회 구호물품 전달



소망교회 코로나19 지원금 전달



월드웨어 & 배우 김지원 의료 물품 긴급지원



미군 제19지원사령부 응원메세지 전달



성서농협 코로나19 지원금 전달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 코로나19 체험 수기

2

코로나 전선에 핀 장미꽃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발생 후 1개월간의 기록-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담체외과 **강구정 교수**

2월 18일, 소위 31번 환자의 확진 다음날부터 대구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3일 후 금요일 오전 7시 30분 비상 교수회의가 소집되었다. 대구시장과 4개 대학병원장 및 관계자들이 전날 밤 늦게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책회의를 하고난 후 그 결과를 알리는 자리였다. 대구동산병원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한 거점병원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이날 교수회의 보고의 핵심이었다.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다. 왜 국립 대학병원과 공공기관인 시립 대구의료원과 보훈병원 등을 두고 사립병원을 국가적 비상재난 상황에 내어 주어야 하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 지나간 이후에 이 병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명동산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한편, 기독교 기관이 이런 위기상황에서 앞장서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거대한 홍수를 당한 사람들이 피할 노아의 방주처럼 쓰이는 것에 비견할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하니 좋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2월 23일 일요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구 대부분의 교회당과 성당은 문을 닫아 예배와 미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도 수술한 환자와 수술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보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의논하고자 했다.

병동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호흡기 내과 P 교수를 만났다.

“아이쿠, 어려운 시기에 수고가 많지요?” 라고 물었다.

“아 뭐,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받아 넘기길래

“본인 몸도 잘 챙기세요” 하고는 병동회진을 위하여 병실로 갔다. 환자분들도 시시각각 전

달되는 긴급 뉴스를 TV나 SNS를 통해 잘 알고 있었다.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환자 뿐 아니라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간문부 담관암 환자 2명과 간이식 대기자 1명 등 대부분의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의외로 동요하지 않고 태연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간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면서 중환자실에 1주일간을 머물면서 치료해야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었다. 간이식 대기환자는 46세 남성으로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기증자다. 환자는 이틀마다 복수를 2000 ml 씩 뽑아주어 지금까지 한 달 이상 버텨 왔다. 환자의 혈액형은 O형, 어머니의 혈액형은 B형이다. 즉 혈액형 불일치 증례다. 수술날짜는 3월 4일로 잡혀 있었다. 일주일 전 면역억제제 리툽시맵 주사를 이미 맞았고 내일 혈장치환술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퇴근 후 저녁이 되어서야 환자를 서울로 보내서 혈장치환술과 간이식을 진행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학회에서 임원으로 같이 일했고 현재는 K 대학병원 원장으로 있는 Y 교수에게 전화했다. 자기 병원에서도 일요일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대비위원회를 꾸려 대책회의를 막 마쳤다고 했다. Y 교수는 간이식 책임교수에게 전화하였고 간이식 책임교수는 곧바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환자를 내일 보내달라고 했다. 아, 이런 위기에 나와 환자를 구출해주는 원군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내과 전공의인 아들의 안부를 전화로 물으니 오늘은 중환자실 당직이라고 했다. 호흡곤란이 있는 중증환자가 오늘 타 병원에서 이송해 오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한다고 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온몸을 감싸는 레벨 4 보호장구를 입고서 기관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해야 한다. 손목동맥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어 동맥압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도 달아야 한다. 부디 조심해야한다고 당부를 했다.

“예 알아서 할게요. 걱정마세요” 라고 했다.

가슴이 죄어 왔다. 자식을 전쟁터의 최전선으로 보낸 기분이다. 아내에게는 아들의 구체적인 임무에 관해서 얘기를 전하지 않았다. 단지 중환자실 당직이라고만 해 두었다.

다음날 출근하여 간이식 예정자의 의무기록과 전원소견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환자가 입원해 있던 병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나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보내 달라고 했다. 불행히도 간이식 예정환자가 입원해 있던 병동에는 코로나 19 감염환자를 돌본 간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담은 자료를 검토한 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이 환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환자를 찾아가

“하는 수 없이 수술을 2주 정도 미루어 지켜보다가 수술 결정해야겠습니다.”고 하니 환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였지만

“교수님이 이 정도로 애써 주시는데 제가 더 이상 폐를 쓰지 않겠습니다.”고 일단 나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퇴근하여 TV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장남이 씩 웃으면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들을 보며 최전선에서 돌아온 군인을 맞은 것과 같이 기뻐했다. 아내는 아들을 끌어 안아 주려다가 멈추었다. 접촉을 금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의 초미의 관심은 어젯밤 코로나 폐렴 중환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해서다. 내가 궁금해 함을 눈치채고서는 스스로 입을 열었다.

“어제 전원된 환자 기관튜브삽관과 인공호흡기 설치는 P 교수님이 직접 했어요.”

“나하고 인턴이 레벨4 보호 장구를 입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오늘은 내가 할게,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 있어. 전투력을 아껴야지. 음압병실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마, 내 혼자서 할테니’ 라고 하며 교수님 혼자서 간호사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기관삽관과 인공호흡장치를 달았어요. 동맥주사관 삽입까지요.” 라고 했다.

조리던 가슴이 오히려 몽클한 감동으로 바뀌었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P 교수님이 우리 병원에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라고 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논리적이고 가르치는 것이 뛰어나도 자신의 몸을 바쳐 보여주는 가르침보다 더 귀할 순 없지. 너도 좋은 의사가 되는데 큰 귀감이 되었겠구나.” 고 하며 아들에게 사과 한쪽을 집어 주었다.

2월 26일, 불행하게도 외과의 J 교수도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되었다. J 교수가 진단되기 전 가까이서 함께 식사한 간담체외과 동료교수 두 사람이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앞으로 2주간 간담체 진료와 수술은 가장 연장자인 나 혼자 맡아야했다. 이 사태에서 내가 해야할 일은 내 몸 관리를 잘해서 응급환자와 암환자 일부라도 수술을 해야 한다.

다음날 뜻하지 않은 희소식이 가족 카톡 방에 났다. 예정보다 1주일 일찍 딸이 순산했다니 기쁘고도 떨렸다. 병원에 근무하던 만삭의 딸은 31번 슈퍼전파자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출산 휴가에 들어간 지 1주일 만이다. 전쟁터에 핀 장미꽃이다. 기쁨이라 이름 지을까?

3월 2일, 하루에 500명이상 코로나 양성환자가 발병하는 상황이다. 동산동 대구동산병원은 비교적 경증 환자를 입원시키는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이미 250명 이상 입원하였고 전국의 자원봉사 의사 간호사들을 배치하여 진료를 하고 있다. 전날 당직을 한 장남은 귀가하여 3월 전공의 순환 스케줄에 대해 얘기했다. 3월 1일부터 호흡기내과에 두 달간 일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했다. 숨이 가쁜 중증 폐렴환자를 돌보는 일과 인공호흡기 탈부착 하는 일은 장남의 몫이다. 아버지로서는 여간 마음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젠 장기전에 대비해야겠어요. 이 시기에 내게 가장 중한 환자들을 돌보는 임무가 주어진 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나는 타들어가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는 담대함이 필요하지. 코로나 중환자들을 치료한 경험이 나중 의사로서 일하는데 큰 자산이 될거야. 뭐 겁낼 것 없어. 넌 건강하잖아. 중환자들은 대부분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은 감염이 잘 일어나지 않아. 감염되어도 감기처럼 경증으로 지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말로는 위로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게다가 아내는 5일전 딸이 첫 애기를 낳아 신생아 돌보미로 손녀를 돌봐야할 입장이니 혹시 가족에게 오염시켜 신생아를 감염시키면 어떡하나는 걱정도 태산 같았다.

3월 4일~6일, 오전 외래진료 중 부산에 계시는 동산병원 외과전문의 1호이신 최 창록 선생님께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동산병원이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었다던데 자넨 건강하지?”

“괜찮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하자

“내가 동산병원 동문 선배로서 참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어. 어려울 때 나서는 동산병원이 자랑스럽단 말이야. 6·25 동란 때는 전쟁고아들을 돌보았는데 이번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동산병원이 귀한 일을 담당하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네. 몸조심하고 가족들에게도 안부 전해주게.”

라고 했다.

대구와 동산병원이 전파를 타고 연일 세계의 뉴스에 등장하니 아프리카와 일본의 선교사도, 미국 델러스 친구도, 학회를 통하여 사귀어 일본의 교수도, 서울의 학회 동료 선후배들도 내 얼굴이 떠올랐다면 SNS와 이메일로 안부를 물어왔다.

3월 1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견되면 응급실이 폐쇄되었다가 입원 및 격리가 끝나면 다시 열리기를 반복하는 틈을 타서 입원한 화농성 담낭염 환자들을 연이어 4명 수술했다. 연속으로 두 노인 환자는 염증이 워낙 심하여 개복해서도 겨우 수술할 수 있었다. 이제 대처요령도 좀 생기고 사태를 바라보는 감각도 약간 둔화되어 오늘은 멀리서 찾아온 간문부 담관암 환자의 7시간 걸리는 근치적 수술도 했다.

3월 16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가 시작된 지 4주째다. 8000여명의 환자와 70여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지만 지난 주부터 새로 발생하는 확진자 숫자는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었다. 내일은 미루었던 생체간이식 수술을 시행한다. 어머니와 복수로 배가 볼록한 아들의 손을 양손에 잡고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하여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아왔다.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19일째다. 어제 처음으로 아기를 보러 사위집엘 갔다. 전쟁터엔 전투가 있어도 아기는 쉼쉼 자고 있는 새 생명은 세상평화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젖도 우유도 잘 먹어서 그런대로 잘 크고 있었다. 우리 부부도 요렇게 조그만 아기를 손에 안고 있게 었그제 같은데 이젠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적하는 장성한 어른으로 키웠단 말이지?

3월 18일, 어제 간이식 수술은 관련 교수들이 협력하여 복강경을 이용하여 우측 간을 떼어내는 공여자 어머니의 수술도 병든 간을 떼어내고 어머니의 우측 간을 떼어 붙이는 환자 아들의 수술 전 과정도 한 부분도 맏힘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0시간 만에 모든 수술은 끝났다. 오늘 아침 출근 후 곧 바로 중환자실로 갔다. 어머니도 아들도 혈액검사나 모니터상으로 아주 안정적이다. 두 분에게 수술이 잘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다. 어렵게 결정한 간이식 수술 자체도 두려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환자도 어머니도 두려움이 훨씬 더 컸었던 모양이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의 고마운 마음을 말로는 다할 수가 없습니다.”며 환자의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의 눈가도 축축이 젖어왔다.

이른 봄 코로나 바이러스 첫 감염사태가 발생한 지 11개월이 지난 지금, 전선에 핀 장미꽃인 손녀는 방긋 웃기도 하며 일어서기 연습을 하고 있다. 간이식 환자는 나날이 호전되어 가뭇에 시들어가던 국화가 튼실히 자라 꽃을 피우듯이 완전히 회복하여 직장へ 복귀했다.

동산의 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32병동 강명숙 수간호사

2020년 마지막 추위를 견디던 2월,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먼저 문을 두드렸다. 자신을 밝히지도 않고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2월 21일, 동산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고 다음날 간호부 보직자들이 먼저 현장에 파견 되었다.

30여년 간 근무했던 정든 동산에 오랜만에 발을 들이니 지난날의 기억이 떠올랐으며 구석구석 근무지를 돌아보았다. 난생 처음 개인보호구(Level D)를 착용하면서 답답함과 불안감이 동반되었지만 근무지 이곳저곳을 정리하였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시간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3월 2일 갑자기 본 병동을 폐쇄하고 전원 파견가야 한다는 지시에 팀원들은 술렁거렸다. 팀원들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들이었다. 파견근무가 결정된 그 날부터 마음속에 부담감과 의무감이 동시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른 아침 착잡한 마음으로 근무지로 향했다. 가운(수술용)을 갈아입고 보호구 착용을 위해 탈의실로 향했다. 보호구를 착용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꼼꼼히 차려입고 병동으로 향했다. 인수인계 후 업무는 시작 되었고 특이사항은 상황실에 전용 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온몸에 땀이 흘렀고 보안경에 눌린 머리는 점점 아파왔다. 글로브를 낀 상태에서 머리를 빗누르기도 하고 답답한 심정에 갈증까지 생겨도 음료수 한잔 마실 수도 없었다.

다른 여러 병원에서 파견 온 근무자가 다수였기에 본원에서 온 근무자가 주가 되어 업무를

분담하고 이끌어 나가야 했다. 근무 조는 매일 바뀌었고 한 Duty에도 2개 조로 나뉘어 병동에 투입되었으며 보호구 착용으로 서로 알아볼 수도 없어 소속 병동을 외치며 팀원을 찾아가 같이 행동해야 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만 정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환자 파악은 인계창이 없으면 사실상 어려웠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해 평소보다 좀 더 메모에 신경 쓰며 업무에 임했다.

코로나19는 나에게도 낯선지라 보호구를 착용했음에도 환자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약간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나의 것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 병동에는 임산부, 소아, 의식저하 환자, 활동이 어려운 환자 등 다양한 환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업무에 더욱 집중하였다.

근무를 마치고 건물 바깥으로 나와 보호구를 벗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호흡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흠뻑 젖은 몸으로 나와 제일 먼저 샤워를 하고 드디어 냉수 한 잔을 마실 순간이 온다. 이 냉수는 그 날의 갈증과 피곤함을 한 번에 달아나게 해주는 생명수라도 같은 물이었다.

2주라는 기간은 서로 얼굴을 익히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코로나19에 맞서 고군분투하던 의료인들에게는 그마저도 찰나와 같은 시간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긴장감 속에서 상황실은 24시간 내내 돌아갔다. 늦은 밤 상황실에 모여 지친 기색 없이 대책회의에 임하는 동료들을 보며 대단한 결속력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새삼 체감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힘을 내는 동료들로부터 긍정적인 힘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의 손길은 지쳐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는 큰 힘이 되었다. 주변 가족들로부터 걱정과 격려가 담긴 전화를 받기도 하고,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힘찬 응원과 함께 정성스런 도시락을 받기도 하였다. 전국에서 보내준 각종 지원물품은 우리 동산 의료인들에게는 물건 그 이상의 가치였다.

조기종식을 기대하며 2주간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본원으로 복귀해야 할 즈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나와 동료들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무사히 병동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코로나 전사! 동료애를 진하게 느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어느새 동산엔 벚꽃이 활짝 폈다. 매년 보는 꽃이지만 분홍빛 벚꽃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실감했다. 동산의 봄은 여전히 아름답다.

코로나를 이겨내는 슬기로운 일상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91병동 강민정 간호사

띠리리리리- 병동 내 전화벨이 울린다.

“선생님 응급실이고 환자 인계 드리겠습니다. 00세 남자환자 fever cause로 응급실 오셨고, 현재 코로나 의증환자로 병실 올리겠습니다.”

책임간호사 선생님이 나에게 말한다.

“민정쌤, 1910호실 코로나 의증환자로 한 분 올라오는데 격리병실 준비하면 되고 환자 인계 줄게요.”

2020년 2월의 어느 오전, VIP들과 보호격리만 받던 우리들에게 말로만 들던 코로나-19 의증 환자라니 마음이 섬찔했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우리는 환자를 간호해야 한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음압텐트가 있는 이동침대에 실린 환자가 복도 너머로 보였다. 두렵기도 했지만 환자를 케어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기에 두려움은 잠시 버려두었다.

우리는 N95 마스크와 플라스틱 고글, 의료용장갑, 비닐가운을 입고 환자를 맞이했다. 병실 출입은 최소화하고 공기, 접촉, 비말주의 격리사항에 맞게 환자를 간호한 뒤, 초기간호정보를 조사하고 처방된 수액과 항생제 투여, 환자의 complain을 체크한 뒤, 병실 안에 비치된 의료용 폐기물 상자 안에 입고 있던 가운과 고글 등을 넣고 나왔다.

약 30분. 얼마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음압병실 밖을 나오니 근무복은 흠뻑 젖어 있었고, 투명 한 안경알은 뿌옇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로나 의증환자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 검사결과: negative.’

기다리던 답변을 듣자 환자도 나도, 모두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로에게 웃음을 지어주었다.

음성이라니! 서로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차례 했었던 것 같다.

비록 코로나 의증환자가 줄어들기까지의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적절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규칙을 잘 지켜내서 함께 이루어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비바람이 지나가고 따사로운 햇살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낸다면 언젠간 우리도 이 갑갑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모두가 힘들겠지만 힘을 모아 주길 바라본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3개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02병동 **곽선영 간호사**

처음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는 그 일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내가 진짜 몸으로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구동산병원을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삼고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도 계속 확보하고 있을 그 당시에 우리 병동은 음압격리병실이 있는 병동이라 코로나 확진환자를 간호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방호복을 전실에서 입고 들어가서 간호행위를 하고 나왔었는데, 방호복 탈착의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다보니 매번 벽에 붙여져 있는 방법들을 보면서 입고 벗고를 반복했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손에 일이 익숙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환자들도 중증도가 낮은 환자가 많았기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까지는 많이 힘들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하지만 방호복 자체가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입고 벗게 되면 온 몸이 땀으로 젖어있었던 적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코로나 병동으로 바뀐 후 코로나 확진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병동은 정규로 채혈검사를 해 주시는 선생님, 병실 청소하시는 여사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환자의 입퇴원 시 격리병실 청소와 의료폐기물 정리, 환자들 식사 배식까지 모두 우리의 손으로 직접 하게 되면서 일반 환자를 볼 때보다 환자 수는 적었지만 업무의 강도는 높았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가 올라감에 따라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걸 해줘야 하는 환자들이 있었고, 그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업무강도는 더 올라갔다. 그런 와중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그 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해놓고, 어느 시간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올지 계획을 세우고 병실에 들어가 간호를 하고 나오면서 조금씩 그 상황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코로나 확진환자를 보던 중 환자들은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하는 환자들도 있었고, 음성판정은 받았지만 병원에서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우리 병동에 있는 빈 일반병실로 환자를 옮긴 후, 4중 보호구를 착용하고 간호를 해야 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다. 환자 한 명이 코로나 검사에서 2번 음성이 나와 일반병실로 옮겨졌었는데, 며칠 뒤 저녁에 발열 증상이 있어 나간 코로나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재격리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일반병실로 옮기면서 방호복이 아닌 4중 보호구를 착용하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코로나 검사를 했었던 적이 있다. 그런 일도 있으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환자를 보다가, 대구에 코로나 확진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거점병원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자 우리 병동에서 코로나 확진환자들을 다 내보내고 지금은 일반환자들을 보고 있는 중이다.

지금 우리 병동에서는 코로나 확진환자들을 보고 있지 않고 일반환자들을 보고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환자들을 보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힘든 와중에서도 환자들의 치유를 바라면서 간호하고 치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분들, 그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한다. 하루빨리 우리의 생활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코로나 전사들 파이팅!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02병동 김민정 간호사

2020년 2월 중순경 대구에서 코로나가 급격하게 유행하기 시작하던 시기, 뉴스를 보며 걱정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한 채로 병원에 출근했다. 어느 때와 같이 근무하던 중 우리 병동에서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병동에 음압 격리 병상이 총 7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를 받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럽게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다. 감염관리팀에서 와서 레벨D 보호구를 입는 방법을 설명해주었고, 나는 ‘진짜로 오는 것이 맞는가..?’ 하며 떨떠름한 기분으로 어색하게 보호구를 입었던 것 같다. 생각보다 빨리 병동에 코로나 환자가 올라오게 되었다. 다른 선생님이 보호구를 입고 그 환자를 받았고, 나는 그 날 기존에 있던 환자들을 다른 병동으로 전동 보내느라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서서히 7개의 병상이 코로나 환자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초반에 있었던 환자들은 대부분 거동이 가능하고 체온, 혈압 측정 정도는 교육을 시키면 스스로 할 수 있어 격리실에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다. 격리실과 간호사실 간의 콜 폰으로 의사소통을 했고 간호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다. 문제는 점점 환자들의 중증도가 올라가면서 NG feeding, suction, 체위 변경, 기저귀 갈기, 구강간호, 삼투 등 간호사가 모든 케어를 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호구를 모두 착용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한두명만 있어도 사실 힘들었다. 격리실 안에 30분 정도 있으면 몸에서 땀이 흐르고 고글은 습기가 끼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점은 침대 위쪽으로 올라야 하는데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무게라 허리가 아팠고, 치매가 있으셔서 대변을 치우는데 자꾸 손으로 콧줄을 빼려고 해서 그것도 확인하느라 한번 들어가면 진을 뺐다. 격리실을 나오면 땀 때문에 그런지 몸에 한기가 들었고 이마와 광대는 고

글 자국이 진하게 생겨 한참이 지나도 자국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기도 했고 그 때 우리 병동에서 CPR 상황도 발생했었고, 격리 중에도 고관절 수술을 하고 나오셨는데 잘 치유되어 전보다 다리를 잘 움직이게 되었던 환자, 출산 후 우리 병동에 잠깐 계셨는데 환자를 보러 들어갈 때 방송 촬영 중이라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엄청 긴장해서 더 땀 흘렸던 일 등 많은 일들이 떠오른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다보니 어느덧 3개월 동안이나 코로나 환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대구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되어 병동에 환자 수가 줄어들었고 마지막엔 우리 병동 간호사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갑작스럽게 시작한 이 일이 막을 내렸다.

코로나 환자 간호가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또 바쁘게 근무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이번 기회로 글을 쓰다 보니 그때의 고충, 한편으로 느끼는 뿌듯함, 환자 한명 한명이 다 기억나면서 아마 간호사로 평생 일해도 잊지 못할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 당시 간식, 물품 제공 등 도움을 주셨던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고 정말 감사했다고 이야기 해드리고 싶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로 의료진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고생하고 있다. 그들의 헌신에 항상 응원하며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외쳐본다. 대한민국 코로나 전사들 파이팅!

대구동산병원 소개(疏開) 하던 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감염관리팀 **김영숙 간호사**

2020년 2월 22일 토요일,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을 위해 대구동산병원 전체를 소개 하던 날이었다. 팀장님과 팀원 3명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을 위한 병원 세팅을 위해 대구동산병원으로 출근했다. 본원 감염관리팀 사무실에는 오전에 2명이 출근하였고, 2명은 집에서 대기하다가 출근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바로 출근하기로 했다. 2월 18일에 대구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미 본원에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병동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으, 휴일이니까 법정감염병 신고하고 간단한 전화상담 업무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능하면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팀원들은 부르지 않으리...

오전 9시, 감염관리팀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친구와 몇일 전에 밥을 같이 먹었는데, 친구가 신천지라고 하더라구요. 기침이 나고 가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급실에 재원 중인 산부인과 환자가 열이 나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나가 의심되는 사람이 쯤 전에 검사를 하고 갔어요. 저희는 괜찮은 건가요?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응급실 선별입니다. 타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데 그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우리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되는지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제 응급실에서 검사했던 사람인데요. 검사결과 나왔나요?”

“대구시입니다. 중환자실에 확진자가 입원하기로 했는데 몇시쯤 가면 되나요?”

“오늘 검사한 사람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구두 신고해야 하는데, 도대체 보건소는 왜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에 끝도 없는 전화가 휘몰아치고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다. 알아 보고 다시 전화해주겠다고 대답하였지만 끝이 없는 전화벨 소리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도 없고 다시 전화 할 짬도 없었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

오후가 되고, 결국 집에서 대기 중이던 팀원을 불러서 중환자실에 확진환자 입원을 위해서 응급실, 통제담당 보안요원, 방역담당 미화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였고 레벨D 보호구를 입고 음압캐리어를 준비하여 환자를 이송하였다. 당일 중환자실로 입원예정인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이었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송은 계속되었다.

저녁 7시쯤 팀장님한테 전화가 왔다. 대구동산병원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여긴 어쩌냐고 괜 찼냐고 물어보셨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순간 나를 두고 가신 팀장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전화통화를 끊고 팀장님과 팀원들이 그 늦은 시간에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한달음에 달려오셨고, 남아있던 업무를 마무리하고 밤 12시가 가까이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그 후 두달여간 코로나19 확진자 입퇴원 및 검사와 수술, 직원 확진자 발생, 응급실 폐쇄도 몇차례 반복되고, 원내검사가 진행되면 하루 300건 이상의 법정감염병 신고 업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접촉자 조사, 보건소와 대구시 신고 및 보고 등등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했고, 덕분에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게 무용담처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

저는 평범한 대구시민일 뿐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61병동 **김은미** 책임간호사

“엄마~~~~”하며 뛰어오는 아이들을 멈춰 서게 했습니다. 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2월 중순, 20년째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에게는 의료인으로서, 한 가정의 엄마로서 그리고 대구의 한 시민으로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천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뉴스에도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 31번 대구 확진자가 나오기 전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는 코로나 의심환자가 내원하면서부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같은 신종 감염병이 생기면 제가 일하는 음압 격리병동으로 입원을 하기 때문에 의심환자가 내원하는 그 날, 평소 퇴근보다 4시간이 늦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퇴근을 했습니다. 20년째 병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레벨D 방호복은 보기만 봤지 입어보지 못했었고, 사실 입기 싫었습니다. 입는 것도 잘 입어야 하지만 벗을 때 잘 벗어야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입어보는 연습도 했습니다. 이젠 뭐, 입고 있으니 땅에 묻힌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어지러워지고, 잠깐 입다 벗어도 선명하게 찍힌 고글과 마스크 자국, 고글압박으로 인해 오는 두통, 10분만 입고 있어도 온 몸에 땀이 비 오듯 줄줄 흘러 속옷까지 다 젖는 요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100일동안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루하루 출근할 때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두려움을 환자에게 보여서는 안 되기에 방호복을 입을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달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일상

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희도 그 옷 계속 입으니 적응되지? 이제 입을 만하지?’ 라고 하시던 환자분 앞에서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완치되어 퇴원하는 환자가 저희를 보며 감사하다며 인사하시는 모습에 힘을 얻어 스스로 강인해짐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혼자 격리실에 있으시며 인생을 포기하신 것처럼 식사도 안 하시고, 산소치료도 싫다 하시며 침상에서 누워만 지내시던 85세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어르신! 약 잘 드시고, 식사 잘 하시고, 산소치료 잘 하시면 여기서 빨리 나가실 수 있어요!” 어린 아이 대하듯 달래며 옆에서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까지 입에 넣어드리고 기저귀까지 갈아드리니 나중에 “고맙다”한 말씀 해주시는데, 그 한 마디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미 다 젖어버린 속옷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약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어르신을 놓아주지 않아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타병원으로 전원을 가졌고,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참 많이도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집에 돌아오는 엄마로서는 정말 한없이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대구시에서 마련해주는 기숙사에 머무를 수 없어서 매일 집에서 출퇴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혹시나 내 몸에 묻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족에게 옮겨질까 두려운 마음에 퇴근하면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바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퇴근하는 엄마에게 매달려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던 우리의 일상은 ‘엄마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는 말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한다는 걸 알면 학교나 유치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소문에 31번 확진환자가 나온 날부터 단 한번도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삼시 세끼 집에서 다 해결하는 일도 워킹맘으로서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도 나가자고 떼쓰지 않고 집에서 잘 견뎌준 아이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힘들어도 버틴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전쟁같은 날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날에는 너무 피곤해 몸살끼가 살짝 있었는데, 저는 언제든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보니 무조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깥 외출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둘째 아들도 같이 열이 나서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긴 면봉같이 생긴 검사도구를 코 깊숙이 밀어넣으면 ‘아~’ 소리가 저절로 나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검사를 아직 어린 둘째 아들이 한 날에는 옆에서 지켜보다 펄펄 울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픈 경험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사를 두고 투병하는 환자들과 감염의 위험을 무릎쓰고 일상생활도 하지

못한 채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루는 온 몸에 힘이 다 빠지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밤마다 클럽에서는 줄 서서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많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어떤 젊은 분은 인터뷰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장 내일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다고 쳐요, 그럼 저의 오늘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내일 죽을거면 오늘 즐겁게 즐기고 싶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구에 확진자가 대폭발하던 2월말에서 3월초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다녀온 제 이웃도 있었으니까요. 말로는 ‘수고한다, 니가 영웅이다’ 라고 하지만 정말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없고, 저도 의료인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환자 안 보고 싶다는 마음은 누가 알아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가 영웅이다, 내가 이 사회를 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이 사회에 한 사람으로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들이 모여 지금의 최강백신 대구를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전국에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던 그해 여름,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시작으로 대규모 지역적 이동이 시작되면 전문가들이 예견하던 대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해 여름휴가는 그냥 집에서 맛있는 음식 배달해서 먹으며 제대로 휴식을 즐기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어린 두 아들에게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안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꼭 여행을 떠나기로 손가락걸고 약속도 했습니다.

꼭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영웅이 아닙니다. 모두 제 자리에서 지킬 것 지키고,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다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지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하루 빨리 앞당길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 뛰어난 영양사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김진희 영양팀장**

“지금은 전시상황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이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술선수범해서 맡은 부서를 잘 운영해야 합니다.” 병원장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아침 일찍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따른 상황 대처를 위하여 각 부서마다 업무 지시와 방역소독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회의 참석을 마치니 점심 식사 때까지 주어진 시간은 15분 남짓이다. 2,800여 명 교직원의 식사 시 감염 예방을 위해 부서별 이용 시간을 조정하고, 1인 1식탁으로 한 방향 정렬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병원 영양팀 전체가 본인의 주 업무 외에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 개별적인 시간을 모두 반납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을 예방하고, 식사 변경에 대한 불편을 덜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식당 내에 거리두기, 식사 시 대화 금지,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에 대한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설치하고, 교직원에게 문자로 안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급식 업무를 계속해 오는 와중에 코로나19 양상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식탁 내 칸막이를 영양팀에서 직접 조립·설치하고, 교직원 식당 오픈 전후로 전체 방역과 식사 중간중간 식탁과 의자, 칸막이 등을 소독제로 닦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식 제공에 있어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식사 처방을 별도 기호로 표시하여 관리하고, 매 끼니 개별 포장된 일회용 도시락은 각 병실 담당 간호사에게 전달하여 비대면 배식하게 하였으며, 식사 후 용기 및 음식물 쓰레기는 해당 병동에서 바로 폐기하여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구 전 지역이 어려웠던 때에는 부원장님의 SOS를 받고, 당시 새로이 개원하여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대구동산병원으로 달려갔다. 코로나19와 24시간 사투를 벌이는 환자와 의료진은 물론이고 행정 및 관리직원들의 식사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영양팀 직원들의 고생이 눈에 밟혀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한 손을 보태기 위해 봉사자로 지원한 것이었다.

대구동산병원의 영양팀은 영양사가 3명뿐이었고, 식자재 납품을 비롯한 급식 운영이 모두 중단된 상태였으며, 대구광역시의 결정에 따라 모든 식사를 도시락 업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루 세끼를 도시락으로 급식 받는 환자들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락 업체와 많은 날을 함께 고민하며 식품군 구성 변경, 일품식, 죽식 등 환자 식사 구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레벨 D의 방호복을 입고 병실마다 환자를 방문하여 제공된 도시락의 불편 사항, 식사 시의 어려움 등을 살폈고 인력 부족으로 교대 근무나 휴일도 없이 환자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료진, 봉사자, 직원들의 식사를 위해 줄곧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나뿐 아니라 적십자 봉사자와 인근 대학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봉사자로 나서 새벽 5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식당 소독 및 청소, 도시락 배분과 운송, 매끼 환자용 간식 포장으로 고생이 많았지만 항상 밝은 웃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한 봉사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당시 협조해 준 학교와 학부모, 업계 관계자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19가 대구 전역을 강타한 그 시기는 그야말로 코로나19라는 폭탄의 위협에 전시 상황과 다름이 없었으며,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상처받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구동산병원은 최전선에 세워진 전초지였다. 아직도 그 전화가 남아 있지만 의료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영양팀, 그리고 봉사자들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당시 대구동산병원 전초기지에서도 함께 봉사하며 보냈던 시간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며, 환자들과 직접 만나서 영양상담을 하고, 교직원 식당에서는 웃음과 대화가 넘쳐날 그 날이 머지않았음을 기대해 본다.

나를 비롯한 영양팀 전원은 오늘도 입원환자와 본원 교직원의 식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 약국에서의 소중한 경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조제팀 **노수빈 약사**

2019년 2월 29일 대구시의 코로나 당일 확진자는 741명이었다. 나는 다음날인 3월 1일부터 대구동산병원 약제팀에서 자원 근무를 시작했다. 출근하는 날부터 경증환자는 생활 치료센터로 가고 중등도 이상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출근해서 맞이한 별관에 임시로 차려진 약국은 제대로 된 약국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약은 상자 안에 쌓여있었고 약이 든 상자는 바닥에 순서 없이 흩어져있었다.

입원하는 환자가 점점 늘어났고 그만큼 중증의 환자들도 많아졌다. 병동수와 침상수도 늘어나고 일반 약뿐만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도 나오기 시작했다. 기계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처방 건수가 늘어났다. 처방약들을 바로 찾아서 제 시간에 약을 불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약국’이 필요했다. 약 포장 기계, 마약금고, 냉장고와 책장으로 만든 약장이 들어오면서 약국은 제 모습을 갖추 수 있었다.

요양병원 집단감염 이후 고령의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사망하는 환자들도 생겼다. 본원에서 근무할 때는 약사 인원도 많고 주로 환자들의 약을 보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의 입퇴원이나 전동 및 전실, 사망을 알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1~2명의 약사가 매일 처방을 보다보니 그런 부분을 가까이서 접하게 되었다.

본원에서는 약국에서 같은 직종의 선생님들과 일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직종의 선생님들과 같이 얼굴을 보면서 일을 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도와주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처방 중재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약이 필요한 경우, 폐쇄되어 있는 본관 약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 서로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었다. 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수가

많아져서 약국의 인력이 부족할 때는 상황실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약국에서도 업무에 지친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상비약을 챙겨줄 수 있었다.

대구동산병원에서의 근무는 2년차 병원약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병원약사로서 일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고 약사로서의 사명감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안에서 약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직접 겪고 느낄 수 있었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을 것이다.

외래선별진료소, 이곳은 전시 상황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류상연 간호사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2020년 2월 19일 대구에서의 대규모집단감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의 감염병 신종플루 메르스와는 다르게 감염의 전파가 굉장히 빨랐고, 감염은 건잡을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간호사가 된 걸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간호사이기 전에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학교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기간까지의 휴교를 하게 되었고, 가족들의 걱정과 집에 있을 아이들의 걱정, 간호사인 저도 건잡을 수 없는 사태에 당황스럽고, 대구에서도 확진자 및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환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4층에 운영 중 이던 외래선별진료소도 1층병원 외부의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임상에서의 10년차 간호사로서, 감염에 대한 방대한 지식만 있었을 뿐, 구체적 지식과 대응지침도 알 수 없었기에 모든상황은 당황스러웠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의 근무도 하루가 다르게 적응해 가고있었습니다.

코로나 증상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걱정과 두려운 눈빛, 기존의 호흡기내과나 이비인후과 환자들의 코로나 유사증상으로 외래진료를 하기 전의 문진표 작성 및 의무기록절차 안내뿐 아니라 민원해결 등 외래선별진료소에서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선별진료소뿐 아니라, 외래진료과에서도 긴급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면서, 대구동산병원의 기존 외래예약자들의 변경 및 진료안내도 계명대학교동산병원에서 이루어지고, COVID-19로 인한 환자들의 문의 전화와 대리처방안내 및 유선처방의 한시적 허용으로 진료과도 전화는 폭주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도 진료과의 공유 및 단계적 회의를 통해, 점점 적응해갔고 대구에서의 COVID-19 감염상황도 잡혀가고있는 상황입니다.

환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2020년 2~3월경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간호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별진료소 근무 및 진료과 일정조율 및 여러 상황들의 일들을 점점 해결해가면서, 저 또한 COVID-19 상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의 상황이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임상에서 열심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패닉상태에 빠뜨렸지만, 개인 방역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백신 개발로 인해 상황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코로나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들에게도 간호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간호사들!!

우리는 코로나 여전사입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02병동 **민경애 책임간호사**

코로나가 대구에 한창 퍼질 즈음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었다. 2020년 2월 25일 병동 근무 도중 우리 병동 중 한 명이 대구동산병원의 인력부족으로 파견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가야 된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이 순식간에 내가 가기로 결정되었다. 오만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고 집에 오기는 두려워서 잠을 쫓다. 거기에서 일하는 동안은 집에 오지 못할 거란 생각에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근무지에 도착하였다. TV에서만 보던 방호복을 내가 입어 보는구나! 신기했다. 하지만 고글을 쓰니 김이 서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이런 상태로 2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병동도착! 두근두근! 앞조로부터 인계를 받고 근무시작~

전화기도 귀에 대지 말라고 해서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하는데 환자들, 의사들과의 대화도 순탄치 않았다. 목청을 높여도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환자 식사를 배식해야했는데 최대한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해서 병실 문 앞에 두고 “드세요”라고 외치고 바로 나왔다. 하지만 진통제를 원하는 환자가 있어 주사를 주러 가서 처음으로 코로나 환자를 바로 앞에서 접하게 되었다. 여느 환자나 다름없는데..... 2시간 근무, 2시간 휴식, 2시간 근무, 2시간 휴식으로 이뤄진 일정만 본다면 총 근무시간은 4시간인데 온 몸이 땀 범벅으로 되어 나오니 근무를 마치면 녹초가 된다. 이렇게 근무에 적응해 가던 중 중환자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인공호흡기 환자가 첫 발생하였다. 예전 중환자실 근무경력으로 중환자실에 배정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또 심장이 두근거리며 큰 부담을 안고 근무를 들어갔다.

인공호흡기환자를 오랜만에 대하는 부담도 있고 suction, 체위변경을 해야하다보니 일반병실보다 몇 배는 더 감염위험이 있을 것 같았다.

다행히 환자의 의식이 또렷하고 아주 협조적이어서 근무를 하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는 서서히 사라지고 이 환자분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A4용지를 보고판에 끼워 환자와 의사소통을 시작하기도 하고 방호복을 입어서 불편하지만 서서히 적응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중증환자들에게서 에크모, 혈액투석 등의 처치가 이뤄지며 심적 부담이 극대화되었다. 중증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간호인력을 늘려주기는 했지만 각처에서 온 간호사와 손발을 맞춰 일을 해내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레벨C 보호구를 입고 다니면 누가 누구인지 분간도 할 수 없을뿐더러 일반적인 업무 전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병원마다 전산이라든지 업무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런 것을 조율하고 싶지만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근무에 들어가면 시간은 쏠살같이 지나갔다.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근무지에 들어가면 마음만 답답해져 갔다.

여기서 사망하시는 분은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가 없다.

마지막 임종을 가족이 함께 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홀로 쓸쓸히 가셔야만 했다.

그런 것들이 점점 고통으로 다가왔다. 근무를 들어가려면 마음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기도 하였다.

2주 남짓 지났을까? 복귀연락을 받았다. 2주간의 시간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설렘, 두려움, 고통, 동료애, 가족...

복귀 전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걱정이 되었다.

혹시 양성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양성이면 나와 접촉한 사람들에게도 미안하지만 방호복을 잘못 벗어 그런 게 아니냐는 주변의 질타가 쏟아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끝날 때까지 걱정의 연속이었다.

다행히 결과는 음성!

내 마음의 평화가 오기는 했지만 아직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은 않았다.

다 같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협조해서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의료전선의 끝 동산병원 응급실 간호사의 코로나 생존사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 석종협 간호사

[온몸으로 겪어본 보이지 않는 공포]

대학병원 응급실의 24시간은 늘 버라이어티 하다. 사람이 아플 수 있는 수많은 방법과 이론으로만 공부했던 대부분의 질병을 볼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죽음의 사선에서 헤매다가 멀쩡하게 두 발로 돌아가는 사람, 응급하게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와 애기를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도 느끼기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오고가는, 마치 사람의 긴 인생의 굴곡 그래프를 축소해 놓은 곳이다. 그 중에서도 응급실의 겨울은 각종 외상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소아 감기로 인해 환자가 넘쳐나고 중증도도 높아져 하루하루 숨 쉴 틈 없이 힘들게 일하게 된다. 그러나 그 때는 몰랐다. 이보다 더 힘든 일이 남아 있을 줄은. 나는 응급의료센터에서 메르스를 포함한 각종 전염병에 늘 맞서 싸워온 경험이 있기에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대처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덮친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의 전염성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였고 초반에는 전파경로도 확실하지 않은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앞서 경험했던 것들도 속수무책이었다. 대구의 첫 확진자가 나온 2월 18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바로 전날 이브닝(오후) 근무를 마치고 내일 동기들과 별구경을 가자고 약속 해놓은 상태였다. 짐을 꾸리고 있던 찰나 핸드폰이 사정없이 울리기 시작하고 티비와 각종 인터넷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구 확진자 발생을 대서특필했다. 병원에서는 그전부터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해 교육을 했고 선별진료소 근무도 하며 인력과 장비들이 꽤 갖춰져 있었지만 실전은 늘 더 가혹하기 마련이고 아무리 준비했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내일 당장 출근했을 시 코로나

의중 환자들을 바로 간호해야하는 실전 상황임을 알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정신없이 뉴스 기사를 읽고 병원에서 교육 해준 레벨D 방호복 입는 방법을 회귀해보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출근 준비를 했다. 당연히 부모님도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는 표정으로 너무 걱정하셨지만 안심시켜 드리고 두렵고 촉박한 마음으로 출근했다. 도착하자마자 응급의료센터 차원에서 브리핑이 있었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용품과 인력, 음압격리실이 더 필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부분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 대처하는 의료진의 심리상태였다. 이 당시를 떠올려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내가 감염되어 환자와 가족에게 옮길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는데 내가 손으로 만진 물건부터 시작하여 숨쉬는 활동 조차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았고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레벨D를 입어도 그 불안감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응급실 내에서 코로나 음압텐트와 음압격리실, 코로나 강력의심 지역과 의심지역, 청정지역 등으로 나뉘서 초진부터 구분하며 진료했지만 내가 접촉한 청정 구역의 무증상 환자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 되어 우리 응급실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병원이 폐쇄되고 의료진이 전원 격리되어 코로나 검사가 나올 때까지 퇴근하지 못한 채 격리되기도 했다. 격리 되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그 스트레스와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지쳤으며 실시간으로 바뀌는 병원 지침과 규정들을 숙지하기도 버거웠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했다고 해서 기존의 아픈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시간도 우리에게 길게 주워지지 않았고 환자들은 물밑 듯이 밀려들어왔다. 환자가 119 앰بول런스에서 내리자마자 초진 구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 날씨에 체온측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환자를 케어 할 때면 방호복과 이중 장갑을 아무리 껴입어도 급박한 상황에서 공기에 노출 되기 마련이었고 IV 하는 것도 평소보다 두 세배는 힘들었다. 심폐소생술 상황이 30분이 넘어갈 때 쯤이면 탈진이 올만큼 정신이 아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평소만큼 처치를 못해서 환자가 잘못 됐다는 죄책감도 들었고 정신없이 처치한 후에는 방호복에도 구멍이 뚫려있거나 고글이 비뚤어졌거나 해서 코로나 노출에 대한 공포심은 늘 안고 살았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의 전파력과 사망률 등이 서서히 통계화 되고 밝혀지면서 의료인들도 이 바이러스에 점점 적응해 나갔고 병원도 완벽하게 코로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응급실은 24시간 쉬지 않고 코로나에 준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불철주야 모든 인력이 힘쓰고 있다.

[최고의 백신은 국민, 그리고 우리]

코로나 의증 사망환자를 가족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다.) 교수님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이중 방역포로 사람을 밀봉하고 영안실로 보내기도 했었고, 할아버지가 코로나 의증으로 사망하여 몇 십년을 함께 한 할머니가 할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음압텐트실에 격리되어 밤새 목놓아 우시던 그 모습들이 아직 눈에 선하다. 또 음압텐트실에서 심폐소생술 생존 확률이 너무 낮아 동료들과 고민도 하고 더 즉각적으로 소생시킬 수 있도록 물건의 위치도 효율적으로 바꾸기도 해봤으며 음압 텐트실에서 처음으로 소생시킨 환자를 보며 기뻐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의료인들은 우리가 겪었던 이 바이러스의, 사람의 생명의 무게를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병원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음압격리실 작동 유무 및 환자 상태 확인, 선별진료소 음압텐트 확인 및 PAPR(전동식 공기 정화 호흡기)을 포함한 각종 코로나 대응 의료기기의 점검 상태를 확인하며 근무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응급실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장비의 사용법을 익히고 하루하루 바뀌는 응급실 체제에 적응하며 수많은 코로나 의심환자들을 보며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대항하여 고군분투 중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한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본적인 생활 방식부터 시작하여 의료, 경제, 스포츠 문화 등등 수많은 것들이 코로나 체제에 맞게 변화하고 있고 겨울이 깊어지면서 호흡기 질환자의 증가와 함께 또 다시 폭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이 최고의 백신이 되고 가장 최전선에서 우리 병원의 직원들처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지금 이 시기 또한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0 얼음땡, 멈추었던 일상이 다시 살아나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92병동 이부민 간호사

[제가 가겠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대구에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생기고, 대구도 이제 안심시대가 아님에 걱정하고 매번 새로운 뉴스에 촉각이 곤두서 있었다. 병원은 온통 통제라는 팻말과 함께,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이전에 병원의 풍경은 상상할 수 없으리 만큼 삭막하고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모습이다. 2020년 2월 20일 대구동산병원을 코로나 지역거점병원으로 운영하는데 파견 갈 의향 있나는 수간호사 선생님의 물음에 난 “저요” 손을 들었다. 이 병원에 일하면서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음에 설렘과 걱정이 공존하긴 했다. 혹시나 수당을 주지 않을까 기대했었는지도 모른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이렇게까지 큰일이라고는 몰랐었다. 잘 할 수 있겠지? 괜찮겠지? 파견근무 첫날 이른 아침 대구동산병원으로 향했다. 해도 뜨기 전이라 캄캄하고 조금은 서늘한 느낌이었다. 예전 병원은 온데간데 없이 주차장마저 행했다. 탈의실에 들러 환복을 하고 개인옷이랑 신발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대충 구겨넣었다. 임시 탈의실이어서 개인장은 커녕, 신발장조차도 없었다. 일단 머리카락을 고무줄로 질끈 묶고, 아직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반팔차림으로 보호구착용실로 뛰어가 방호복 착용을 하였다. 외부병원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다들 처음이라 서로 마주보고 보호구를 점검해 주었다. 드디어 병동으로 들어갔다. 일단 가보자. 방호복을 입을때는 몰랐는데, 걸어보니 뭐라도 썩 듯한 찝찝한 느낌이었다. 6층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고글에는 습기가 차올랐다. 닻아보아도 소용 없었다. 뿌연 느낌,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또다른 세상이었다. 환자들의 도시락을 하나하나 병실로 넣어주는데, 등줄기 땀은 주르륵 흘렀다. 이마의 땀은 닦고싶는데 닦을 수 없다는 것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병실 환자들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는 문을 바로 닫아버리는데, 그들도 얼마나 힘들까, 갑갑할까 마음이 안타까웠다. 최대한 접촉을 피해야 되기에 스피커폰으로 소통을 하고, 환자들은 “물 좀 갖다주세요.” “창문은 열면

안 됩니까?” “생필품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구하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약없이 갇혀있어야 함에 다들 두려움과 답답함이 함께 느껴졌다.

병동에서의 2시간은 밖에서의 20시간이나 다름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숨이 막혀왔다.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 때 쯤 다음팀이 인수인계 하기 위해 오는 소리가 들렸다.

“휴, 살았다”라고 머릿속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입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매일 병원으로 향했다. 퇴근 후 집으로 올 때는 항상 이마에 고글자국이 주름살처럼 잡혀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내방의 침대와 하나가 되었다. 딱히 막 움직이고 뛰어 다닌 것도 아닌데, 집에 오면 기진맥진, 머리가 멍했다. 게다가 하루하루 나오는 스케줄에 맞추다보니 내일이 없었다. 나른함과 우울함이 동시에 찾아왔고 언제까지일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다. 티비에는 채널마다 코로나 관련 뉴스밖에 나오지 않았고, 하루하루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감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초반에는 병동에서만 근무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병동 환자들이 점점 악화되어 산소줄에 의지하고, 인공호흡기까지 달면서, 중환자실 근무로 바뀌게 되었다. 환자들 중에는 상태가 악화되어 바이러스와 싸우며 고생하다 끝끝내 우리의 노력에도 사망하는 이도 있었다. 결국 한줌의 재가 될 뿐이었다. 가족들도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없음에 안타까웠다.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다.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은 이들을 지키자! 더 나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겨울은 훌쩍 지나고 따뜻한 봄도 코로나와 함께 지나쳤다. 지원의료인들과 함께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2주... 코로나와의 사투를 했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다보니 장기간 할 수 없음에 다시 성서 본원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설 겨울도 없이 혹시 모를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타병동으로 또 파견을 가게되었다. (나의 병동은 코로나로 인해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게 되었다) 일상이 멈춰 버린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2020년을 보내고 있다. 12월 아직까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렸다.

하지만 가장 쉽고 확실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믿는다! 우리의 노력과 힘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요즘 유치원에서 일찍 마친 아들과 딸이 퇴근하고 온 남편과 집에서 얼음땡놀이를 즐겨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로 인한 모든 것이 멈춰있는 지금 이 시간도 ‘얼음땡’ 놀이처럼 ‘땡’ 하면 다시 살아나는, 예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이 가능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믿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것을...

내과계중 환자실 우리들의 코로나 이야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내과계중환자실 **이유진 간호사**

[2020년 겨울 그리고 봄]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는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내과계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들은 대구동산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상태가 좋지 않아 인공호흡기, 투석기, 체외순환기(ECMO) 등의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코로나 환자들을 중환자실 음압격리실로 전원받아 직접 간호하게 되었다. 내과계중환자실의 특성상 우리는 활동성 결핵이나 항생제다제내성균 등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경험이 많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도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두려움도 컸다. 2월 21일 첫 코로나 환자가 우리 중환자실로 입원하였고, 이후 코로나 상황은 하루하루 더욱 악화되었다.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진단받은 환자들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늘어났다. 2월 25일 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즉각적인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구동산병원에서 전원되었다. 입원하자마자 환자에게 기관 내 삽관 및 중심정맥관 삽입 등의 주요 시술이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담당의와 함께 음압격리실에 들어간 우리는 방호복을 착용한 채 2시간 이상을 환자 곁에 머물며 여러 가지 응급처치 및 간호를 수행하였다. 이때 습기 찬 보안경으로 인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아 환자에게 여러 가지 처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행히 한 번에 여러 시술과 처치가 환자에게 무사히 시행되었고 정리 후 나오자 온몸은 땀으로 젖어있고 가쁜 호흡으로 인해 잠시 어지러움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입원 시보다 다소 상태가 안정된 환자를 보며 안도감과 감사함이 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직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하자는 원칙에 따라 음압격리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 간호사가 수행하게 되었다.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식이 및 투약 등의 간호행위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처방에 따른 인공호흡기 조작부터 환자의 대소변 정리, 청소, 폐기물 처리까지 우리가 직접 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격리병실에 한번 들어가면 몇 시간이고 나올 수가 없었고, 모두가 흠뻑 젖어서 나왔다. 젖은 보라색 근무복은 마르면서 흰 무늬를 만들어냈고 서로를 바라보며 ‘소금쟁이’라며 웃었다. 몸과 마음은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며 격려하고 또 힘을 내어 하루를 보내었다. 이러한 와중에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면서 우리들만의 터치 발명품도 개발했다. 바로 생수병을 낚시줄에 연결하여 격리실 밖에서 줄을 당기면 격리실 안쪽에 설치되어있는 투석기의 화면을 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속적인 혈액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기계가 자주 멈추게 되는 경우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데 이 기계는 매우 예민해서 환자의 움직임이나 상태에 따라 경고음이 울리며 작동이 일시 정지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때 투석기 모니터의 <계속>항목을 터치만 해주면 다시 잘 작동이 되는데 이 화면만을 터치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음압격리실에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결과 이런 우리만의 터치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정말이지 우리 간호사는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온 힘을 다해 돌보던 코로나 환자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그 날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중환자실로 오실 때부터 매우 위중하셨던 환자는 지속적 혈액 투석요법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 호전을 보이지 않고 결국 사망하셨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자 면회가 제한되어 입원 후 환자를 한번도 제대로 뵈 수 없었다는 아들은 아버지를 보내며 마지막으로 손 한번이라도 잡아보게 해달라며 부탁하셨다. 아들에게 방호복과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함께 들어갔으나, 슬픔으로 목이 메인 아들은 호흡이 힘들어져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우리는 코로나 환자 사망 시 의료인이 시신을 정리하여 이중 밀봉하여 화장시설로 이동하도록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담당의와 함께 모든 사후처치를 직접 시행하였고 그렇게 고인을 보내드렸다.

3월 중반의 어느 날 인공호흡기 및 체외순환기(ECMO) 치료를 하는 매우 위중한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셨다. 정말 생사를 오가는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시고 조금씩 호전이 되어가던 중 할머니는 장기화 되는 힘든 치료에 너무나 지치셨던 모양이다. 기관 내 삽관을 하여 말은

하시지 못했지만, 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입모양으로 ‘죽고 싶다’, ‘그냥 가게 해줘’ 라며 눈물을 자주 흘리었다. 그날도 죽고 싶다는 환자를 달래고 나왔는데, 옆 음압격리실에서 다른 환자를 간호하고 있다가 문득 유리창을 통해 할머니를 보았더니, 할머니 손이 삽관되어 있는 입으로 올라갔다. “어! 신체보호대가 되어 있었는데? 손이 왜 올라가는 거지? 안돼요! 제발!”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할머니는 결국 기관 내 삽관을 손으로 뽑으셨다. 순환을 위해 겨우 손가락 하나의 여유를 두고 묶은 신체보호대에서 손목을 요리조리 비틀어 손을 빼내신 다음 결국 기관 내 삽입되어있던 관을 빼내신 것이다. 응급상황이다! 우리의 얼굴은 모두 새하얗게 변했다.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보란 듯이 푹푹 떨어지기 시작했다. 옆 코로나 병실에서 방호복을 벗어던지고는 다시 방호복과 보호구를 착용하고 정신없이 뛰어 들어가 압부백을 잡았다. 밖에서는 담당의에게 연락하고 재 삽관을 위한 기구와 물품을 챙겼다. 담당의는 곧바로 도착하여 재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계획되지 않은 발관으로 인해 기도가 부은 상태라 재삽관은 쉽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재삽관을 시행하였고 다시 인공호흡기와 연결한 후 환자의 상태는 안정이 되었다. “할머니.....” 그제야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또 그렇게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도 그 날을 생각하면 우리의 심장은 쿵쿵쿵 쿵 거린다.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했던 할머니는 장기간의 치료 후 상태호전을 보이셨고, 여러 차례 검사 끝에 코로나 음성 및 격리해제 판정을 받아 감사하게도 6월 초 건강히 퇴원하셨다.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장면은 환자가 장기간 치료 후 격리해제를 통보받는 순간이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상 음성이 연속하여 두 번 나오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음압격리실에서 거의 두 달간 입원 치료를 하고 처음으로 격리해제를 통보받던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던 아들은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를 지켜보던 우리도 함께 눈물이 흘렀다.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제한되면서 영상통화로만 할머니의 안부를 묻던 가족들은 격리해제를 통보받은 다음날 드디어 ‘이산가족 상봉’을 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도 생이별하게 만들었으며, 수많은 노력과 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2월부터 발생한 대구의 코로나 환자의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방역 등을 통해 현재 발생자가 다소 감소한 상태이나, 지금 서로를 위해 잠시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영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루 빨리 더불어 살아가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우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다. 그리고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코로나19와 복된 간호사로 지내온 시간들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소화기내시경실 **이은경 간호사**

올해 초 한국에서 코로나로 확진자가 막 나올 무렵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가족들과 세부 여행을 갔었다. 당시 여행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까다로운 공항 검색을 거치는 등 코로나의 위험을 온몸으로 체감했지만, 여행 중에 드린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간호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내가 해야 할 간호 업무에 선한 동기를 주는 것 같았다.

한국에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내가 근무하는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코로나의 공포로 자원하는 의료인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나를 믿어주는 가족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망설임 없이 자원을 했다.

올해 3월만 하더라도 대구의 모든 곳이 유령도시처럼 코로나19는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고, 남편과 아이들은 내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게 되면 함께 지낼 수 없는 현실을 알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환자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족들의 응원 속에 나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즐겁게 보살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다짐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막상 방호복과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격리 병동에 근무를 하니 30분만 지나도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고 고글은 습기로 가득 차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땀이 눈에 들어가도 닦을 수 없는 어려움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로가 쌓이고 몸도 지쳐갔다. 힘든 호흡과 두통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으로 선택에 대한 의구심이 든 순간도 있었다.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분들 중 기억에 남는 고마운 분들이 참 많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힘들게 하였던 분들이 더 생각난다. 고위험군 중에서는 치매 질환을 앓고 있었던 연세 많으신 환자분들의 간호가 가장 힘들었다.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데 거기에 보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식사 보조와 배변 간호까지 해야 하니 더 큰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다. 가족이 동시에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도 있었다. 모두가 완쾌되어 퇴원했으면 좋으련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생을 마감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장례 절차도 없이 쓸쓸히 화장터로 보내지는 상황들과 현실에 무력감과 허탈함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아픈 환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곤 했다. 다행인 것은 그렇게 힘들어도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동료들과 가족들, 교회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 속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처음 코로나 환자들을 간호했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집에 가지 않았다. 행여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로 인해 감염이 되는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숙소가 마땅치 않아 동료들과 병원 장례식장에서 쪽잠을 자게 되었다. 숙박시설을 가도 괜히 눈치가 보이거나 불편한 마음을 줄 것 같아 마음 편히 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낸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온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병원으로 모아지며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열악한 환경들이 개선되었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국민들이 보내준 응원으로 힘을 낼 수 있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고 안정화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헌신 덕분이라는,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난 고글과 마스크 자국을 보며 간호사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여러 매체에서 전했다. 하지만 의료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군청,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었고, 현장의 각 자리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덕에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솔직히 힘들다는 건 누구나 같을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자세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두가 힘을 내고 서로 배려하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올 한 해 나에게 많은 감사와 성장이 있었다. 제일 감사한 것은 내가 근무하는 동산병원이 코로나19를 감당하는 병

원이 되어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자원할 수 있었던 점이고, 두 번째는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심을 누릴 수 있어서 행복했고, 세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서로 힘이 되고 믿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된 것에 너무 기쁘다. 어쩌면 이 시기에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이 삶이 참으로 복된 이의 삶이 아닐까 싶다.

하나됨, 따뜻함 그리고 희망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경영지원팀 **이진형 행정**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의 모습]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행정직원으로서 나의 임무는 그리 막중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기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루가 평소보다 짧아졌다. 아침에 출근하면 병원 입구에 쌓여져 있는 기부 물품들을 정리하고, 점심 먹다가도 찾아온 택배 소식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일에 차츰 익숙해졌다. 여러 곳에서 보내준 기부물품을 정리하느라 업무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퇴근을 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다. 덕분에 평소 튼튼했던 허리에 파스를 바른 채 짐을 나르기도 하였다. 끊임없는 육체 활동으로 지쳐갈 때 쯤, 수많은 기부자의 사연들을 통해 위기 속에서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힘을 낼 수 있었다. 대구에 있는 우리 병원에 충청북도 청주, 강원도 양구, 인천, 전라도 광주, 부산,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기부물품을 보내주었다. 힘내라고, 응원한다고, 멀리서 마음으로나마 함께한다며 하나 된 마음으로 의료진을 격려하는 모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 맘카페에서 서로 격려하여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서 보내는가 하면, 어느 초등학교 반 선생님과 아이들은 1,004원의 기부금을 보내며 의료진을 응원하였다.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든 성금으로 보내준 비타민 음료와 유학생들이 보내준 쿠키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간식이 되었고 식당에서 두 달 가까이 보내준 꼬막 도시락은 응급실과 격리병동 간호사들의 점심이 되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 하나 되어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됨의 능력을 보았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를 돕는 기부자들이 전해준 따뜻함]

기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먼 이야기라

는 짧은 생각은 코로나-19를 위한 기부를 보며 바뀌게 되었다. 연이은 진료로 인해 집에 가지 못하고 병원 장례식장에서 쪽잠을 자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방송에 나간 후, 여러 개인들이 익명으로 보내준 샴푸, 비누, 칫솔세트, 속옷 그리고 수많은 생필품은 간호사들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씻겨주었다. 설날에 받은 세뱃돈 만원을 꺾꺾 눌러쓴 편지와 함께 보내준 아이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기부가 되었고, 집에 가지고 있던 새로 산 온도계를 보내며 환자를 돌보는데 사용해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은 작지만 큰 힘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였다. 격일제 경비 일을 하며 간식으로 챙겨둔 팝콘과 삶은 계란을 비닐봉지에 싸서 택배로 보내주신 70세의 경비아저씨, 아이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만든 143,060원을 저금통에 담아 보내준 울산의 한 지역아동센터, 기초생활수급으로 받은 26만원을 선뜻 건네어 준 할아버지, 이전에 구매해둔 마스크 20장을 포장해 보내준 아저씨, 이 모든 기부자들은 과연 자신들의 삶이 여유롭고 넉넉하기 때문에 보내준 것일까. 크지는 않지만 자신이 가진 것 중 큰 부분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기부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작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소중한 정성은 코로나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히 따뜻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파스함을 건넨 적이 있었나 돌이켜 보며 반성해 본다.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서 찾은 희망]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도움을 보내준다고 해도, 자신의 안전을 내어놓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의료진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두꺼운 옷을 입어도 손이 시려운 추운 날씨에 천막 안에서 방호복 한 겹으로 버티며 확진자들을 진료하던 모습, 또 추위가 무색할 만큼 땀에 흠뻑 젖은 의료진의 뒷모습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잘 보여주었다. 집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돼 격리병동에 들어가 진료한 날에는 당직실에서 밤을 지새던 사람, 꺾이는 고글과 마스크에 아파하며 거즈를 덧댄 자국이 얼굴에 선명한 사람, 겹겹이 입은 방호복을 벗을 시간이 아까워 기저귀를 차고 병동에서 근무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영웅이었다. 환자를 자신의 몸과 같이 생각하며 전심을 다해 진료하는 많은 의료진들의 모습은 귀감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이다. 언젠가 또 다른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찾아올 그 때에도, 끝까지 싸우는 의료진이 있는 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었다.

미세먼지가 한창 유행하던 때에도 끼지 않던 마스크를 수개월 째 착용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는 장면을 보면 어색함을 느끼는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 곁에 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도우며 따뜻함을 전하고, 희생을 통한 희망을 가르쳐준 코로나-19는 어쩌면 완전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춥다. 코로나-19의 안개가 걷히고 동이 트기를 기다린다.

대구는 우리가 지킨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계중환자실 **이현자 책임간호사**

우한 폐렴이 2019년 12월부터 바이러스가 퍼져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무슨 바이러스일까? 각종 루머가 떠돈다.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12월, 1월을 보내고 있었다. 드디어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2020년 1월 17일 국내 첫 확진자로 중국인 여자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래도 아직은 몸에 와 닿지는 않았다.

2월 20일 대구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갑자기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대구동산병원 전체를 비우고 코로나19 환자들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다음날 2월 21일 데이(day) 근무를 하면서 일반중환자실의 환자들을 퇴원시켜야 했다. 퇴원할 컨디션이 아닌데도 코로나 환자를 받아야 하니 양해를 바란다며 환자를 설득하여 퇴원을 함과 동시에 대구시에서는 내과 중환자실 격리병상에 코로나 환자 2명을 당일 입원시킨다고 한다. 격리병상 준비를 위해 환자감시장치(모니터)를 옮기는 등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낮 12시부터 코로나 환자가 중환자실 음압병실에 입원을 하였다. 초긴장 되는 순간이었다. 방호복 착·탈의법 교육을 받고 이날은 낮번 플러스 초번근무를 하면서 환자를 간호했다. 병동도 응급상황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환자들을 전원 시키거나 퇴원을 시켜야 했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환자를 받기 위해 전날 밤을 새워 가며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등 12명의 간호사들이 남아서 52병동 정리를 하였다. 아무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매뉴얼도 없고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한 것 같다. 다음날인 22일 오

후 2시부터 환자가 입원하기로 해서 그전에 못다 치운 장비들을 싹 다 치운다고 또한 분주하였다. 바빠 하다 보니 손도 다치고 하였다.

이 정도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벌써 오후 1시다. 개인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본관에서 철수를 해야 했다.

이 날은 날씨가 무척 추웠다. 바람도 많이 불고.....

코로나 환자가 오후 2시부터 앰블런스로 1명씩 계속 오고 계셨다.

나는 인공신장실 쪽에서 앰블런스로 이동된 코로나 환자가 오면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상황실에 연락하는 업무다. 그러면 상황실에서는 입원 수속을 밟는다. 긴장된 상태로 방호복, N95마스크, 고글을 쓰고 그것도 혼자 들어갔다.

그곳에 도착하니 다른 분이 계시긴 했다. 다음날은 6층 62병동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3명이 한조였다. 이번에는 혼자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첫날 코로나19 환자가 50여명이 입원하였다. 이튿날은 80여명이 입원을 했다.

장비들을 다 치우는 바람에 병동에 컴퓨터도 없고 체온계도 모자라고 다른 의료장비들도 부족하였다. 힘들게 치웠던 컴퓨터를 다시 설치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다시 채웠다. 환자들 가운데에는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 그날 바로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폐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경증환자라 초기간호정보도 필요 없고 처치 재료도 내릴 필요 없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모든 간호기록과 처치재료 및 행위fee를 매겨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우리들은 그 날그날 변하는 상황들을 잘 알아야 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그러했으리라 생각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화를 내기도 했다. 지금은 백서도 만들어져 있으니 잘 해나가리라 믿는다. 코로나 환자를 간호한 지 10일째 쯤,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다 보니 머리도 살짝 아프고 목이 건조하며 마른 기침이 났다.

불안한 마음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 정말 방호복을 입는 것이 힘들다. 2월 말이라 밖은 춥지만 방호복으로 인해 답답하고 땀도 많이 난다. 고글을 벗고 나면 얼굴에 자국이 생기고, 가렵고, 피부트러블이 발생한다.

격리병실 안에 들어가서 2시간 일하고, 2시간 휴식을 한다. 처음에는 방호복 착·탈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30분 전에 착의하고 들어간다. 그리고 2시간을 견디려면 병실 들어가기 전 미리 화장실을 가야한다. 점심을 늦게 먹을 때도 많았다. 그렇지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견딜 수 있었다. “대구는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일했다. 간호사들은 환우

들 식사를 병실에 직접 배식하고, 거두고, 침상만들기, 투약 등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못 드 시고 토하는 환자가 있으면 수액을 꽂는 경우도 있다. 방호복 입고 이중장갑을 끼고 바늘을 삽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이번 근무는 중환자실로 배정이 되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부서가 바뀌었다. 중환자실에도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다. 몇몇 간호사들은 불안하여 집에도 못 가고 장례식장을 숙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타지역에서 많이 오셔서 도와준 분들이 너무 고마웠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지만 방호복 속에서 우리는 웃으며 일을 했다. 그분들께 감사 드리고 무사히 잘 마치고 복귀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로 깨달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02병동 장호순 간호사

작년 9월 입사하여 병원 일을 배워가던 12월 일명 ‘우한폐렴’이라는 질환이 중국 전역에 퍼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로 인한 사망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뉴스를 보며 그저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다. 아침마다 나오는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들은 코로나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며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대구·경북에서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음압격리병실이 있던 우리 병동에서 코로나 확진환자들을 보게 되었다.

코로나의 감염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호복을 입어야 했고 방호복 입는 방법과 벗는 방법을 배웠다. 한 개라도 틀리면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열심히 교육을 듣고 배웠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났다. 3월 18일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가 최종 음성이 나와 격리해제한 환자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다. 당직의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코로나 검사 처방이 나고 그날 밤 그 환자는 양성 이 나오며 다시 음압격리실로 들어갔다. 우리 병동 수간호사선생님과 책임간호사 선생님들을 포함한 모든 간호사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고 모두 병실에 자가격리 되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어쩌나, 그럼 가족과 함께 지내던 선생님들은 어떡하나 걱정하며 검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몇시간 후 하나 둘 음성이라는 문자가 왔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음성’이 나오며 우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4월 중순경 저녁약을 주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있었는데 환자감시장치상에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것을 발견하였고 마침 방호복을 다 입은 선생님이 있어서 먼저 환자병실로 들어갔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있던 환자였는데 기관절개관이 옆으로 쓰러져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않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곧바로 CPR방송이 울렸고 당직의사, 인턴 모두가 뛰어와 방호복을 입고 음압격리실에 들어갔다. 처음 겪는 응급상황이었고 더구나 코로나환자에게 일어난 응급상황이어서 더욱 정신이 없었다. 피검사, ABGA 등이 추가가 나고 ventilator 처방이 났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지 몇분 안되어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돌아왔고 긴박했던 응급상황은 종료되었다. 처음 겪는 응급상황이었고 더구나 코로나 확진 받은 환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 너무도 정신이 없었고 또 어떡해야 할지 혹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 그 환자는 얼마 지나지않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를 해제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게 되었다.

현재 코로나는 아직 정확한 치료법도 밝혀지지 않았고 또 어떠한 경로로 이 감염병이 발생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아직은 불안하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을 느꼈다. 처음 코로나 환자를 맡게 되었을 때 나는 코로나 환자를 본다는 자체만으로 코로나가 나에게 전염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또 내가 감염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어 나의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나로 인해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처음 방호복 입는 방법을 공부할 때 더욱 집중하여 들었던 것 같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뉴스를 보며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켰는지,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는지 찾아보고 공부하였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보며 원칙을 준수하여 건강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마스크에 대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는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가리는 용도, 기침이나 콧물 등으로 남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 가리는 용도이고, 병원에서도 감기 증상이 있을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착용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를 예방하고 모두를 보호하는 존재로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자 고마운 존재가 되었다. 이미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변화하였다. 어딜 가나 열이 있는지 체크해야 하고 방명록이나 QR코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요즘은 직접 가는 것 보다 배달을 선호한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가끔 코로나를 겪기 전 날들이 그리다. 마스크를 벗고 어디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시작과 끝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외과계중환자실 **주효진 간호사**

4월. 봄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방호복을 입고 일을 해서인지, 마스크 때문인지 여하튼, 그날은 유난히 빨리 맞이했던 여름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브닝 근무였고 인수인계를 받은 직후 격리병실의 음압이 잘 되고 있는지 차압시스템을 확인하던 차에 병동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상태가 위중한 코로나 확진환자가 일반병동에 있으니 현재 중환자실의 격리병실에 입원중인 증상이 경미한 코로나환자를 병동으로 내보내고 곧바로 병동에 있는 중환자를 중환자실로 입원시켜야한다는 소식. 일반병동에 있던 코로나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졌다 함은 분명 호흡기증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지... 나는 마음이 급해졌고 신속하게 일반병동으로 내려 보낼 준비를 시작했다. 일반병동에 보낼 환자에 대한 인계를 주고, 보호자에게 병동으로 내려감에 대해 설명, 코로나 이송팀과 안내팀, 청소팀에 연락을 취하고 마지막으로 방호복을 입고 환자물품 소독, 정리, 환자의 활력징후 체크등을 마칠 즈음, 병실 밖에는 이송팀과 청소팀이 이미 대기 중이었다. 격리 방에 들어와 있던 내가 음압시스템이 작동 중인 이송차에 환자를 태우고 걸을 소독한 뒤, 이송팀이 이송차를 넘겨받아 병동으로 출발과 동시에 청소팀이 격리병실 소독. 그리고 병동에서 올 환자의 인계를 받기 위해 환자의 차트를 열어 환자 명을 본 순간 익숙한 느낌이 들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출수가 없었다. 분명히 내가 아는 환자였다. 그것도 요양병원에서 본원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로 곧바로 입원해 내가 받았던, 그 당시 처음 입원했을 때는 산소치료도 적은 양으로 하고 있었고 증상도 심하지 않아 치료 후 무사히 일반병동으로 out했었다. 그런데 일반병동으로 간 지 1주도 안되어 다시 입실이라니...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느낌과 동시에 두려움이 커졌지만 무서워하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다. 환자의 과거력, 최근 피수치 검사결과와 X-ray를 확인하고 모자란 물품 보충, 방호복 점검, 수액준비, 인공

호흡기 치료를 하게 될 시를 대비해 응급카트와 기도삽관 물품 준비를 끝마치고 병동에 환자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취한 뒤, 방호복을 입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송팀과 인턴이 환자와 함께 도착했고 다행히 의식은 있는 상태였지만 고용량의 산소를 쓰고 있음에도 ABGA는 호전되지 않았고, 거기다 더 심해져만 가는 호흡곤란에 결국 기도삽관을 시행할 의사, 보조할 의사와 간호사인 나, 총 3명이 PAPR을 착용하고 격리병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보통의 기도삽관이라면 최소 간호사가 3명(물품조달, 어시, 차팅)으로 뭉쳐서 해도 벅찬 게 사실인데 접촉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나 혼자 어시를 서게 되었다. 혹시라도 긴박한 순간 바쁜 나머지 내가 실수라도 하거나, 기도삽관 도중 분비물이 튀어 전염된다면? 코로나환자 기도삽관을 나 혼자 어시라니! 하지만 기도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보기 위해 환자의 입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야 하는 의사는 나보다 더 두렵겠지... 모두가 두렵지만 그 감정을 뒤로하고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사히 기도삽관을 마치고 곧 바로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시작했다. 환자 입실부터 시작해서 내가 방호복을 입은 지 1시간정도 지났을까 갑갑한 느낌은 느낌이 아닌 실제로 다가와 내 목과 얼굴을 누르는 것 같았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도 닦을 수 없어 얼굴을 좌우로 세차게 흔들기를 수십 번... 기도삽관 때부터 병실에 들어왔던 의사도 이마에 땀에 맺히고 얼굴이 불그스름해져 있었다. 어느덧 시술이 끝이 나고 의사가 병실 밖을 나서자 “하 -”하고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얼른 나가서 몸에 들러붙는 이 찻찻한 방호복을 벗고 산소통의 산소가 아닌 바깥공기로 호흡하고, 몸을 씻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다. 기도삽관도중 상치입진 않았을까 구강상태를 점검하고 중심정맥관 개방성 확인, 시술 도중 더러워진 옷 갈아입히고 바닥에 널브러진 시술물품들을 정리하고 나니 그래도 급한 고비는 다 넘겼다는 안도감이 그제야 밀려왔다. 찬찬히 환자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살펴보니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때는 콧줄이 불편하다며 성도 내고 일반병동으로 언제 가냐며 질문도 할 수 있었던 컨디션이었는데.. 지금 눈을 감고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때 그 환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이 이질감이 주는 슬픔을 뒤로 병실을 나갈려는 찰나, 내려져있는 블라인드가 눈에 띄었다. 나는 격리병실의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하게 되면 창문의 블라인드를 꼭 올려놓는 편이었다. 왜냐하면 코로나 병실은 의료진들이 인공호흡기계의 화면을 잘 볼 수 있도록 방안의 불을 꺼놓기 때문에 블라인드마저 내려와 있으면 어두컴컴한 병실 안에서 환자 혼자서만 외로이 싸우고 있는 느낌을 받곤 했었기 때문이다. 창문의 블라인드를 올리자 병실 안은 어느새 어두워진 바깥풍경과 나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인공호흡기가 작동하는 소리만으로 가

득 차있었다. 그렇게 그 하루의 내 업무시간이 끝이 나고 2달이 채 안됐을 무렵, 우리 병동은 코로나 확진환자가 남아있는 마지막 병동이 되었고 어느 날 내가 출근했을 땐 이미 사망하여 영안실로 보내는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병실소독까지 마치고 혹시나 남아있는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텅 비어버린 병실을 마주했을 때, 처음 그 환자분이 입원했을 때가 떠올랐다. 내가 말을 건네고 질문에 맞는 대답을 듣고, 나와 눈을 맞추고 콧줄 제거 후 직접 입으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 비어있는 병실까지. 블라인드를 내리면서 생각했다. 나는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게 될지...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능력은 없지만, 시작은 함께여도 끝은 이곳이 아니기를 위해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매일이 반성과 후회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있다.

슬픈 청라언덕의 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인공신장실 **홍윤수 수간호사**

[익숙한 곳의 낯선 풍경]

전화벨이 울린다.

출근준비로 마음이 분주한 월요일 아침. 대구동산병원으로 파견근무 가라는 팀장님의 전화를 받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병동으로 발령은 걱정부터 앞서게 했다. 대구동산 병원은 나에게는 고향 같은 곳으로 간호대학 시절은 실습을 하며 꿈을 키우고 대학 동아리 활동으로 병동 곳곳에 다니며 기타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들려주었고 입사 후에는 든든한 일터로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며 소확행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일터였다 또한 남문에서 본관까지 이어지는 가로수들은 지친 일상을 위로해 주기 충분한 멋진 산책로이기도 했다 항상 그곳을 생각하면 선교사 사택 주위와 구름다리를 거닐던 나의 젊은 시절이 같이 떠오른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이전 개원 할 때도 새병원으로 가서 기쁘기도 하지만 추억이 깃든 그곳을 떠나는게 아쉬웠기도 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위해 전담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오늘 나는 그곳으로 환자를 간호하러 간다. 새병원으로 이사 후 1년 만에 처음 들어가는 입구가 1년 전 환자들로 붐비던 그곳이 아니었다 주차장에서 교수연구동으로 이어지는 곳은 라일락, 벚꽃, 목련은 그대로 인데 너무도 한적하다. 코로나 상황실이 있는 별관에 도착하여 옷을 갈아입고 레벨D 입는 방법과 병동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같이 일하는 멤버랑 인사를 나눴다

휴게실과, 상황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낸 격려의 간식들이 넘쳐나 나를 놀라게 했다 당신을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적힌 간식들과 별관 로비 한쪽 벽면을 장식한 격려 편지는 감동으로

다가왔고 코로나19와 싸우는 건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가족, 이웃, 시민, 국민들과 함께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방호복을 입고 인터넷에서 본 이마나 콧등에 반창고 붙인 간호사들처럼 나도 반창고를 붙이고 마스크 고글을 차례대로 썼다 착의실을 빠져나와 본관 입구로 가다보면 서문시장 육교가 보인다. 병원 담장 너머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고가는 모습들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는 간호사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병동에 도착하여 앞 근무조에게 환자상태에 대해 보고받고 코로나 병동에서 2주간의 간호업무가 시작되었다

[힘겨운 싸움]

한 할머니가 혼자 외롭게 힘든 상황을 버티고 계셨다. 수액을 맞고 산소를 공급받고 소변줄을 달고 계신 모습은 누가 봐도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할 것이다. 호흡은 힘겹지만 혈압과 맥박은 안정적이다 할머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감염병을 두려워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없다는 것. 손 한번 잡아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생각하는 순간. 복도에서 큰소리가 들린다 또 다른 병실에 할머니 한 분이 집에 가야된다고 가방을 싸서 나오셨다. 잘 달래서 방에 모셔다 드렸는데 얼마 안 있어 또 나오신다. 아들이 보고 싶은 모양이다. 계속 아들이 있는 집에 보내 달라고 한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할머니를 바꿔 드렸다 스피커폰으로 전해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엄마를 향한 사랑이 애잔하다 아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생활관에 있다한다. 다 나오면 빨리 엄마 데리러 꼭 갈테니깐 그때까지 참고 있으라고 하니 그제서야 병실로 들어갔다. 코로나가 가족을 해체 시키는 것도 같지만 더 끈끈하게 연결시키는 것도 같다. 교대 시간이 되어 탈의실로 내려와 옷을 갈아입고 휴게실에 잠시 휴식을 취하니 살 것 같다. 방호복 입고는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 보통은 물도 안 마신다. 휴식시간에 커피랑 빵을 먹으니 너무 맛있고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상황실 로비는 취재 나온 기자들로 붐빈다 인터뷰 하는 간호사들도 많은데 혹시나 간호사들이 주인공으로 비춰지면 어떡하나 노파심이 생긴다

[세상 속으로]

며칠 후 한 할머니가 퇴원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일찍부터 사복으로 갈아입고 퇴원준비를 하신다. 몇 주째 갇혀있었으니 오죽 하랴. 퇴원하는 길은 동선이 너무 복잡해 간호사가

동행해야 한다 할머니 가방을 받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동안 고생하셨다 잘 가시라 하고 가족들이 마중 나오시나 물었더니 울먹이며 하소연을 한다. 남편과 같이 사시다가 두 분이 같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남편은 상태가 심각해 중환자실로 본인은 일반병실로 입원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돌아 가시는 그 순간에도 장례도 함께 하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이 그저 답답할 뿐이다 하셨다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감염병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아침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의사선생님이 방호복을 입고 와서 실시한다. 콧구멍에 긴 검사봉을 넣는 것이 괴로운지 환자분들이 힘들어 한다. 다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병실정리와 복도 청소하러 방호복을 입고 청소여사님들이 오셨다. N95 마스크를 끼고 대걸레로 복도를 닦으니 흐르는 땀은 물론이고 숨이 차서 말도 잘 못하셨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느낀다. 근무 마치고 동료들이랑 청라언덕 쪽으로 걸어 갔다. 벚꽃이 환하다. 목련은 등불처럼 피어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절의 흐름을 막지는 못하는가 보다.

[모두가 한마음]

2주간의 파견근무가 끝나간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줄어들지 않고 환자들의 불편감도 얼어붙은 경제사정도 말이 아니다. 격리된 채 외로운 싸움을 하는 환자들에게는 치료하고 간호하는 의료진,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의 선한 이웃들의 희생과 배려가 있기에 이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도 입원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으니 마스크 쓰지 않고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50일을 맞으며

국회의원 **최연숙**(前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저는 코로나19 대구 감염병 전담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간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연숙입니다. 코로나19 최전선인 이곳에는 지금 230여 명의 환자분들이 입원해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는 입원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 지원에 빈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회의와 보고로 매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겨우 한숨을 돌리고, 병원 별관 1층의 비상대책본부 사무실에서 차 한 잔을 하고 있는 모처럼의 여유가 오히려 낯선 느낌마저 줍니다.

지난 2월 21일 처음 확진 환자 두 분의 입원을 시작으로 하루 40~80명씩 환자들이 입원할 때는 전쟁터가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입원환자가 가장 많을 때는 총 395명이 재원 중인 적도 있었습니다.

2월 29일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 3명이 퇴원할 때, 의료진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안겨드리면서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완치되신 분들이 늘고 신규 확진자는 감소해 지금은 입원 환자가 230여 명으로 줄어든 덕에 병동 분위기가 조금은 여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중증 환자분들이 계시고, 의료진의 감염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에 긴장의 끈은 단 한 순간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2월 21일부터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으니, 4월 10일인 오늘 50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의료진들을 미소 짓게 하는 흐뭇한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린 두 아들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한 엄마와 아이들을 한 병실에 머물

게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함께 입원한 어느 노부부는 한 병실을 배정받지 못했는데, 수시로 할머니가 할아버지 병실로 가서 남편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초기에 환자는 밀려드는데, 질병관리본부, 대구광역시와 병원간의 협조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아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료진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고, 불필요한 수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업무에도 익숙해져 200여 명에 이르는 간호사들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들이 방호복으로 무장하고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힘이 듭니다. 레벨D 방호복이나 우주복처럼 생긴 PAPR(전동식 공기정화 호흡기)을 입고 벗는 일도 만만치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땀이 차고 숨이 가쁩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완치되어 퇴원하시는 환자들을 볼 때,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의 물품 및 메시지 등을 보면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체온계와 속옷, 건전지, 마스크 등의 물품을 감사하게 잘 받았고, 격려 메모와 편지, 문자, SNS 메시지 등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나서준 후배 간호사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여러 지원인력 분들에게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38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저도 변종 바이러스와 맞서는 게 두렵고 떨리는데, 후배 간호사들이 얼마나 무섭고 긴장됐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 잘 수행하였고, 그 덕분에 환자들의 완치율이 올라가 더 많은 환자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많은 칭찬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감염병 유행 때마다 의료진의 사명감과 희생에 의존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릅니다.

메스컴에서는 ‘영웅’, ‘천사’, ‘의병’과 같은 말들로 의료진에 대한 찬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물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의료진을 격려해주시는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되려면 아직도 보완해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 최

전선에서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받고 조금 있다가 퇴근하려고 합니다. 피곤하고 지쳤지만 힘을 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바이러스와 싸우는 환자들 곁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손도 잡아보지 못한 채 외롭게 투병하는 환자들에게 간호사는 가족이자 친구의 역할까지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원 중인 환자들이 단 한 분도 악화되지 않고 완쾌되어 집으로 돌아갈 날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일교차가 심합니다. 손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면 반드시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밤

대구동산병원 비상대책본부에서

전쟁같았던 2020년 대구, 코로나19 현장을 지킨 영웅들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박재진**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 환자들이 대량 발생하고, 계명대 동산병원이 국내 1호로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선정되고 그 다음날 저희 공보의들은 대구로 차출되어 의료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강당에 모여 레벨D 방호복 착용 및 앞으로 동산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는 업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간단히 진행되었고, 첫날 대구의 이미지는 유명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동성로 조차도 사람들이 자취를 감춰 드라마에서 보던 역병이 창궐한 도시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파견오신 공보의 선생님들과 대구 개인병원 또는 복지공단에서 파견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3교대로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업무는 주로 입원환자들을 전화로 예진을 보거나, 방호복을 입고 병동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들을 회진 및 검체채취, 그리고 야간에 환자상태를 보기 위해 당직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첫 일주일간은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진들 모두 정신이 없었으나, 매우 빠르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적절한 인원 배분과 환자 관리 및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거점 1호병원인 만큼 수많은 취재인원들이 늘 상 주하며 매일 언론에 보도가 되며, 안철수 의원님도 이곳으로 의료자원 봉사를 와서 같이 코로나 환자를 보는데 힘을 보태었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 외에도 대구에 있는 개인병원에서 오전엔 근무를 하고, 오후엔 자원봉사를 오신 선생님들, 대구가 아닌 부산 천안 등 다른지역에서도 의료봉사를 오신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더 수월히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엔 처음 4주동안 파견을 온 것이었지만, 4주가 지났을 때에도 코로나 환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되려 더 늘어나는 추세였기에, 대구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연장근무를하기로 결정하고 한겨울에 파견을 와서, 반팔을 입을 날씨가 되었을 때 파견을 끝내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파견의료진들의 경우 동산병원 의료진 분들의 배려로 4, 5일 근무를 하면 오프를 받아 쉴 수 있었지만, 나중에 듣기로 동산병원 의료진 분들은 코로나 환자가 안정세에 이르기 전까진 전원 몇 달간 매일 출근하며 오프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보았던 환자들은 대부분 신천지 환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특히 기억이 남는 케이스는 20대 신혼부부로 2세 아이와 함께 가족 3명 모두 코로나 확진을 받아 입원한 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이 나오면 퇴원해야하는게 가이드라인이었기에, 남편은 2회 음성이 나와 퇴원을 하였는데 부인은 1회 음성이 나오고 아이는 양성이 나온 상태라, 한번 더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부인도 퇴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니, 부인분 본인은 검사를 추가로 받지 않고, 아이가 음성이 나와 퇴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갑자기 코로나 병상에 격리되어, 자신들을 제외하곤 다 방호복을 입고다니는 모습에 빨리 퇴원을 하고 싶어했으나, 어머니이기에 아이가 나올 때까지 병동에 더 있겠다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 처음 사망선언을 하러 들어갔을 때, 코로나 환자이기에 가족들의 품에서 가 아닌 병동에서 임종을 맞으셔야 했는데, 관에 운구한 후, 유가족 중에서도 대표로 아들은 한 분만 고인이 되신 분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시는 길에 손 한번 잡아 보지 못하고 마지막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키는 모습이, 그분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슬픔을 겪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근무를 하는 수많은 의료진들 역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러한 희생들 덕분에 유명도시였던 대구가 서서히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산병원 입구에 커다란 벚꽃나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앙상했지만, 어느새 꽃이 피었고, 그 꽃이 지고, 푸른 잎이 다시 돌아 날 때 즈음, 대구는 코로나 환자들을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태가 호전되었고 전 그때 파견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와서 동산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코로나 최전방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뜻 깊었고, 그 의료진 일원 중 한명으로써 힘을 보탬 수 있었던건 좋은 기억이자 보람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군인의 눈으로 바라본 간호사들의 사명감

국군간호사관학교 소령 이쁘니

지난 3월, 신입 간호장교들이 임관식을 앞당기고 코로나19 의료지원을 위해 대구로 향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만감이 교차했다. 나 또한 사관학교 생도 생활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치열한 4년간의 학사일정을 마치고 잠시 미래에 대한 기대와 그간의 노력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을 다지는 임관 전의 짧은 여유를 60기 후배들은 느낄 겨를도 없겠구나 싶어 애잔하면서도, 국가의 부름에 응하는 그들에게 대견한 마음이 들었다. 그네들의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할 만큼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긴박했고, 대구지역 의료진의 사투는 정점에 달했으며 이를 돕고자 전국에서 의료진들이 모여들었다. 국군 의무사령부도 검역소 등 각지에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파견하였으며, 나는 코로나19 거점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 한 달간 파견을 갔다.

#1. 새로운 도전 앞에 한 뜻으로 모인 사람들

당시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19 최전선이라고 불릴 만큼 생사의 기로에 놓인 중환자 20여 명을 포함하여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의 근무는 처음이다 보니 새로운 환경과 낯선 근무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적응해야 했고, 이런 파견자에게 첫날 이루어진 감염관리 지침 등의 OT는 매우 유익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파견자들을 일일이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거점병원으로서의 체계를 갖춰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한 그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이었고 외부인력도 꾸준하게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근무계획은 2일 정도씩 공지되었다. 또한 근무자 중 조금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예방적 격리를 했기 때문에 근무자 조정 변수도 많았다. 따라서 수백명이 SNS를 통해 그때 그때 스케줄을 확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간호장교들은 파견기간이 길다보니 자체적으로 근무표를 관리하도록 협조 되었지만, 대부분이 당장 며칠 후의 계획도 세울 수 없고 계속된 밤낮 교대근무로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휴일에도 대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생활했다. 더욱이 기존 대구동산병원의 간호사들은 근무자가 부족할 때에는 휴일도 없이 연속 근무를 하는 등 마치 군인이 전시에 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모두들 코로나19 환자 간호라는 대의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임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었고, 신종 감염병 위기라는 전쟁 속에 간호사들은 군인과 같은 사명감을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2. 코로나19 간호사라는 책임감과 고립감, 그리고 소명 의식

희생과 봉사가 내면화된 간호사들이지만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면서 느끼는 남다른 고충이 있었다. 처음에 파견을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렵지 않냐고 물었다. 사실 코로나19 최전선에 간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내 몸을 사린다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만에 하나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몸이 아픈 것은 괜찮지만, 나로 인해 의료진 감염이 생기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 이것이 파견 동안 느낀 가장 막중한 책임감이었다.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며 거의 강박에 가깝게 감염지침을 지키는 데에는 이런 마음의 짐까지 포함되어 있는게 아닐까 싶었다.

이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해 숙소에서는 거의 격리자에 준하는 생활을 했다. 우리는 병원 출퇴근 시 측정 외에 숙소에서도 일 2회 체온을 측정하고 자가 증상관리 앱에 상태를 기록하며 건강관리를 했다.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는 서로 대화하는 것조차 자제하며 철저히 개인 생활을 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고충을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고립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이러한 책임감과 고립감을 느끼면서도 환자 앞에서는 오히려 오랜 입원과 격리로 스트레스가 높아진 환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나을 수 있다고 희망을 주고 있었다. 환자의 아픔을 돌볼 때에는 자신의 힘듦은 잊어버리는 우리는 바로 간호사였기 때문이다. 파견 동안 나는 대구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대구동산병원 간호

사들과 본업을 중단하고 각지에서 달려온 자원자들 속에서 간호사로서의 소명의식이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매일 상황이 호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환자들의 회복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간호사로서의 초심을 다시금 다지게 되었다.

#3. 파견의 경험을 마무리하며

파견 동안 만난 많은 환자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할아버님이 있다. 치매가 있었던 그 분이 어느 날은 아들이 꼭 데리러 오기로 했다면 밤늦도록 스테이션 앞에 서 계셨다. 간호사들이 돌아가며 달래보아도 완강히 버티셨고 결국 새벽 3시가 돼서야 잠에 취한 환자분을 침상에 눕혀드릴 수 있었다. 그런 후에도 아들이 꼭 오기로 했다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 분의 마음이 어찌면 인생의 황혼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같아 먹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절절하게 와닿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지만, 절망 가운데에도 분명히 희망은 있다. 사명감 하나로 임하는 의료진들에게서, 허드렛일이라도 좋으니 돕겠다고 모여드는 자원봉사자들에게서, 그리고 병원 로비를 가득 채운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와 위로의 손길들에서 나는 그 희망을 보았다. 간호장교로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한 것은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었다. 대구동산병원의 소식을 늘 전우와 같은 마음으로 접하던 중에, 이렇게 글로써 소회를 나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1899년 제중원을 세운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날의 역경 속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헌신에 나선 대구동산병원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대구동산병원에서의 추억

대구시의사회장 이성구

2020년 2월 25일 찬비가 내리는 겨울 아침, 나는 병원에 휴가를 내고 코로나19 지역 거점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 자원봉사를 들어갔다.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한국에 상륙하여 2020년 1월 31일 국내 첫 환자를 발생시켰고 대구는 2월 18일 첫 환자가 생긴후 급격히 환자가 증가하여 하루 수백명 씩의 환자가 발생하던 시기였다.

며칠 앞선 2월 21일 대구지역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대구동산병원은 약30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코로나19 전쟁의 최전방 사령부격인 비상대책본부로 들어가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조치흠 대책본부장, 서영성 병원장, 남성일 기획실장, 최연숙 간호부원장 등 지휘부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 진료부장이던 김진환 교수의 지시에 따라 병실 환자의 명단을 받아서 병실로 전화를 하여 안부와 증상을 묻고 컴퓨터에 처방을 입력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엔 간호사들과 함께 레벨D 방호복 입는 법도 배우고 방호복을 입고 병실도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대구동산병원에서의 일이 시작 되었다.

나는 대구시 의사회장으로서 지역거점병원인 대구동산병원의 실태와 업무를 파악하고 의사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한사람의 자원봉사 의사로서의 역할도 해야 했다. 대구동산병원에서의 첫 느낌은 이런 훌륭한 시설이 주어진 건 정말 하느님의 축복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했고 처음 하는 일이어서 모두가 힘들었다. 체온계, 방호복부터 슬리퍼, 파스, 상처에 붙이는 반창고까지 부족했다. 나는 이 어려운 현실을 외부

에 빨리 알리고 의료진을 비롯한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물품들을 빨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내가 그날 아침 5700 대구의사들의 꺾기를 촉구하며 발표한 호소문이 SNS를 통해 퍼져 나가면서 의사들의 자원봉사 신청이 들어오고 의사회를 통해서 성금과 구호물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 동산병원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편지, 물품, 의료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나는 검체 채취, 회진 등 의사로서의 역할 외에도 각종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대구와 거점병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자원봉사를 나온 의료진들의 안내와 격려, 거점 병원을 찾은 내빈들의 안내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약 일주일간 대구동산병원에서 일하며 거점병원의 업무와 실태를 나름 파악한 뒤에는 곧이어 문을 연 신서동 제1생활치료센터로 근무지를 옮겼고 곧이어 경북대학교 침성관에 2생활치료센터가 생기며 그쪽에서도 일을 계속 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보았다. 처음에 부족하던 의료진도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많은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와서 나중에는 순서대로 조를 짜서 봉사해야 했다.

60이 훨씬 넘는 선배님들도 오셨고 몸이 약한 여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서울 광주 거제 등에서도 오셔서 모두들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 현관벽을 가득 메운 격려편지, 음식을 비롯한 각종 물품이 가득 쌓이는 것을 보며 국민들의 응원과 사랑을 느꼈다.

정말 위기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서 정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볼 때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모두의 그 힘든 시간도 지나고 53일만에 환자0명을 기록하는 기쁨도 맛보았다. 그 이후도 업무상 몇 번이나 비상대책본부에 갔다. 모교에 간 것처럼, 고향을 찾은 것처럼 늘 따뜻했다. 나는 대구시의사회장으로 코로나19에 모두가 고생 했지만 대구동산병원과 대구의료원이 가장 고생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훌륭한 시설을 시민들을 위해 선뜻 내어준 계명대학교에 시민들이 정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구동산병원에 대구의 코로나 19를 기억하는 기억의 공간이 들어선다고 한다.

앞으로 긴 세월동안 대구동산병원은 대구 시민들을 코로나 19로부터 구한 성지로 기억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가장 자신있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며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대구동산병원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한다.

깜깜하고 끝을 알 수 없었던 동굴에서 불빛을 발견하다

국군수도병원 대위 **이윤각**

2020년은 COVID 19로 인해 전세계가 아픈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일상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한낱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분부장의 말이 단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잔소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처음 뉴스를 통해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 발병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을 때, 그냥 지나가는 감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감염자는 급증했고, 세계 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우리나라의 감염률은 높지 않았고, 평소 건강하고 젊다고 자부했기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월 중순 이후로 우리나라 감염자도 급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안심하고 밖을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 속도는 빨랐습니다. 특히 대구는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코로나의 여파는 컸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감염 전담병원이 생기게 되고, 군 내 의료인력도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희망자로 지원하여 파견이 결정되었을 때, 실제 감염 환자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부족했으며,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PAPR을 잘 착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탈착한다면, 밖을 돌아다니다가 알 수 없는 경로로 감염되는 것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파견 첫날, 낯선 환경에 생판 모르던 사람들과 PPE를 입기 위해 탈의실을 가는 길은 좁고, 적막했습니다. 3월 중순이었지만, 대구의 밤바람은 반팔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우리들의 피부를 날카로운 못처럼 긁고 지나갔습니다. 걷는 듯 뛰는 발걸음으로 탈의실에 도착하며

PPE를 착용하고 있던 중, 어설픈 몸짓으로 착용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한 파견자 분께서 말없이 앞섬을 여겨주시고, 손목과 발목에 생긴 틈에 테이프를 감아주셨습니다. 아무 말없이 도와주셨지만, 그 손길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 이곳에서 함께 고생하는 동료들을 위한 따스한 격려였습니다. 이후 PAPR 착용이 완료된 후 묵묵히 중환자실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에게서 존경심이 생겼고, 동산병원 파견에 지원한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부풀었습니다.

매일 매일 파견자들은 바뀌었지만,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서로 알려주고 도와주며 환자 간호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라는 무서운 바이러스 앞에서 모두가 웃음을 잃지 않고, 절제된 열정으로 함께해서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무거운 PAPR을 착용하고 Ventilator, ECMO, CRRT 등 각종 장비와 삽관물을 지닌 환자의 욕창 예방을 위해 체위변경을 할 때면 서로 나서서 도와주고, 환자 상태가 나빠져 처치가 많아지면 기꺼이 손을 빌려주며, 환자 한 명이라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올려보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서로 다른 병원에서 모인 다양한 노하우들이 뼈격대던 톱니를 돌리는 윤활유 역할을 했고, 파견자로 지원했지만 오히려 다양한 경험과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달 간 중환자실 파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중환자실 투입을 하러 가는 길에는 서문시장이 보였습니다. 첫 파견 날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세는 게 쉬울 정도로 사람이 없었지만, 파견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백조의 발짓처럼, 밖에서 보이지 않은 이곳에서의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대구동산병원 파견의 소감을 물어본다면, 캄캄하고 깊어 끝을 알 수 없었던 동굴에서 따뜻한 불빛을 발견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생의 가장 인상 깊은 봉사

자원봉사자 **조재성**

나는 2020년 3월 28일부터 2020년 5월 2일까지 총 119시간 동안 봉사를 하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코로나19를 경험했었다. 처음 봉사를 결심한 이유는 뉴스에 비친 의료인분들의 희생하는 모습과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동경심과 존경심이었던 것 같다. 병원에 도착해 입구에서 안전 요원들이 마스크와 앞치마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안전 요원들의 검사를 마친 뒤 병원 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전의 병원의 분위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몹시 진지한 분위기 속에 열심히 일하시는 의료인분들, 옆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적십자 분들이 눈에 보였다. 병원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물류창고를 관리하시는 팀장님을 돕는 일이었다. 물류창고에는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신 생필품, 음료수, 과자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있었다. 하루에도 몇 트럭씩 오는 물품들을 옮기며 많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 열심히 봉사에 임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품들을 나누어 힘이 되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특히 어떤 할머니께서 수레에 직접 생필품들을 끌고 오셔서 물품들을 전달해 주시는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 봉사를 하며 수많은 의료인분들이 땀에 젖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하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실제로 마주하니 한편으로 짝한 마음이 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손글씨 편지들을 보며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기도 했다. 타인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어느 누가 바이러스의 최전방에서 확진자들을 돌보며 코로나19 감염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을 대뜸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고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지금 다시 국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며 전국 곳곳에서 신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한 번씩 뉴스나 SNS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해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은 안 걸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지키는 모습이 많이 보이곤 했다. 각자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하는 시국에 이런 안일한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팠다. 나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조심하며,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앞으로도 틈틈이 봉사를 하며 나보다 힘든 분들에게 힘을 주며 베푸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HOT 했던 대구, 그 속에 나 함께여서 가능했습니다

군의원 천수민

나는 2020년 3월 11일에서 3월 31일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코로나 19 대응 의료지원을 자원하여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코로나 19 중환자실을 담당하신 박재석 교수님을 필두로 중환자의학회 교수님들과 짝을 이루어 중환자실 진료를 하였다.

나는 고향이 대구이고, 어릴 때부터 쭉 대구에 살아서 코로나 19 사태가 대구에서 HOT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래서 이번 업무에 아무런 댓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봉사의 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봉사하신 교수님들 및 중환자실 간호사님들은 본인들의 연고지도 아니고, 어떤 보상이나 댓가를 바라지 않고 HOT했던 대구를 위해 봉사 온 것을 알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다. 왜냐하면 코로나 19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누군가는 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외면해버리지 않고, 누군가는 가족들에게까지 비밀로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직업적 성과를 멈춘 상태로 대구의 환자들을 위해 봉사의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 팀이 맡은 중환자실은 처음부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엔 체계가 잘 갖추어진 병실은 아니었다.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중환자실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하여 교수님들과 동산병원 측에서 인공호흡기와 초음파기계, 지속적신대체요법기계 등을 빌려오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처음 대구동산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본 광경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여러 곳에서 보내주신 지원품들이 미처 정리되지 못하여 건물 한 칸에 수북히 쌓여있고, 보호복 장비 PA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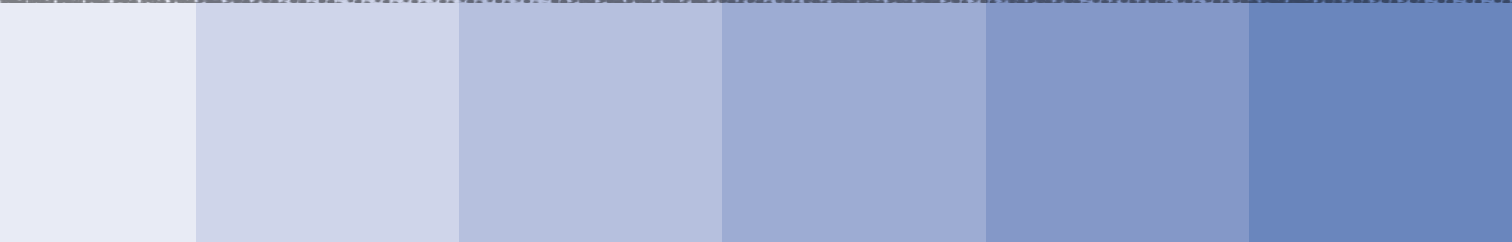
에 소비되는 일회용 후드가 부족하여 알코올로 소독하여 재활용 하고 있었다. 재난의 상황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여러 사람들과 기업, 가게 등 각자의 상황 속에서 보내주신 기부의 손길이었다. 어떤 분은 잠을 깨울 커피를 보내오셨고, 어떤 분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속이 든든해지는 야식의 최고봉인 치킨을, 어떤 아이는 뽀뽀뽀뽀 정성 가득한 손편지를 보내왔다. 보내주신 분들 모두가 우리의 힘들을 알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돈을 많이 못 버는 일은 가치가 없고, 다 함께 잘 살자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는 소중한 정성들과 응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님을... 그리고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 가운데,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느낀 감동과 감정들을 잘 기억하여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겠다.

나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여러 죽음들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죽음은 내가 보았던 여타의 죽음과는 다름을 느꼈다. 보통의 응급실에서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생명이 경각에 달한 순간에 서로에게 마지막 말을 하며, 함께 슬퍼하며 또 가족끼리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는 죽음의 순간 가족들이 함께 할 수가 없었다. 수십 년을 가족과 함께 살아왔지만, 그 삶이 다하는 순간에는 혼자라는 사실이 내 마음을 씹쓸하게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면 함께 슬퍼하고 힘이 되어줄 가족들이 옆에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계시던 할머니 한분이 생각이 난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진정제를 사용하게 되어 보통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신다. 그 할머니는 대사산증이 진행되고 있었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진정제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왔었다. 여러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대사산증과 혈압이 회복되는 중에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왔다. 할머니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니, 갑자기 눈떠서 살펴보니 자신의 몸은 움직일 수가 없고 인공호흡기가 달려있어 말도 할 수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분주하게 왔다갔다하여 많이 불안하신 상황이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할머니께 현재 상태를 간략히 설명드렸다. 그러던 와중에 나에게 약간의 고민이 들었다. 환자인 할머니의 옆에 가족들도 없고, 점점 임종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제 곧 회복되실 것이고 좋아지실 것입니다’라는 할머니에게 안심이 되는 말을 전해드렸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인생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실 수 있게 솔직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할지 말이다.

코로나 19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로 효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하지 못한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생명을, 시간을, 일상을 다시 되찾고 싶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와 생각을 같이하는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환자실에는 오직 환자와 의료진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각지에서 보내주신 마음들을 모아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과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것이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고생하고 있을 많은 의료진들과 환자 및 가족들을 기억하며 이 글을 마무리 하려한다.

중환자실에서 보냈던 나의 20년 3월은 내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집에 가지 못해 50일 된 신생아를 혼자 키운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빠의 자리가 그리웠을 나의 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 언론보도 사례

3

경향신문

2020년 03월 02일 월요일

“힘들어도 꼭 참다 응원에 울컥”



대구로 모인 전국의 119—오늘도 출동 준비 1일 전국 각지에서 지원 나온 119 소방대원들이 대구 달서구 두류청수장에서 환자 이송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권남호

‘코로나와 사투’ 대구 간호사들
휴일 없이 평소 3배 고강도 노동
“식사는커녕 물도 제대로 못 마셔”
소화불량·두통·불안 호소 늘어

“식사는커녕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요.”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일하고 있는 간호사 조화숙씨(55)는 감염우려 속에 환자를 살리는 병원 간호사들의 애환을 “술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간호파트 책임자인 그는 간호사들의 체력적인 한계와 감염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전선’의 최전방을 지키는 의료진이라는 사망감이 베풀뒀다. 대구동산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일하고 있다. 전국 각지

국내 코로나19 현황 (단위:명, 자료: 질병관리본부)

확진자(전일 대비)	퇴원	사망
3736(+586)	30	22

※ 1일 오후 6시 기준 (사망자는 1일 자정 기준)

에서 파견된 간호사 등 90명가량이 근무한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간호 인력이 3교대 근무를 하는 만큼 130명 이상은 돼야 근무 여건에 충분이 트일 것으로 본다. 인력 충원이 되지 않으면서 현재 간호사 1인당 20~3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평상시(간호사 1명당 환자 10명)보다 2~3배 많은 환자 수를 담당하는 셈이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 관리한 후부터 간호사들은 휴일도 없이 출근하는 실정이다. 조 간호사는 “간호 인력들은 환자의 열압과 체온 등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식사를 나눠주는 일은 평소와

같지만 감염병 환자를 상대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힘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의료진 등 병원을 출입하는 모든 직원에 레벨 ‘D’ 수준의 방호복을 입어야 한다. 몸의 외부 노출을 차단하는 방호복, 고글과 N95 마스크(미세입자 95% 이상 차단 수선), 장갑 등 복장을 갖추는 데에만 20분가량이 걸려서 모든 간호사들은 근무 30분 전에 출근한다. 조 간호사는 “방호복을 입으면 공기가 차단돼 숨쉬기도 힘들고 2시간 정도 일하면 온몸이 땀으로 샤워한 것만 같다”면서 “복장을 갖추는 것 자체가 힘들어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고 물도 잘 안 마신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2층 진료실 일부와 장례식장을 비워 의료진이 머물게 하고 있다. 식사는 매번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대구의 종합병원 대부분이 대구동산병원과 비슷

한 상황이다.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는 “밥을 먹으려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배설감 때문에 의료진 식사를 도사락처럼 달아서 가져다준다”며 “하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밥을 먹어도 별로 당기지 않는다. 집에 가서야 몇 숟가락”고 했다. 업무량도 많아 지지만 매일 급격하게 변화는 상황에 따라 업무 내용이 추가되거나 자주 바뀐다. A씨는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 출근할 때마다 지침이 바뀌고 수정된다”며 “코로나 의심 환자 격리병동으로 결정된 당일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동으로 다급하게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 2면에 계속
백경열·김한지 기자 mercl@kyungil.com

형설수설

대구동산병원의 분투



대구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두 병원은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이다. 대구의료원은 공공병원이지만 대구동산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 한 톨 지원 받지 않는 민간병원이다. 대구동산병원은 대구 사정이 급박해지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고 자청했다. 기존 일일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퇴원시켜 병원을 비워야 하는 데다 소속 의료진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내모는 어려운 결정이 었다.

▶동산병원은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에 계명대 동산병원을 새로 지어 이전하고 대구 중구의 기존 동산병원은 대구동산병원이라고 해서 2007년 병상만 유지하고 있다. 과거 동산병원은 1000개 병상까지 운영한 적이 있다. 전국 각지에서 힘을 보태려는 의료진이 모여 들었다. 대형병원들이 빠듯한 진료 일정을 쪼개 일부 의료진을 빼내 보냈다. 개인 병원 문까지 걸어 잠그고 대구로 향하는 개업의도 적지 않았다. 지난 주말에는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부도 입원해 힘을 보탤 뻔했다.

▶최근 네이버의 한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몇 년 전 찾아가 하눌라로 가기 전 동산병원 어린이중환자실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서울 유명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을 수없이 겪고 동산병원으로 왔습니다. 동산병원에

선 가만히 누워만 있는 우리 아이를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얼마나 예뻐해주고 기도해주던지... 아이가 나왔다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사랑을 받았기에 제게 동산병원은 은인과 같아요.”

▶의사가 단지 돈 잘 버는 직업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곳이 동산병원이다. 동산병원의 역사는 구한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선교사들이 대구에 와서 대구제일교회를 세우고 의료기관으로 대구 제중원(濟衆院)을, 교육기관으로 계명학원을 설립했다. 대구 제중원이 오늘날 동산병원이다.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에 단지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병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병원인 듯하다.

▶충북 진천 시민'이라고만 적은 익명의 기부자는 동산병원을 지탱해 예쁘게 포장한 샌드위치 수십 개를 보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대구의 한 샌드위치 가게가 주문을 받아 만들어 보낸 뒤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서 알려줬다. 큰 기부금이 아니라도 곳곳에서 섬세한 배려가 담긴 정성들이 대구를 응원하고 있다. 대구 시민들이 홀로 싸운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그들도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송 평 인 논설위원 pison@donga.com



“당신의 미소를 믿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고 몸은 지쳐 가지만 내 환자를 지킨다는 소명이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 오랜 시간 착용한 붓었다. ■■ 방호복 열기를 식히기 위해 머리에 얼음팩을 얹어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 > 관계자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대구 살리는 코로나 전사들



3월 오전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이 고대 근무를 위해 격리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

【대구·김장욱 기자】 3월 오전에 찾은 대구·경북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하 병원) 주변은 병소와 달리 너무나 조용했다. 국내 3대 전동시장 중 하나인 서문시장과 마주하고 있어 평소 주변 도로를 병원과 시장을 찾는 자동차와 사람들로 북적었다. 하지만 이날은 확진자를 옮기는 구급차들만 분주하게 오갈 뿐 자동차도, 사람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병원에는 남원을 위해 이곳을 찾은 일부 납품업체 및 병원 관계자 그리고 병원을 경비하는 경찰들만 이따금 보일 뿐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한적하기만 했다. ■■■ 병원 입구는 구급차 전용

현장으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적박한 도심과 달리 병원엔 전쟁터 의료진 270여명 밤낮없이 ‘사투’ 탐방벽에 식사도 겨우 때우지만 “시민들 격려에 힘이 겹쳐 납니다” 인력·수용공간 부족 해결은 시급

서 원장은 그러면서 “이곳 상황은 정말 녹록지 않다”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만·군·관이 핵심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확진자를 수용·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다만 지체 있는 의료진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시민들의 피아방이 있기에 열악한 조건에서도 새 힘이 생기는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들의 노고를 응원하는 기부도 급증하고 있다. 마스크, 체온계, 무전기, 과일, 껌, 라면, 차, 컵, 쌀, 면, 음료 등 전국의 각계각층에서 사랑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 > 관련기사 2·3·4·6면

현장에서 교군부 부장인 의료진들은 기도 비상대책본부 앞을 보면 자정로 웃음이 터 “시민들께서 보내주실 것은 환영이지만, 그 고고 보람된 마음으로 진고 있다”고 고마워했고 지휘인원은 “여기서도 해결하지 못한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울을 쏟고 있다”고 힘

코로나19 지역거점기관에 임원 중이던 관원을 구한 후 퇴원 및 gmjulfnews.com

대구가 아프다… 그러나 울지 않는다

힘내자! 대구·경북

“왜 대구냐” 불안·울분 속에서
아픔 나누며 ‘함께 이겨내자’

“여기서 막아야 대한민국 지킨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 스스로 봉쇄

4일 오후 2시 대구 대성동에 있는 서문시장.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옛 새간 휴장했다. 재개장 사흘째지만 4000여 개 점포는 대부분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다. 상가 사이에 줄지어 늘어선 국수가게들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들이 온기롭기 보아 식사를 하던 일상은 온데 간데없었다.

▶> 관련기사 A4. 5면
복은때가 묻은 마스크를 꺼내 제자리를 만난 식품가게의 박보씨는 “손님이 좀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손님을 기대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냉정하고 음식 버려려고 나왔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장 한가운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시는 침침 그 자체다. 간혹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의 눈엔 불안과 남매가 가득하다. “왜 하필 대구냐”는 울분도 엿보인다. 결혼식도, 장

국내 코로나19 현황 (단위: 명)

	확진자	사망자
전국	5621(64시)	34(21시)
대구·경북	4780(64시)	33(21시)

※4월 기준. () 안은 기준 시간
자료: 질병관리본부

례식도 전지처럼 지르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하는 대구시립 명복공원을 찾았다. 눈물과 동공이 그칠 새가 없었다. 가족이라도 방호복이 없으면 화장 과정을 지켜볼 수가 없다. 임종도 못했다는 유가족이 부지각수다. 의료진 방호복도 모자라다 보니 가족에게까지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한 유족은 “확진 판정 후 병원에도 못가 보고 돌아갔는데, 마지막 이별까지 가족이 지켜지 못했다”며 “이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쏟아냈다.

이곳에는 하루 40여 건의 일반 화장을 한 뒤 오후 5시부터 코로나19 희생자 화장을 하고 있다. 감염병관리법의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에 따라 유족은 반드시 제대 무리하지 못한 채 고인대적받았다. 하지만 대구에는 또 다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어떻게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의지가 이상선으로 보이고 있다. 자신의 처지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 A4면에 계속

대구·오경욱 기자 okmook@hanyang.com



대구 의료진 ‘코로나19 사투’ 대구에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3번째 국내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는 4000여 명에 달했다. 대구 동성동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이마에 보호용 자국이 선명한 한 간호사가 마스크를 고쳐 쓰며 발열증을 옮기고 있다. ■■■

나랏빚 10兆 늘려… 코로나 ‘슈퍼 추정’

정부, 11.7兆 추정안 편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드는 돈의 88%(10조3000

2020년 추경 내역 (단위:조원)
세입·경정 3.2
확약·고용·복지·지원 3.0

상관된 지원 2조34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3조원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 8000억원 등으로 썼다. 중앙방역 대책 등 감염병 대응 역할을 끌어올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대거 두

“방호복 입고 의료폐기물 청소, 숨 가쁘고 땀 차지만 보람”

동산·경북대병원 음지의 전사들
이재홍 시설팀장, 13일째 계속 출근
“한밤중에도 연락 오면 병실 찾아”

환자 식단 짜는 김진희 영양팀장
“면역 강화 우선, 고령자엔 영양주”

“호흡이 가쁘고 땀이 많이 나요.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도 이런 일에 동참한다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27년간 청소와 시설 관리 등을 맡아온 시설팀장 이재홍(56)씨는 요즘 매일 근무시간에 레벨D 방호복을 입는다. 24시간 사투를 벌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환자를 직접 접촉하며 돌보는 의료진은 아니지만 그들을 측면에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힘을 낸다고 했다. 이씨처럼 음지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이들이 병원 곳곳을 지키고 있다.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동산병원에는 5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환자 275명이 입원해 있다. 이씨를 포함해 시설팀 소속 21명의 인력이 환자가 입원한 병실을 돌며 일코를 송과 거즈 등 의료



5일 대구시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등 입원 환자들이 사용한 의료 폐기물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폐기물을 수거한다.

그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루 세 번씩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러 병동으로 간다. 일반 환자와 달리 코로나 환자의 병실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의료 폐기물로 전용 용기에 담아 수거하고, 이 용기도 이후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돼야 전문 수거 업체들이 쓰레기들을 거둬 간다고 한다. 병원 복도·엘리베이터 등 환자 이동 경로를 주 3차례 소독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환자가 퇴원하면 매트

리스 카바부터 이불, 베개와 환자복 등을 수거해 세탁한다. 침대를 깨끗이 소독하고 정리해 또 다른 환자가 쓸 수 있게 준비한다.

병실 변기가 막히거나 천장에서 물이 쉴 때도 달려간다. 그럴 때마다 앞치마와 속장갑, 겹장갑, 마스크 등 8종류로 이뤄진 레벨D 방호복을 갖춰 일해야 한다. 이씨는 “한밤중에도 연락이 오면 방호복을 입고 가는데 작업하다 보면 방호복 안에 습기가 차고 숨도 가빠진다”며 “지금은 적음이 돼 처음보

다 한결 낫다”고 말했다.

그는 “쉬는 날(비번) 없이 13일째 계속 출근에 일하고 있다”며 “내가 힘든 생각보다 14일간 간혀 지나야 하는 환자들을 보면 ‘매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도 저를 걱정하기보다 자랑스러워한다”며 웃었다.

환자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이 병원의 김진희(57·여) 영양팀장도 음지의 전사다. 면역 강화를 최우선으로 한 식단을 짰 뒤 외부 도시락을 주문한다. 김씨

는 “종일 누워 있는 환자들을 위해 끼니마다 단백질과 과일을 꼭 넣는다”며 “연세가 많은 환자가 있어서 소고·야채·전복 등 6가지 즉 남품을 일체와 계약해 아침식사 때 희망자에게 배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부터는 에너지바와 두유, 바나나 등을 지퍼백에 한 봉지씩 담아 간식으로 준다.

28명의 코로나 중증환자를 돌보는 경북대병원에도 숨은 전사가 있다. 오전 6시까지 병원으로 출근해 병실 폐기물을 수거하는 황종곤(62)씨는 “사람이 범하지 않을 때 일해야 해 일찍 출근하는데 방호복을 입고 한 시간 정도 병실을 돌고 나면 땀에 꼭 젖는다”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의료 폐기물이 엄청 나온다”고 전했다. 이명숙(59·여)씨는 “병동 여러 군데를 자주 돌고 뛰는다. 이전에 3번 했던 청소를 5번 한다”며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세제를 평소보다 더 많이 쓴다”고 말했다. 주 6일 일한다는 황씨와 이씨는 힘든 내색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환자들이 다 가족 같다”며 “전부 빨리 쾌차해 행복 한 가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환자 호흡이 가빠졌다… 망설임 시간이 없다”

대구 의료 자원봉사자 참여
이진한 기자가 본 사투현장

위험수위 오가는 중증환자 이송
2시간 내내 눈 못떼고 상태 체크
인력부족에 간호사 동행도 못해

6일 오후 1시경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 명단이 적힌 현관문에 빈칸이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중증 환자의 번호는 38번. 그중 6명의 이름 옆에는 ‘DNR’이 적혀 있었다.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70세가 넘는 고령자 중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한 환자들이다. 이날 현재 대구동산병원에는 코로나19 환자 280여명이 입원 중이다.

잠시 후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은 남아 있지 않았다. 다급해진 의료진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전북대병원에 빈 병상이 확인됐다.

온몸을 감싸는 레벨D 방호복 차림의 박경식 교수(계명대 의대)가 구급차에 올랐다. 전북대 병원까지 거리는 약 180km. 망설임 시간이 없었다. 출발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환자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산소포화도 수치가 80%대로 떨어졌다. 95%를 넘어야 정상이다. 이송 내내 위험수위를 오르내렸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몸부림도 심해졌다. 박 교수는 산소 공급장치와 모



다시 현장으로 8일 대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이 공기순환장치가 달린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병동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 방호복은 최대 8시간 동안 착용할 수 있어 중증 환자의 장거리 이송 때 주로 쓰인다. 이날 기준으로 대구동산병원에는 군의관과 자원봉사자 등 의사 50여 명이 코로나19 환자 300여 명을 돌보고 있다. 대구=뉴스1

니터 속 그래프까지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 2시간 넘게 달려 가까스로 전북대병원에 도착한 뒤 ‘전원(轉院·병원)을 옮기는 것’ 완료’를 알렸다. 박 교수의 얼굴이 온통 땀에 젖어 있었다.

중증 환자의 장거리 이송은 환자의 병상도 허여하지 않는다. 병원 설비부터 이송, 도착 후 인계까지 사소한 실수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맛에 의사들이 대부분 이송을 도맡고 있다. 박 교수는 “호흡 곤란 환자들은 고통 탓에 잠지도 못하거니와 ‘이송 때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대구에 도착한 건 5일 오후. 가장 먼저 대구동산병원을 찾았다.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이다. 곧바로 의료봉사에 나선 다른 의사들과

함께 환자들의 상태를 살폈다. 경중 환자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중증 환자 보호자들은 계속되는 사망자 발생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한 환자는 “장문도 열 수 없다. 병원에 있는 게 갑갑하다”고 털어놨다.

대구=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ikedaya@donga.com/

박성민·사지연 기자

▶A3면에 계속

대구 동산병원 선별진료소 찾은 20대 여성

작은 목소리로 “저는 신천지 신도입니다”

힘내이소 대구

전국서 모인 기독 의료인들
대구 병원서 자원봉사 이모저모

“우주복(레벨D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에 자리를 잡았다. 조금은 무겁고 숨쉬기 힘든 우주복, 안경엔 이슬이 맺혀 시야를 가린다. … 20대 여자가 진료소를 찾았다. 그녀가 (나에게) 조그마한 목소리로 ‘신천지 신도’라고 얘기했다.”

대구기독교사회장인 동산병원 황재석 교수는 최근 동료 의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대구는 지난달 신천지에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센터에서 31명 확진자가 나온 뒤 환자 수가 급증했다. 이 지역 의료진은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황 교수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다. 그는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오신 분, 감기몸살로 오신 분,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 때문에 오신 분… 모두 다 불안해 분위기를 설명했다.”

황 교수는 10일 “20대 여성이라고 말할 때 순간적으로 갈등이 났다. 그는 ‘왜 이렇게 늦게 왔니 교육생이라 답했다’며 ‘젊은이 있으니 많은 정보를 듣고 싶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그녀에 대한 진료는 끝났지만 인으로서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글로 써 동료 기독 의사들과 공유하고 가래, 고열이 나는 20대 중반의 신도라고 얘기했다. 진료하고 알려줄 때 그의 눈빛에서 어느 의혼에서 보잘것없는 장비와 의숙여 고마워하던 총로의 모습이 참 보람이 있었는데 오늘 미



코로나19 대구지역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지난 4일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

별진료소에서 진료한다. 4시간 만에 방호복을 벗고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병원으로 돌아온다. 다시 방호복을 입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들을 회진했다.

서 원장은 “방호복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 숨쉬기 힘들고 땀은 나는데 활동 반경은 좁다”고 토로했다. 방호복보다 어려운 건 신천지 신도들을 진료할 때였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천지를 보면 안타까우면서 화도 났다”며 “그러나 이분들도 아픈 환자들이다. 어쩌면 이들에게 기독 의료인의 손길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 원장은 기독병원인 동산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이라는 점에 안도했다. 그는 “이곳 의료진은 물론 자원봉사자 중에도 기독교인이 많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를 찾지 못한 기독 의료인들은 물적 지원에 나섰다. 황 교수는 “기독 의사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필요한 물품 정보를 알렸더니 서울은 물론이고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도 방호

세계일보

“코로나 사투” 간호사로서 당연한 일”

2020년 03월 17일 화요일

최연숙 대구시간호사회 부회장

보호구 착용으로 구토·실신 속출
완치된 환자 퇴원할때 가장 기뻐

남성훈 기자 nsh21@seggye.com

“코로나19 확진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고 가족들도 많이 걱정을 하지만 간호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고 있는 최연숙(사진) 대구시간호사회 부회장은 16일 세계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회장은 코로나19 방어의 최전선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길게 전화통화가 어렵다며 짧잠이 시간을 내 답변에 응했다.

최 부회장은 “대구동산병원은 2월 21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당시 입원하고 있던 일반 환자들을 모두 퇴원시키고 코로나19 환



가 미비해 간호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환자 간호를 위해 개인보호구(Lev-el D)를 착용하고 근무하는데 보호구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고 숨쉬기가 어려워 두통과 오심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구토와 실신하는 간호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호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초기보다 입원 환자들의 증증도가 높아지고 중환자들이 계속 입원하고 있어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여전히 간호사들이 부족한 상

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보다 2배 정도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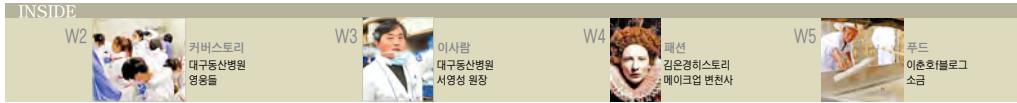
간호사들의 숙식도 열악한 상황이다. 최 부회장은 “초기에는 하루에 많게는 86명의 환자가 입원해 간호사들이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면서 “간호사들이 족집을 자기가 일우었고 그들의 피로가 누적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개인보호구의 불편함에 대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되면 호흡이 곤란하고 땀 흡수가 되지 않아 2시간 근무한 후 2시간 휴식을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근무에 들어가기 전 물과 음료수를 마시지 않는 간호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완치 환자가 퇴원할 때 보람을 느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3명의 환자가 완치돼 처음으로 퇴원할 때 가장 기뻐했다”며 “1899년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을 세우고 헌신한 선교사들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 보람됐다”고 말했다.

영남일보 주말 매거진 | 1509호 |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지난달 21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감염병(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비상대책본부 건물(발판) 앞 살구나무가 16일 꽃망울을 터뜨린 뒤 18일 만개했다. '코로나19'가 모든 일상을 바꿔 놓았지만, 자연의 순리만큼은 바꾸지 못하는 것 같다.

‘배웠던 일상에 봄은 왔다’

전국 유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중구 동산동) 비상대책본부 건물 바로 앞 살구나무가 지난 16일 꽃망울을 터트리며 봄을 알렸다. 대구동산병원에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 370여 명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인 듯 하다.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이 지나가는 동안 대구경북에서만 7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8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대구 확진자 수가 지난 12일 이후 하루 두자릿 수로 떨어지고 경북도 지난 10일 이후 환자 발생이 20명 이하로 지속되면서 다소 전장국면이 접어드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첫 감염병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해 있는 대구동산병원도 지난 한 달간 많은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입원에 있던 환자 137명을 하루 사이 성서 계명대 동산병원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비상대책본부를 정신없이 꾸린 것이 었기에 같은데 어느새 한 달이 지난 시간이 흘렀다.

2월21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자마자 첫날 2명의 환자가 입원하기 시작한 대구동산병원은 둘째 날 51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반병동 60병상을

Cover story W1~3면

지역거점병원 대구동산병원 영웅들

전국 첫 거점병원 지정, 누적 입원환자 550명
전쟁터 같은 상황, 매일 폭작 자며 비상근무
자원봉사 의료진 잇단 합류·병상 추가 확대
확진자 수 하루 두자릿 수 감소, 점차 안정세

오픈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도 각각 70명과 80명이 추가 입원하면서 병상을 237병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별도로 3개의 중환자 병실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병상을 300개로 늘린 것은 달 20일에는 첫 퇴원 환자도 나왔다. 이날 동시에 3명이 완치돼 조출한 퇴원식도 있었다. 19일 현재 퇴원 환자는 140명이 넘는다.

대구동산병원은 보다 체계적인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 분리 차원에서 지난 7월 옛 간호대학 건물을 개조해 152병상을 갖춘 제9 병동을 새롭게 개설했다. 대구동산병원은 이 병동의 별칭을 환자를 구원하는 병동이란 의미의 ‘구병동(救病棟)’으로 지칭했다. 8일과 10일에는 각각 중환자 병상 4개와 3개를 증설, 중환자 병실만 10개를 갖추었다.

외부 의료진의 지원도 잇따랐다.

2월23일 공공병원(보훈병원 및 근로복지공단병원)·국군의무사령부(군의관 및 간호장교)·공중보건국의 지원을 시작으로 3월10일 대한중환자의학회 의사 및 간호사, 11일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에 이어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간호사 45명이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4일에는 첫 사망자가 나왔다. 코로나19 환자만 550명 이상 입원했던 대구동산병원에

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가격리 중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한 지 4일 만에 숨진 86세 여성 이다.

의료진의 노고에 전해지면서 기관단체장과 정치인

들의 방문도 잇따랐다.

지역거점병원 지정 첫날 권영진 대구시장이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한 것을 시작으로 2월28일 정가현 국립중앙의료원장, 27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영진 대한병원협회장, 3월14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대구동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

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직접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조지훈 계명대 동산병원장은 “지금까지 사제가 없었던 전국 첫 감염병 지역거점병원이라 사실 처음에는 걱

정도 많았지만 기우였다. 무엇보다 우리 의료진의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누적 입원 환자 수가 550명을 넘는데도 중환자 수가 많

은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노고로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시 한 번 의료진을 비롯한 대구동산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118 W2면에 계속

글·서한·임성수기자 s0189@yeongnam.com

■ 대구동산병원 영웅들 ❧ W1면에서 계속

레벨D 방호복 입고 땀범벅된 의료진, 전국서 밀려든 응원 메시지에 절로 미소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사들이 입원실로 들어가기 전 공기가 통하지 않는 레벨D 방호복을 입은 작업실에서 착용하고 있다.



대구동산병원 간호사들이 레벨D 방호복 근무 후 간호사 휴게실에서 쉬며 간식 등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다.

간호 인력 부족상황 선후배간 용기주며 견뎌 묵묵히 현장 돕는 시선팀 직원도 숨은 공로자

환자와 1대 1 밀착 근무 간호사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한 달을 맞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하루하루 치러가고 있지만, 대구경북을 비롯한 각지에서 보내온 응원 메시지에 웃음을 잃지 않고 있다.

대구동산병원에는 만·군 의료진 지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기가 통하지 않는 레벨D 방호복을 입고 병실 내에서 환자가 1대 1 밀착 근무를 해야 하는 간호사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지난 16일 찾은 대구동산병원 비상대책본부 건물(별관) 내 간호사 휴게실에는 이미 방역과로 자국이 선명한 간호사 20여 명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2시간 근무, 2시간 휴식으로 하루 8시간의 근무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간호사들은 체력 보강이 우선으로 보였다. 이들은 휴식 중에도 칸막이와 땀, 초콜릿 등을 먹으며 우선자식과의 싸움부터 이겨 내는 모습이었다.

정인자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장(56)은 “34년 간호사 생활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없었다. 병원이 쉴때도 코로나19환자만 치료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국내에서 처음이어서 우리 간호사들도 처음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고한 간호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모습이 후배 간호사들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사명감’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간호부장은 시간이 지남수록 예외 사항이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당초 예상과 달리 코로나19가 전파력이 매우 강해 환자 1명에 간호사 1명이 1대 1로 간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간호역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병실에만 2시간 있는 것도 힘들는데, 공기가 통하지 않는 레벨D 방호복을 입고 2시간을 고박 병실에 갇힌 채 환자를 돌보는 것은 중노동보다 더 힘들다”고 간호사들의 애로를 설명했다.

정 간호부장은 후배 간호사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는 “지역거점병원 지정 초기 대구동산병원 근무를 지원한 20여명의 간호사는 육사나 모병 기구인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경제위장에서 속삭일 하며 환자들을 지켰다”며 “그들의 사명감이 없었다면 코로나19의 진정세도 사명감을 갖”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이 힘들지만 언젠가는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날을 생각하며 서로서로 용기를 주면서 잘 견뎌내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후배들에게 통 큰 한숨 쉰 때”고 약속했다.

이날 휴게실에서 만난 간호사들끼리 힘겨운 건 걸려있지만 땀이 아닌 각지에서 보내온 격려의 희망 메시지가 있었다.



정인자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장이 지난 16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비상대책본부에 있는 대구동산병원 별관 5층 중앙에서 이날 파견된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 간호사들에게 병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짧은 휴식을 마치고 휴게실을 나서 병실로 향하면서 비상대책본부로 비박전에 붙여있는 응원 문구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대구동산병원은 의료진에 보내는 전국의 응원 문구가 적힌 메고기 넘쳐나고, 아예 비상대책본부 로비에 응원 문구 대표모델과 병도 마련하고 의사와 간호사, 환자들에게 보내는 응원 글들을 붙여놓았다.

두 개 만에 붙여있는 응원 문구 메고판에는 유치원생부터 학부도, 할머니지, 할머니는 물론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역거점병원 간호사들이 ‘힘내세요 우리 영웅들’ ‘의료진의 수고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장 내일이 힘든 작업장이지, 화나, 오늘 한 해를 응원합니다’ ‘지하철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분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글이 빼곡하다.

한편 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의 편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대구동산병원 시설팀 직원들도 숨은 공로자들이다.

20명정도 구성된 대구동산병원 시설팀 직원들은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에 따라 병원을 통해로 비박이 하는 상황상 청소와 이를 관리 받음 작업을 통해 전 계층, 급수시설 변경 등 각종 시설 작업을 마치고 전 입원의 상태에 대한 비상관리체제를 가동 중이다. 뿐만 아니라 병실 증설을 위한 각종 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물론 대책본부 등의 청소도 도맡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이 들어오는 각종 구로 물품을 줄기는 일도 이들의 몫이다.

서경숙 대구동산병원장은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에서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 바로 시설팀이다.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안정은 생각할 수 없었다”며 “이제쯤 팀장을 비롯한 시설팀 직원 모두에게 감사한 건 걸려있는 말을 전한다”고 했다.

글:서한-임성수기자 a018@yeonnam.com



대구동산병원 영양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계명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공주에서 보내 온 도시락을 옮기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RCY 대학생 봉사단원들이 기부 물품으로 배달된 손 소독제를 대구동산병원 시설팀 관계자들과 함께 병원에 옮기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RCY 대학생봉사단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비상대책본부 로비에서 의료진에게 제공한 커피 등을 운반하고 있다.

“물 한병에도 감사인사 들어 오히려 미안한 마음”

대한적십자사 RCY 대학생 봉사단

“간호사 선생님께서도 힘든데, 물 한 병 드린 차이에 대해 감사하든 말씀해 주실 때 너무 미안하고 감사했어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RCY 대학생 봉사단은 비상대책본부에 있는 대구동산병원 별관 로비에서 커피와 음료, 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부 물품이 도착하면 트럭에서 보관소까지 옮기는 것은 물론 의료진이 보다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물품을 예로 한꺼번에 포장해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대한적십자사 RCY 대학생 자원봉사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받고 있어 매일 봉사자가 바뀐다.

글:서한-임성수기자 a018@yeonnam.com

에 나섰고 있는 김준우씨(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는 “처음에는 모두가 정신이 없어서 우리도 좀 혼란이 있었는데, 금방씩이 된 의사 선생님들과 방역고할 때에 이메일에 밴드들 몇 개씩 붙여야 할까라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물 한 병만 감사하든 말씀해 주실 때 너무 미안하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와줄 것만 있다면 애기가 아플 때 나오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경험한 소중한 일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자원봉사를 자신 있게 권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글:서한-임성수기자 a018@yeonnam.com

동산병원 주지연 영양팀장

의료진과 직원 280명
환자 370명 식사 책임
면역력 높여주는 음식
끼니마다 정성껏 제공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주지연 영양팀장이 구내식당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직접 조리할 할 수 없다 보니 환자들과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때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370여명의 코로나19 환자와 의사·간호사·직원 280여명 등 650여명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매일 책임지고 있는 주지연 대구동산병원 영양팀장은 “도시락 일체를 수시로 바꾸는 등 보다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할 점이 많다”며 어쩔 수 없었다.

주 팀장은 기부 도시락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환자식은 별도 주문한 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양보충이 시급한 환자들에게 기부 도시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자칫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 기부물 들어오는 도시락은 모두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식으로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경우우체를 통한 도시락이어서 메뉴 선택에 어려움이 많아 급급한 업체를 바꿔가며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 다만 중증환자도 적지 않아 밥과 죽은 환자들에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팀장은 외부 출입이 안 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배려해 끼니별로 다양한 부식 제공에도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그는 “환자들이 병실 내에서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아침과 저녁에는 과일, 점심에는 우유를 제공하고 있다”며 “아침에 음료수와 에너지바 등도 함께 제공, 환자들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고당질·고단백 식품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 선택한 도시락이 환자들의 입맛에 맞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병실을 수시로 찾아가는 주 팀장은 “환자 중에 한 분이 감이 없으면 식욕을 못맞추고 예가에서 도시락 일체를 특별히 부탁해 김을 제공하고 있다. 당일 기부물품으로 들어오면 어르신들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자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의 경우 우유에도 도시락 일체 음식이 부어지 않아 우유에 들어있던 카페인 등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한편 주 팀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자원봉사를 해 준 영어 강사인 50대 남성과 계명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글:서한-임성수기자 a018@yeonnam.com

전국 유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서영성 원장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서영성 원장. 서 원장은 코로나19 환자들의 완치를 위해 한 달째 현장에서의 의료 및 지원 시스템을 건 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 원장을 대구동산병원 비상대책본부에서 만나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의 역할과 지령 후 변화 등에 대해 들어 봤다.

“신종 바이러스 주기적 발병 예상…비상시 감염병 전문병원 전환 대비해야”

▶입원 중인 환자 수는 어떻게 되고, 이들의 상태는 어떤가. 병실은 여유가 있는가.
“오늘(16일) 현재 377명의 코로나19 환자가 255개 병실에 입원해 있다. 날짜별로 보면 최근 들어서는 하루 10~20명이 퇴원하고, 그만큼의 환자가 입원하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병실은 최근 옛 간 호대학 건물까지 제2병동으로 개조해 추가 운영하면서 조금의 병실 여유가 생겼지만, 지역거점병원이라 만일의 사태를 위해 비워두고 있다. 중증환자의 비율은 15% 정도로, 이들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과 ‘전담병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지역거점병원은 일반 환자는 한 명도 없이 코로나19 환자만을 치료하는 병원이고, 전담병원은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전담 치료를 하지만 분리해서 일반 환자도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구동산병원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이틀 뒤 지역거점병원으로 빠르게 지정됐는데.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맞았다고 할 수 있다. 대구동산병원은 지난해 4월 14일까지 계명대 동산의료원으로 병상만 1천 개 가 넘는 삼강종합병원(3차 의료급여기관)이었으나, 계명대 동산의료원(현 계명대 동산병원)이 성서로 이전한 뒤 216병상의 종합병원(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운영했다. 특히 대구동산병원은 특수 위주의 병실이 많이 입원 환자 수가 병원 규모에 비해 많지 않아 지역거점병원으로의 전환이 다른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입원 환자들의 양해가 큰 도움이 됐다. 당시 137명의 입원 환자들을 코로나19의 지역거점병원 전환을 흔쾌히 이해해 주 성서 계명대 동산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이월이 가능했다. 일부 중증 입원 환자들은 지역거점병원 지정일 오전에 퇴원하기도 했다. 이들이 퇴원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국립병원도 아닌데, 민간병원이 거점병원을 자처하고 나서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대구시의 요청도 있었지만, 우리 병원이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지역거점병원이 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국립인 경북대병원의 경우 그 많은 입원 환자들 어디로 이월시킬 수 있겠느냐.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입원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는 121년 전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한국에 와서 우리 선조들 구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한센 병, 결핵, 폐렴과 환자를 위한 동산병원의 역사가 200년에도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역할을 한 공로였다고 본다. 과거의 그 정신, 그 사명감이 지역거점병원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동산병원이 그동안 대구시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열매를 되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마음과 급박한 현실, 병실 상황 3박자가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동산병원=코로나19’ 낙인찍힐 수도 있는 우려는 없는가.

“예를 들어 그런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리고 지나 보니가 오히려 계명대 동산병원이 성서로 이전해 대구동산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병원이 있다는 존재감을 알렸다는 부분은 오히려 오인도 있다고 본다. 특히 이창에 우리 병원이 열당근을 대표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가장 먼저는 생기도 한다. 신종 감염증은 주기적으로 온다고 봐야 한다.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 평소 일반 병원으로 운영하다가 비상시에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개편 된다.”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초기와 현재를 비교한다면.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첫날 29명밖에 입원하지 않았지만, 다음날부터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2월 22일 51명, 23일 79명, 24일 86명으로 늘어나 불과 6일 만에 입원 환자가 232명에 달했다. 초기 1주일은 정말 긴박한 상황 그 자체였다. 다행인 것은 222명일 때 퇴원 환자가 나온 이후 퇴원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과 비슷한 환자 수가 70명이 넘는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는 환자도 있지만 2일 지난 2일 입원 중이던 중상이 없는 환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들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서영성 원장이 비상대책본부 사무실에서 의료진에게 상황론을 보여 설명을 하고 있다.



서영성 원장(오른쪽 제2)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비상대책본부에서 의료진과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서영성 원장(오른쪽 제2)이 의료진과 코로나19 중증환자의 복 및 사정을 들여다보며 논의하고 있다.



서영성 원장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퇴원 환자에게 복귀법을 안내하고 축하의言葉を 전하고 있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제공)

한달째 의료·지원 시스템 진두지휘

코로나19 환자 377명, 255개 병실에서 입원 중
신종 감염병 전담…중증환자 비율 15% 집중치료 및 간호대 개조 추가병실 운영, 만일 사태 여력

급박한 현실·병실 상황 등 거점병원 전환 3박자 지정 첫날 환자 2명에서 6일 만에 232명 불어나 4주 지난시점 퇴원환자 늘면서 점차 안정 찾아 중환자실 1대1 간호, 숙련된 간호사 인력 부족

초기 입원자 보호복·마스크 이물분양 애먹기도 18개월 아이·임마한자 잘 극복한 모습 기억 남아 고생한 의료진·시민들 전해준 따뜻한 마음 감사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첫날 29명밖에 입원하지 않았지만, 다음날부터 환자들 몰려들기 시작해 2월 22일 51명, 23일 79명, 24일 86명으로 늘어나 불과 6일 만에 입원 환자가 232명에 달했다.

초기 1주일은 정말 긴박한 상황 그 자체였다. 다행인 것은 222명일 때 퇴원 환자가 나온 이후 퇴원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과 비슷한 환자 수가 70명이 넘는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는 환자도 있지만 2일 지난 2일 입원 중이던 중상이 없는 환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들

“사실 정신이 없었다. 의료진, 시스템, 시설 모든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비상대책본부 대구동산병원 발원에 차려질 때만 해도 마치 전쟁통에 피난 온 것 같았다. 갑자기 옮기는 바람에 교수와 간호사들은 병동에 있던 집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했다.”

▶국립중앙의료원 20명 파견 등 의료인력도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의료인력 부족은 언제 끝나는가.

“의사는 그나마 바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간호사다. 전국에서 지원하는 간호사도 적지 않아 간호사 인력 수급도 괜찮지만, 정작 감염병에 투입될 수 있는 간호사는 중환자실 경력에 있는 숙련 간호사가 아니니 환자들을 돌보지 못해 부득이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환자실의 경우 1대1 간호를 해야 하는데, 공기도 통하지 않는 레펠D 보호복을 착용해야 해 30대에 2시간 근무, 2시간 휴식을 할 수밖에 없어 환자 10명에 간호사 60명이 필요하다. 현재 40명으로 겨우 버티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최대 80명까지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면 간호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타지역에서 지원한 간호사의 경우 병원에서 다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적응하는 시간만 1주일 일 걸려 대부분 파견 2주 중 1주일은 시스템 적응기간 일 것이다.”

▶지역봉사자도 많이 보충된 것으로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

“사실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할 역할은 많이 없다. 특히 감염증 환자인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 병원에서 꾸준히 지원병력이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RYC 대학생들도 구호물품을 옮기고 구내식당 정리정돈, 음료수 및 커피 무료 제공 등에 그리고 있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원하고 있지만, 봉사활동 트거사실 없다고 볼 수 있다.”

▶방호복과 의료복 마스킹 수급 상황은.

“지금은 조금 순풍을 타고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1주일 동안은 하루 이틀 관내에 의료진이 예를 먹었다.”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지도 벌써 25일이 지났다. 소회를 말한다면.

“오래 갈 것으로 예상했던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행히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는 대구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환자들을 이송하는 말을 전할 때 지역거점병원의 병원장이라는 큰 무게를 진 것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8호 병동에 18개월 된 남아와 함께 병실을 쓰고 있는데, 모자 모두 코로나19 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아무리 심한 감염증이라도 모자의 정을 끊지 못하는구나 생각이 든다. 아이 아파와 외환비나도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아 가족 모두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병실의 침대를 옮겨놓아 고난과 자동차를 줄을 세우 놓은 채 환자를 생활하는 모자의 모습을 보면 코로나19 공포도 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고생이 많은 의료진과 코로나19 환자, 대구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의료진이 진짜 고생이 많다. 이는 직업보다 직원의 삶이 평한 모습을 볼 때면 대견스럽고 고마운 뿐이다. 이제 남은 것은 40~60명 되는 고령 환자들의 사망을 줄이는 것이다. 지역거점병원으로 현장에 갔다 보니 대구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너무 격정하지 말길 바란다.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 자라면서 목숨을 희생한 다해 대구동산병원 시설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글·시간·임성수 기자 s088@yonam.com

2020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조선일보 특집

2020년 4월 9일 목요일

D1



“코로나19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올바른 보건의료를 서비스한다



朝鮮日報, 창립 20주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분야	업체명	분야별 가치니즈
종합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복합의료시스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검진센터
	중앙서울대학교병원	보건의료데이터
	기초전문의	무엇을중요하게보통치료
전문병의원	강남삼성병원	자궁근종비수술치료
	오세암병원	모발이식
	세한안과	백내장수술교정
	대한치과대학	노인치과
건강기능식품	이이치병원	미용성형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헬스케어기기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를 매나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5월 0시 집계 기준 전 세계 확진자가 116만 명을 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0만83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12만4736명), 이탈리아(12만4632명), 독일(9만622명), 중국(8만166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감염자가 공식 확인된 국가나 지역은 전 세계 211곳으로 사망자는 6만 3763명에 육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고, 각 나라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여름에도 지속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달이 지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일상을 뒤엎는 것을 물론이고 우리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의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5월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2237명이다. 지난 3월 28일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완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넘어섰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 여부를 검사 6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했고, 보건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방역 의료 활동으로 3월말부터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전염 최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료진을 비롯해 방역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가장 컸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예방백신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지난 3월 26일 국내 기업과 협력해 코로나19 치료제와 예방백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단원문화재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는 셀트리온과, 합성항원 기술을 이용한 예방백신 개발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초기 발생지인 우한은 물론이고 중국 경유자 입국을 전면 제한했어야 한다는 여론을 포함한 국민들의 평가가 분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WHO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WHO는 특히 한국의 환자 조기 발견, 신속한 접촉자 격리, 시민 참여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최근 WHO가 개최한 코로나19 확산 예방 브리핑에서도 한국은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시민의 참여를 장점으로 꼽았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의료 기술에 대해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아래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진단 검사, 개인위생 등이 새로운 일상이 된다는 의미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일

정 수준 억제하며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 의료계에서는 마지않은 마데로 코로나19였다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신종 바이러스가 자주 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계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도 이러한 질병과 인류 사회의 위기라는 면에서 결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올 대표적

인 변화에 대해 원력의로 체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메디컬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정보기술(IT)과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급성장, 글로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플랫폼화 등을 꼽고 있다. 일례로 현재 병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전파를 막기 위해 로봇을 이용한 자가 발열검사와 진단, 의료물류 운반, 스마트 방역 케어 등 ICT 의료 기기와 모니터링, AI 플랫폼 등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고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의료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국민건강보 증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하는 '2020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은 의료와 제약,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의료기관 및 기업,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보건의료 서비스와 상품 선택을 제시하고, 산업적으로는 보건의료 산업이 4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까지 기초조사를 통해 대상 의료기관과 단체, 기업을 선정했고, 3월29일부터 접수 신청을 받았다. 이후 응모 공적서를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해 1차 심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를 토대로 종합 심의해 시상부문별 대상을 선정했다. 그 결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기기, 공공기관 등 5개 분야에서 17개 부문 수상자가 선정됐다. (표 참조)

김민영 책임기자



특별공로상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지쳐있는 의료진에게
격려와 위로해주는
국민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대구의 수많은 영웅 중 한 곳이 있다. 바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계명대 동산병원의 분신이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2개의 병원 중 하나가 내놓은 곳이다.

1899년 재흥원(濟興院)으로 출발한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지난해 4월 계명대 동산병원을 대구 중구에서 남구 성서캠퍼스로 이전했다. 중구의 자리에 있던 옛 동산병원을 대구동산병원으로 개명해 2차병원으로 운영해 왔다. 코로나19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로 인해 신종 나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실태이기에 바뀔을 중 것이다. 지난 2월11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대구동산병원이 아예 높은 것은 가늠해볼 수 없다.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기 일사분란하게 준비해 붙어있다. 기존

암원환자 130여명을 퇴원 및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전원 조치해 병원 전제를 비워 놓았다.

여기에는 현재 460명상의 코로나 확진자 병상을 운영 중이 있다. 중환자실도 20개로 증설하고, 확진자 산모를 배려하기 위해 산부인과 외래 진료소까지 개설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361명의 동산의료원 의료진과 150여 명의 외부 지원인력이 코로나 피치너는 목표로 대대적 2월 11일 351명이 퇴원해 코로나 극복이라는 희망 소식을 전하고 있다. 감감대 동산의료원은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 나날을 갓 없이 자각일에 매진하는 교직원들이 너무 감사하다”며 “지쳐 있는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힘을 주는 국민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구=박영수 기자



의료진의 코로나 헌신에 '덕분에 챌린지' 권영진 대구시장(가운데 왼쪽)과 조치흠 계명대 동산병원장(가운데 오른쪽) 등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동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병원 벽에 가득한 응원 메시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사들이 지난 8일 병원 1층 계시대 앞을 지나가고 있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제공

대구의 영웅들은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코로나19 최전선’ 대구 동산병원을 가보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대구는 이달 들어 신규확진자가 하루 평균 1명 선에 그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다. 이태원 클럽 사태로 대구 유흥업소도 2주간 집합금지 대상이 됐지만 동산의료기 서문시장 등은 행인 발걸음이 늘어나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긴장 속에서 매일 코로나19와 싸우는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동산병원)에는 적막감이 감돈다.

지난 8일 병원 입구에 들어서니 림지막한 회색 컨테이너 7개가 빼곡히 들어섰다. 앞뒤 공사현장 인부 속옷을 연상케 했으니 가까이 다가가니 ‘의료진 보호구 착용의 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동산병원

감염병 전담 전환 후 81일째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 안정기에도 적막감 팽팽 755명 퇴원... 119명 치료 중 “응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은 11일로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된 지 81일째가 됐다. 민간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만 받는 곳은 동산병원이 국내에서 유일하다. 이곳에는 아직도 확진자 119명이 입원해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2월18일 60대 여성이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초기에

는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에 의료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산병원은 첫 확진자 발생 시를 뒤부터 전담병원을 자처하며 확진자 치료를 맡을 준비를 했다. 기존 환자 145명을 실려온 대산 병원으로 보내고 병상 전체(463개)를 통째로 비웠다. 초기에는 확진자가 하루 수십명씩 몰려들어 경황이 없었다. 의료장비가 부족한 데다 진료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야전병원과 다를 바 없었다.

병원 측은 감염내과 교수들의 자문을 구해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했다. 환자들을 경·중증으로 나누고 증세에 따른 진료 방법 등을 공유했다. 나름대로 구축한 매뉴얼로 확진자 치료는 안정을 찾았다. 3월19일에는 가장 많은 395명이 입원하

기도 했다. 당시 자체 의료인력(315명)만으론 손이 모자라 서울 등 외부에서 의사, 간호사 등 179명을 지원받았다. 동산병원은 지금까지 확진자 953명이 입원했고, 755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날마다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의료진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신전영 간호사(27)는 “초반에는 일손이 부족해 퇴근도 못하고 병원 내 간이 숙소에서 기거하며 24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면서 “레벨D 방호복을 두르고 확진자들 식사까지 일일이 배달하는 일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1층비상대책본부에서 만난 정인자 간호부장은 “처음에는 감염될까봐 많이 두려웠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보내주는 응원 덕분에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었다”고 했다. 병원 1층 로비에 가보니 가로 8m, 세로 2.5m 계시대에는 응원문구가 가득했다. 크고 작은 색종이와 메모지에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남성일 동산병원 부원장(이비인후과 교수)은 “병원은 영입 손실을 감내하고, 직원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덕분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면서 “동산병원의 코로나19 대응은 ‘방역현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동산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통보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병원 측이 계약해지를 철회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지역 리포트

대구 중구에 위치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민간병원임에도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수락해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의 최전방에 섰다. 대구의료원과 함께 코로나19 환자치료의 핵심축을 담당하며 코로나19 차단에 성공했다. 앞서 성서에 새로 지은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해 발생한 독도행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전례식장을 통해로 비웠다.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병원이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사회 위기 때마다 '기독교 선교사들 봉사정신' 실천

지난해 독도행기 추락사고 때는 희생자 위해 장례식장 비워주고 코로나 사태전 민간병원임에도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수락 환자 치료·코로나 확산 차단 도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지난 2월 21일 국내 첫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대구에서 같은 달 18일 신천지 여신도 확진자가 발생한 후 급격히 확산자가 늘었다. 처음엔 대구시장 주재 의료전문가회의에서 성서로 이전한 계명대 동산병원 병상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환자 발생 후 폭발적인 환자 증가로 새 병원의 여유 병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구시에서 대구동산병원 사용을 긴급하게 요청했고 신일회 계명대 총장이 "학교나 병원은 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승인을 하려해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전담병원 지정 첫날 2명의 환자가 입원했는데 둘째 날에는 환자 51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반병동 60병상을 먼저 열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도 각각 79명과 86명이 추가 입원하면서 237병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별도로 중환자병실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하루에 수백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병상을 계속 늘려나갔고 일반병실과 중환자병실을 포함해 400병상까지 늘었다. 가장 상황이 어려울 때는 대구동산병원의 의료진(성서 동산병원 파견 포함) 300여명과 지원은 전국의 의료진 200여명이 밤낮없이 환자들을 돌봤다. 현재는 파견 인력 대부분이 돌아갔다. 대구동산병원의 누적 입원환자는 700명이 넘는다. 현재 많은 환자가 완치 후 퇴원해 남은 환자는 150명 안팎이다.

지난해 10월 31일 경북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소방대원과 응급환자 등 7명을 태운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헬기



지난 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치료에 매달렸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쓴 채 보아자를 그려 보이고 있다. 아래 사진은 대구지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전경. 동산의료원 제공

가 추락해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밤 11시20분쯤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들이 성서에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을 찾아왔다. 동산병원 전례식장을 희생 대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다.

병원 측은 대구와 가까운 경북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121년 동안 지역민

과 회교애를 함께 나눈 병원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장례식장)을 다 비우고 고인구 유가족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키로 했다. 분향소를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사망자와 실종자의 합동 영결식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렸는데 이때도 계명대학교에서 실내체육관을 영결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은 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성서 동산병원, 경주 동산병원으로 구성된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1899년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원해 대구에 최초로 사망의술을 펼쳤다. 지난해 성서에 계명대 동산병원을 신축해 이전했고 중구에 있던 원래

병원은 대구동산병원(2차병원)으로 개원해 운영중이다. 병원 이전과 개원 등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장례식장 사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흔쾌히 수락했다. 계명대학교와 계명대 동산의료원이라는 기관을 만든 기독교 선교사들의 개척정신, 도전정신, 봉사정신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유한 환경을 버리고 낯선 한국 땅에 와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쳤던 선교사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주어진 사명을 경허해 실천하며 환자들과 지역민들에게 배운 사랑을 되돌려 준다 것이 동산병원의 각오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19 방역의 성공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문위원단이 지난 3월 24~25일 대구동산병원과 성서 동산병원을 다녀갔다.

WHO 자문위원단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법과 관련 데이터 기반의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는데 의료진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동산병원의 코로나19 진료 시스템과 환자 관리방법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당시 자문위원단은 대구동산병원이 밤 빠르게 공간을 비우고 지역거점병원으로 운영된 것, 3차 삼급종합병원인 성서 동산병원이 정실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와 응급실 선별진료를 잘 운영한 점, 감염내과·호흡기내과·전단검사외과·영상의학과 의료진들의 팀워크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자문위원단은 "병원 내 감염 예방에 힘쓰는 모습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훌륭하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해내지 못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대구가 지혜롭게 잘 해오고 있다"며 "모범적인 우리의 대응체계를 벤치마킹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 전담병원으로서의 충분한 경험과 의료진들의 대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을 지키는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b.co.kr

"121년간 지역민에게 받아온 사랑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

김권배 계명대 동산의료원장 의료진들 일상 복귀 준비하지만 코로나 재유행하면 다시 나설 것

"121년간 지역민에게 받아온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김권배(사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은 12일 코로나19 사태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성서 동산병원이 환자 치료에 적극 나선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원장은 "계명대와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설립됐다"며 "우리 지역에 위기가 닥쳤을 때 지금까지 함께해준 지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달 넘게 환자들만 생각하며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을 버틴 의료진의 공이 가장 크다고 했다. "환자들이 위험하니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의료진으로서 당연히 환자들을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정부와 타지역 의료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다. 김 원장은 "자랑도 코로나19 전사자들

에게는 24시간이 모자랄 판"이라며 "보호구를 벗었을 때 땀범벅이 된 모습, 환자들 돌보느라 식사도 못 챙기던 모습, 가족에게 혹시 전화왔을까 짐에다 안 들어가던 모습 등의 의료진이고생하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회상했다.

의료진에 대한 응원과 찬사가 큰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전국에서 치렀던 의료진들을 위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편지들이 이어지고 있고 SNS를 통해서도 응원의 문자가 쌓였다"며 "시민들의 응원이 있기에 많은 의료진들이 힘을 얻어 견뎌낼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마스크 체온계 무전기 과일 컵라면 치약 칫솔 땀 현관 용품 등 개인이 기입해, 단체 등 전국의 여러 계층에서 사랑의 손길을 보냈다"며 "어린아임, 유자원, 초등학생 등 전 국민이 보내준 사랑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감

사한 마음을 전했다.

대구동산병원 등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면 지금과 똑같이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대구동산병원의 경우 구명동이라는 별도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입원·치료하고 병원 전체는 소독하고 제정비율 일반 환자들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만약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게 되면 지금처럼 방법대로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대비할 수 있도록 방호복과 마스크, 고글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코로나 최전선서 86일째 사투... 거점병원 지정은 하나님 계획”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이 전하는 인술의 기록



지난 2월 20일 저녁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서명성 원장) 경영진이 긴급히 한자리에 모였다.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한 날이었다. 이날 첫 사망자도 나왔다. 이를 전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로 알려진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며 대구의 상황이 심각지 않게 흘러갔다.

대구시에서 대구동산병원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 경영진은 순간 고민했다. 민간 병원으로서 당시 137병상을 운영 중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를 전부 비우고 통째로 병실을 내어줘야 했다. 기존 환자들에겐 큰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간단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대안이 보이지 않았다.

이때 병원 경영진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병원의 정체성이었다. 대구동산병원의 전신은 1899년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대구 제중원(濟衆院)이었다. 선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병원은 121년간 대구 시민들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왔다. 멀고 먼 여정을 거쳐 한국까지 찾아온 서양 의료진들은 의료 환경이 척박했던 이곳에서 사랑의 의술을 펼쳤다.

이튿날인 2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합시다’라는 경영진 결정에 직원들도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 병원은 곧바로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됐다. 22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만 받기 시작했다. 매일 환자 수가 급증하더니 불과 6일 만에 입원 환자가 232명을 기록했다. 긴박했던 일주일이었다. 수많은 의

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헌신했다. 지금은 중환자 3명을 포함, 16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남성일(대구중앙교회 안수집사) 계명대 의대 교수가 최근 국민일보에 전한 대구동산병원 이야기다. 병원은 지난 3개월간 코로나19 치료의 최전선에서 싸워왔다. 병원 기획실장인 남 교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며 지역거점병원 지정 당시를 회상했다. 남 교수는 “대구동산병원은 앞서 결핵이나 콜레라가 창궐할 때마다 이를 전담해 막아 온 역사가 있다”면서 “병원의 이번 결정도 예전 선교사님들의 병원 설립 취지에 맞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구동산병원 내 크리스천 의료진은 매일 아침 기도도 하루를 시작한다. 대표기도 순번을 정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은다. 주일에는 회의 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온라인 예배를 먼저 드린다. 남 교수는 “의료진은 한결같다. 늘 환자가 빨리 회복돼 가족들과 일상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기록 의료진으로 구성된 국제개발·보건의료 비정부기구 글로벌케어(상임대표 백은성)도 대구동산병원을 지원했다. 대한중환자학회와 협력해 지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의료진들이 최근 병원 내 치료실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채 컴퓨터를 보며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대구동산병원 제공

121년 전 선교사 기도로 세워진 대구 제중원이 동산병원의 모태
31년 신천지 확진자 슈퍼 전파로 하루 만에 병상 비우고 환자 수용

크리스천 의료진 매일 아침 기도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쳐있지만 한국교회·성도들 응원이 큰 힘”

3월부터 두 달간 6차례 중환자 전문의 32명을 파견했다. 글로벌케어 실행위원인 이승헌 고려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보름간 개인 휴가를 내면서까지 대구에서 환자 치료를 도왔다.

이 교수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무사히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지만, 그의 아들은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할머니는 담당 의료진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모태선양인 남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혼자 감당하는 일은 작고 보잘 것없을지 모르지만, 함께하면 사역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1년 전 선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대구동산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엔 하나님의 계획 하심이 있었다고 확신한다”면서 “많은 선교사님과 선배 의료진들의 눈물과 기도가 뿌려진 이곳에서 대구 시민들을 치료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의료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밖 세상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단계가 점차 완화되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의료 현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남 교수는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어전히 힘겹게 하루하루 확진자들과 함께하는 의료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교회의 지원과 성도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계속 실천하되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좁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제 좀 멈추라는 신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멈추고, 가정을 돌보고 자연을 돌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b.co.kr



이승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교수(오른쪽 여섯 번째)가 지난달 29일 대구동산병원 의료진과의 협진을 마친 뒤 서명성 병원장(다섯 번째), 남성일 기획실장(맨 오른쪽) 등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은 대구동산병원 전경.



글로벌케어, 대구동산병원 제공

중영일보

2020년 06월 08일 수요일

코로나 최전선 대구동산병원
100여일 만에 외래진료 시작

대구 첫 확진자 이후 1022명 치료 자인 31명 환자가 나온 직후 거점 병원
일반진료 중단. 격리수신 약 70여 이 됐다. 병원은 기존 입원 환자들을 다

우주복 모양의
입력 곳인 컨테
라졌다. 고글
않는다. '신종
(코로나19) 전
은 현수막도
호민간 코로나
구동산병원의
코로나19 최
처했던 대구
100여일 만에
원은 15일부터
외래 진료를
인공신장실·중
을 열기로 했다
2일 기준 경
남아있는 상태
앞두고 본관 입
구동(9병동) 입
이 병원은 거

코로나19 전담 대구동산병원, 115일만에 진료 정상화

고강도 밀접 소독 후 15일 재개원
대구경북 지역 감염 점차 안정세

남은 경증환자 16명 격리 조치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봉사·헌신"

"병원 정상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됐다는 뜻입니다."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김가연(간호사28)은 10일 "다시 일반 환자 진료를 할 생각에 설렌다. 동료들과 함께 역경을 잘 이겨내다며 서로 격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간호사는 원래 외래진료 관리를 담당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때 중환자실 관리를 맡았다. 그는 "몸이 약한 어르신과 중증환자 관리는 몇 배로 힘들었다. 사망자가 나올 때는 지켜보는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료진을 믿고 완전히 집으로 돌아간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현재 의료진 모두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병원으로 안심하고 찾아와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동산병원이 15일부터 정상 진료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동한 지 115일 만이다.

대구동산병원은 병원 전체에 고강도의 밀접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진료 환경으로 단장했다. 진료과는 환자 편의를 위해 재배치했다. 1층부터 5층까지 21개 진료과가 있으며 환자들이 쉽게 이동할 동선을 최소화했다.



최근 대구 중구 동산동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고강도 밀접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제공

응급실과 수술실, 인공신장실, 건강검진센터도 정상 운영한다. 입원실은 중환자실을 비롯해 121병상으로 운영하며 하반기에 80병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호스피스병동은 다음 달부터 18개 병상으로 문을 연다. 의사 31명과 간호사 142명도 정상 업무로 복귀한다.

대구동산병원은 한 달간 재개원을 준비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입원 중인 모든 코로나19 환자를 병원 본관과 별관 9병동으로 격리 조치하고 외래 환자의 동선과 격리지 않게 엄격히 분리했다. 26일에는 외부 가림막에 의뢰해 병원 내부에 세균 검사까지 실시하고 최근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10일 현재 대구지역 전체 확진 환자 6888명 가운데 673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 완치율도 96.6%로 올랐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대구경북을 휩쓸었던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대구동산병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의 노력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 병원 운영에 더 근무하는 사원직 세(31)는 "모두들 정상 진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입상을 되찾는다는 생각에 기뻐 크다"고 말했다.

대구동산병원은 지난해 4월 15일 계명대 동산병원의 담서구 성서 이전과 동시에 지금의 위치에서 종합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진료 활동에 매진한 결과 그해 연말에는 외래 환자 수가 하루 평균 7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때 대구동산병원은 "지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입무를 자처했다. 2월 21일 병원을 통째로 비운 첫날부터 115일간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헌신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022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922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61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22명은 안타깝게 사망했다. 현재 16명의 경증 환자가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서명성 대구동산병원장은 "그동안 용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며 재개원 뒤에 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진료하고 의료봉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연희 계명대 동산의료원장은 "국민 성원에 힘입어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15일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대구동산병원이 앞으로 지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CHANNEL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지역별 케이블 채널 수상구 동구 중구 남구 밀서구 밀성구 18	
대구 북구 15	
중구 남구(대구), 서구 17	
수상구 동구(CM) 20	
안동 중구 문경 예천 의성 봉화 경주 14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포항 18	
울릉 영덕 울진 18	
수상구 동구 마천로(2) 번호는 20번, 중구 남구(대구동) 밀서구 밀성로(2) 대구 마천로(2) 번호는 17번.	

계시판

(합법) 대구 □2020 대구 올해의 책 온라인 시민 투표=1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지인원·소통·참여)→토대대구에서 진행. 참가자 중 50명 추첨해 선정 도서 등이 담겨 있는 독서구려미 증정
□매니무생물 사진 공모전=남구 이현동 자연 풍경 및 관광 자원, 이현동의 옛 모습 및 추억이 담긴 사진. 8월 31일까지 1인당 2점 이내 e메일(icheonjiwon@mate.com) 접수 053-474-4700
□포항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12개월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된 온라인 쇼핑(6월 말 오픈 예정)을 통해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대상(한정 양육서비스 참여 제외).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포항시 농업정책과 문의 054-270-2683

경북지역 '웰니스 관광지' 2곳 선정

문화일보

2020년 06월 11일 목요일

“또다시 코로나 전담병원 되어도 역할 충실히 할 것”

15일부터 정상진료 시작하는 대구동산병원 서명성 원장

“1개월 전부터 고강도 소독 병원내 ‘세균제로’ 인증받아 2차 유행 대비 병상 비워놔 일반 환자들 예약문의 급증”

대구=백현희 기자

“시민을 위한 입구가 주어지면 당연히 수행해야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을 살리는 곳이 병원이고 그 역할은 의료진이 하잖아요.”

서명성(사진)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원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이 대구에 확산할 당시 전정 터처럼 났었던 병원이 이제 안정을 되찾아 정상 진료를 위해 재단장되고 있다”면서 “또다시 코로나19 전담병원 입구가 주어지고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앞서 대우병원과 대구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환자를 돌렸던 대구동산병원이 115일 만인 오는 15일부터 정상 진료에 나선다. 이 병원은 지난 2월 21일 일반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병원을 통째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내놓았다. 그리고 의사 31명과 간호사 142명은 외부 파견 의료진과 함께 밤낮없이 밀려드는



환자 치료를 위해 사투를 벌였다.

서 원장은 “당시 코로나19 환자가 들끓어 치러 번지고 있어서 누군가는 치료에 나사야 했다”면서 “주변을 돌리 볼 겨를도

없이 전담병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상 업무로 복귀하지만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야 하고 다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역할을 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병원 측은 총 355 병상 가운데 154병상은 코로나19 환자들을 준비하며 회합을 찾아가고 있다. 병원 운영에 더 근무하는 사원직 세(31)는 “모두들 정상 진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입상을 되찾는다는 생각에 기뻐 크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정상 진료를 위해 1개월 전부터 고강도 밀접·소독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병원 내부 세균 제로(0)’ 결과도 외부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았다. 이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하기 전 하루 평균 700여 명의 외래환자가 찾고 140여 명이 입원했다. 서 원장은 “당시 진료를 받았던 일반 환자들에게 정

상 진료 안내문자를 모두 보냈는데,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는 그동안 코로나19 환자 총 1027명이 입원했으며 10일 현재 11명만 남아있다. 933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61명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22명은 안타깝게도 치료 중 사망했다.

이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하는 동안 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정부에 이가운데 30여 원은 보충했으며 이달 말 추가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당시 많이는 국민이 용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며 감사하다”면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재개원 후에도 봉사와 헌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최전선’ 대구동산병원 115일 만에 정상화

확진자 1032명 입원, 937명 완치
남은 확진자 12명은 격리 치료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해 온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정상 업무로 복귀한 115일 전례를 맞으며 온 시민들에게 병원비를 안 볼 줄 아는 간호사 등으로 인해 감사의 편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 있었다. 방과 테코를 한 표시로 손에는 노란색 스타를 붙였다. 나중 위생감사원에서는 환자 조력자 번호표를 받고 소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진료를 받으러 온 김근배(60)씨는 “병원에 와 보니 그동안 고생한 의료진과 노고에 피부로 느껴진다”와 “사랑할 때 보노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래환자 치료 할 때는 “코로나19와 같은 115일간의 사투” 사진전도 열리고 있었다. “당장 내일이 끝나는 자살자지만, 오늘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일은 끝나는 날이 아닐까”

구가 시민들의 노고를 불렀고 있었다. 수술실 외관(20) 간호사도 115일 동안 나날이 애를 먹었다. 그에게 확진자들이 격려하게 되려는 모습보다 더 많은 것은 없었다. 코로나 확산 초기 병원 측에서 입원자를 기피하며 입원을 꺼렸던 의료진도 퇴원자의 메소 한 방으로 사라졌다. 다른 기피도 없었다. 할머니와 아들, 손자 3대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한 후 아들이 먼저 완치됐으나 할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는 “과거로 두 번 죽었다고 봐야 할까 모르겠다. 할머니가 이제 다시 부르면” 대답하며 웃었다.

대구동산병원은 이날부터 응급실과 수술실, 인공신장실, 건강증진센터를 정상 운영하고 있다. 환자들에 관여를 위해 1~5층 15개 진료과로 지리도 재배치했다. 신종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 최대 465개 병상까지 늘어났던 입원실은 201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32명과 간호사 142명으로 정상 업무로 복귀했다. 호스피스 병동은 다른 날부터 10명씩이 들어온다. 병원 측은 이날 정상 선도를 위해 병원 전체를 한 달 동안 소독했다. 세균 검사도 외부 기관에 맡겨 이상 여부는 결과를 받았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병원 내 의료진과 파출과 중무대에는 자객을 위한 다중집회도 있었다. 카운터에는 정식으로 계명대 이사장과 신임의 재명도 출정 등을 비롯한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동산병원에서는 이날까지 확진자 1032명이 입원해 치료받았고 93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12명은 격리 치료 중이다.

자발적 기부 독려했지만... 재난지원금 0.2%만 모여

총예산 14조원 중 282억 견혀
재정결약 효과 사실상 없어

중부가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 중 기부부를 통해 환원된 금액이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자발적 기부운동’을 통한 원인을 재원했다. 단조 의도한 지원금과 조하는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고흥도정부 상환 근로복지공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율 100%에 달한 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한 달간 ‘도입금’ 282억 2822만 100원(당연금 15일 분)을 2822만 100원(당연금 15일 분) 244999원(0.2%)에 달하는 금액이다. 중부 기부 건수는 192600건 평균 기부 금액은 1778882원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도 100%에 달한 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한 달간 ‘도입금’ 282억 2822만 100원(당연금 15일 분)을 2822만 100원(당연금 15일 분) 244999원(0.2%)에 달하는 금액이다. 중부 기부 건수는 192600건 평균 기부 금액은 1778882원이었다.

늘어난 이대기부금까지 포함해 총 기부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이미 지급대상 가구의 95.5%가 지원금을 받은 건 상환이 미흡한 데 따른 추가 기부액은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부금을 고령보장기금에 환원해 구제(실업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1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된 구제금(당연금 4조 원)에 달하는 등 긴급구제기금에 대한 상환, 당초 당국은 재난지원금 기부 유인이 전 국민으로 확산되면 고령보장기금도 증대하고, 정부와 소득 유익 70%가운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기부금원은 당초 예상보다 적어졌고, 기부금도 100%에 달한 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한 달간 ‘도입금’ 282억 2822만 100원(당연금 15일 분)을 2822만 100원(당연금 15일 분) 244999원(0.2%)에 달하는 금액이다. 중부 기부 건수는 192600건 평균 기부 금액은 1778882원이었다.

코로나 ‘2차 팬데믹’ 대비하자



동아 시론
조지 홈
계명대 동산병원장

역사적으로 인류와 감염병은 공존해 왔다. 14세기 중세 유럽을 초토화시킨 흑사병은 봉건제도 붕괴와 르네상스 발달을 가져왔고 16세기 천연두는 잉카와 아즈텍 문명을 파멸시켰다. 이 외에도 19세기 인도의 콜레라, 1918년 스페인독감,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 등의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인류는 팬데믹을 수차례 경험하며 그 감염병의 원인이 RNA 바이러스,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것을 밝혀냈고 백신으로 관리해 왔다.

지난날 팬데믹을 겪은 감염병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번 코로나19도 2차 대유행이 예견되기에 우리는 대비책을 시작하게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11~2월에 활동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을부터 재유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여름에는 체외로 나온 비말에 묻은 바이러스가 높은 온도에 빠르게 건조되고 자외선으로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코로나19는 습기에 더 민감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처럼 적도와 가까운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그 예다. 또 겨울이 다가올수록 밀집 접촉이 많아지는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2차 팬데믹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다수의 제약회사가 개발 중이지만 실용화는 최소 내년 여름은 되어야

가능하리라고 짐작된다. 백신 등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유행의 확산세를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방역 조치로 적절히 대응하고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도 해야 한다.

아울러 대응 초반에 경험했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대처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의 2월 상황을 되돌아보면 입원병실이나 감염시설이 5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월 말 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다. 생자의 전환이 필요했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중증도의 환자를 담당하고,

2월 대구, 분할치료를 의료진 부족 극복

일관된 소통과 민간 의료 투자가 중요

데이터 축적하고 진료지침 공유해야

삼강종합병원은 최중증 환자와 코로나19 외의 중환자를 보는 영역별 환자의 분할 체계를 갖췄다. 분할 전담화는 의료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줄이고 장비의 집중화가 가능하게 한다. 또 경험에서 비롯된 환자별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 환자 분류법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위험도가 낮은 스코어의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나 자가 격리방식으로 충분히 조정되기에 의료 자원의 남비를 줄일 수 있다.

의료 인력 중에는 간호사의 중요성이 크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중증도 환자가 10%가량 중환자로 진행되므로 숙련된 간호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대구동산병원은 2차 병원이라 숙련도 높은 간호 인력이 부족했다. 모(母)병원인 계명대 동산병원은 약 1300명의 간호 인력에서 20만 차 이상된 60여 명을 초기

에 빠르게 지원 시켰다. 이번 3월에는 분과와 의사 전담 정보에 의 배경을 쌓았을 성이 높을 민간 의료보, 단위로 의료 지원에 상황 의료 지원 현장으로 전담하는 형상을 노리는 것이다. 그러나 중환자 관리에 대한 결정을 볼 때 향후의 유행은 잘 이겨내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지만 RNA 바이러스의 특징이 변화무쌍하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2월의 팬데믹은 예상 없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 진심 어린 격려와 후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고향을 떠나 타 지역까지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어려움을 잘 이겨낸 시민들과 의료진 모두 한마음으로 지원한 덕분에 대구경북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 전담’ 대구동산병원, 115일 만에 정상진료 시작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확진환자를 치료해 온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115일 만인 15일부터 정상진료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대구동산병원 의료신교박물관 개원 100주년 기념 종합에서 참석자들이 정상진료를 축하하는 타종교를 하고 있다. 대구동산병원은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으며 정상진료를 위해 고강도 멸균·소독 작업 등을 실시했다.

대구뉴스

K방역 후유증 대구 코로나 전사들, 이대론 2차유행 감당 못해

논설위원 파워 인터뷰

김 권 배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장

광복 이듬해인 1946년 한반도는 전염병이 휩쓸었다. 연초부터 천연두와 발진티푸스가 나들기 시작하더니 뒤따라 콜레라마저 창궐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부산항으로 귀국한 동포들에 의해 전파된 콜레라는 특히 대구경북 지방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해 5월 경북 청도에서 첫 콜레라 환자가 나온 이후 이웃한 대구는 전국적으로 발병률 1위, 사망률 1위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74년 후인 올해 2월, 중국발 코로나19가 청도와 대구의 신천 지교회 교인들을 집단 감염시켰다. 대구는 또다시 전염병과의 전쟁 최전선이 됐다. 대구는 2, 3월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해 수도권보다 많은 6900여 명의 누적 확진자(7월 5일 기준)를 기록했다. 그러나 두 사태의 결과는 매우 다르다. 70여 년 전 대구는 콜레라 창궐로 민심이 흉흉해졌고 좌익의 선동에 의한 10·1사태를 겪었지만,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K방역의 모범 기지가 됐다.

콜레라 창궐 당시 퇴치 선포에 섰던 대구 동산 병원(동산기독병원)의 후신 계명대 동산의료원도 이번엔 큰 주목을 받았다. 동산의료원은 헌신적이고 발 빠른 대처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 언론으로부터 대우의 대상이 됐다. 감염병 전쟁의 최전선 사령관인 김권배 동산의료원장(69)을 만났다. 그는 계명대동산병원(대구) 당시 구 신당동 소재)과 그 분신 격인 대구동산병원(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을 통합 지휘하고 있는 의료 책임자다.

환자 찾지 않는 '코로나 병원'

“병원 방문자들이 손 소독과 열 체크를 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는 것 빼고는 대구동산병원 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다.”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 나갈 때 우리 의료원은 대구동산병원을 비롯해 비외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대구 지역 감염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따라 115일 만인 6월 15일부터 예전 상태로 복귀했다. 현재 외래환자들이 오가는 병원 본관은 한 달간의 고강도 밀군과 소독 작업을 거친 끝에 정상 가동되고 있다.”

동산의료원은 7월 5일 기준으로 확진자 1058명 중 964명(91%)이 완치돼 퇴원했고, 22명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구동산병원에 입원 중인 11명의 확진자는 본관과 분리된 병동에서 별도로 치료받고 있다. 본관 1층 로비에 전시된 ‘코로나19와 발인 115일간의 사투’라는 제목의 현상 사진들이 당시 치열했던 전쟁을 엿보게 한다.

“병실을 찾으면서 ‘코로나 병원인데 편찮을까’ 하는 걱정도 솔직히 없지 않았다.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후유증이 아직도 있다. ‘오염병원’이라는 오해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어선지 코로나19 이전 하루 700명 수준으로 외래환자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병원이라는 치명적인 이미지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나선 이유는…”

“우리 의료원의 설립 이념과 역사적 소명 의식 때문이다. 120년 전 기독교 선교사들이 복음과 함께 의술을 펼치기 위해 병원을 세운 이후, 우리 의료원은 지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과 사명감으로 일해 왔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의료원은 지역 감염병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극복해 왔다.”

동산의료원의 역사는 대한제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9년 의료선교사 우드브리지 존슨(1839~1961)이 대구 중심지인 약전골목에 ‘미국 약방’을 세워 약을 나눠 주게 시작이다. 이후 정식으로 재중의료(濟中醫院)이라는 병원을 내건 존슨 선교사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천연두 예방 백신과 학질(말라리아) 치료제를 보급하고, 한센병 환자 구제 사업과 풍토병 치료에 앞장서는 등 감염병 치료에 집중했다. 재중원은 1903년 현재의 대구동산병원 자리로 옮긴 후 ‘동산병원’으로 불렸고, 1980년 계명대와 통합해 계명대 동산의료원으로 탈바꿈한 뒤에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겨울에 2차 팬데믹 예상돼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사람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은 경험 때문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 왔고 꾸준한 방역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대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상생활에서 거리 두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 추가 전파를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다.”

“곧 귀가할 것이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출여름은 평년보다 폭염이 잦을 것으로 전망되고, 휴가 시즌은 해수욕장 개장 등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시기여서 우려된다. 밀집·밀폐된 공간은 코로나19의 온상지라고 여겨야 한다.



김권배 계명대 동산의료원장은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 투자 및 지역 단위별 사전 훈련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제공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덥고 불편하더라도 최소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2차 팬데믹도 거론하는데…”

“우리 의료원은 25명의 감염병 관련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이분들에 따르면 대체로 2차 유행이 올 가을에 시작돼 11월~내년 2월경 정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고강도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방역 등의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2차 팬데믹이 오면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대구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대구가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찾게 된 것은 빠른 검체 검사 덕분이다. 신속한 검사 및 결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자 추적 등을 통해 방역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2차 팬데믹이 닥칠 경우를 대비해서도 대량 검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아야 한다. 또 막상 재유행이 닥치면 공공 의료기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의료 자원의

김권배 의료원장은

- 경북고, 경북대 의대
- 계명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 계명대동산병원 실험연구소 소장
- 대구경북병원회 회장
- 계명대동산병원장
- 한 계명대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
- 원 (사)동산의료연구재단 이사장

는 한 달 이상 의료 봉사를 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다.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코로나19 위기를 잘 넘겼다고 생각한다.”

김 원장은 이렇듯 남기지 않은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밀려드는 환자에 비해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던 상황에서 5분만 움직여도 맘을 비 오듯 흘러가 되는 발호복을 입고서 환자 이동 및 간호 보조, 식사 배식 등 힘든 일을 기꺼이 맡아 하고서는 유유하 사라진 이들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던 그들이야말로 코로나19의 진짜 영웅”이라는 것이다.

“의료진이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예도도 들린다.”

“지금까지 10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특히 간호사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계명대동산병원에서 대구동산병원으로 파견나간 수간호사는 장갑을 오래 착용한 나머지 손바닥에 피부병이 생겼다. 20대 간호사는 극도의 피로감과 감염 공포 등으로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고군분투해 온 의료진은 번아웃(burnout)도 무렵감이 클 수 있다. 자신들이 소모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된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 그리고 적절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감내한 손실과 보상은 어떻게 됐나.”

“대구동산병원은 5월 말까지 약 120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손실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계산금으로 약 38억 원을 받았다. 민간병원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보상 정책이 향후 민간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대구동산병원에는 대구 3:1운동을 상징하는 3:1운동을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 만세운동의 불을 지폈던 곳이다. 어려움이 닥치면 힘을 합치는 한국인의 DNA가 응축된 이곳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낸 대구의 자력, 그리고 한국인의 자력을 되새겨 보았다.

언명록 논설위원
ojong@donga.com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적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도권에서 이미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따라서 민간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지역 단위별 사전 훈련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

K방역의 숨은 영웅들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인 대구 사람들의 시민 의식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을 당시 우리 의료진은 24시간 대기 상태로 기진맥진했다. 그런 의료진에게 ‘우리 대구시민은 대구동산병원을 잊지 않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을 힘내세요’ 등의 격려와 응원 메시지는 지친 몸을 일으켜 주는 힘이 됐다. 의료진은 각계의 정성이 담긴 마스크, 체온계, 무전기, 과일, 커피 등 기부 물품을 보면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또 대구시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간호사 등 400여 명이 우리 병원으로 달려와 자원 봉사를 했다. 한 의사

“코로나와 싸우는 모든 병원에 주어진 상”

반체 총력 실천대상 대구동산병원

2월 21일 자발적으로 병원 전체를 코로나 전용 치료 시설로 전환
“모든 의료진이 ‘못 한다’가 아닌
‘안 하면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해”



방주가 돼야 한다는 결의로 모든 직원이 코로나 퇴치에 앞장섰고, 대구 지역의 코로나 감염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이번에 저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만해실천대상’을 수상하지만 이 상이 저희만을 위한 상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든 병원에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 만해대상 실천부문을 수상하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서영성(56·작은 사진) 원장은 “나라가 어려운 이때 만해한용운 선생님의 정신은 대한민국 모든 병원에 다시 한번 병원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 환자가 대구 전역에 검진을 수 없이 늘어나자 지난 2월 21일 자발적으로 병원 전체를 코로나 환자 전용 치료시설로 전환, 민간병원으로는 유일하게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다.

코로나 환자를 살리기 위한 사투를 진두지휘한 서 병원장은 “대구의 노아의

자평했다. 실제 1000명이 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가 120일 넘도록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웠다. 눈 붙일 틈도 없이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전국에서 의료품과 도시락, 그리고 응원의 손 편지들이 배달됐다. 각지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은 “이곳이 성지(聖地)”라며 구슬땀을 흘렸다.

서 병원장은 “지난 6월 30일까지 1047명의 코로나 환자가 대구동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958명이 퇴원했지만 22명이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대구 지역 코로나 환자의 13%, 국내 코로나 환자의 9%를 차지한다. 전국 어느 병원에서 도 이처럼 많은 숫자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 곳은 없다.

서 병원장은 “2월 21일 병원 전체를 비우고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였던 당시 우리 의료진들은 ‘못 한다’가 아니라



오종찬 기자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지난 3월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이 근무 교대하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 2월 21일 자발적으로 전체 병원을 비우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와 사투를 벌였다.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각오로 환자 치료에 들어갔다”고 당시의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환자의 중증도를 가려 중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를 선별해 대응하는 생활치료센터를 탄생시키는 역할도 했다.

그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병원인 동산의료원 전체 의료진들이 합심해서 팀워크를 발휘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동산의료원은 1899년 개신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대구 제증원을 전신으로 해서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으로, 6·25전쟁 당시에는 고아들을 돌보는 야전병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위난에 처했을 때마다 앞장서서 어려움을 이기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서영성 병원장은 “지금도 수많은 병원과 의료진이 자신을 희생하며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만해대상이 대한민국 모든 병원과 의료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구 = 박원수 기자

코로나 방역 신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의료진 감염 없이 166일만에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활약한 대구

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이다. 누적 확진자는 모
981명, 전원 64명, 사
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
해왔다.

대구시는 최근 33일
나 발생 환자가 0명을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받았다. 계명대 대구동
2월 21일 감염병 전담
다. 대구의 첫 확진자
지정 당일 확진자 2명
튤날인 22일 51명, 23
명으로 입원 확진자가
가했다. 지금까지 대구
서동산병원에서 코로
투입된 의료진은 총 4
그러나 단 한 명의 의
하지 않아 의료계에서
음이 잇따랐다.

병원은 감염병 전담
기존 216개 병상을 최
늘려 운영해 왔다. 최
감소하면서 격리병동
으로 154병상을 유지
15일에는 정상 개원
가 시작됐다. 계명대
은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도 철저한 방
역체계를 유지하면서 대구시 지역감
을 예방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
다”고 밝혔다. 대구=박원수 기자

“121년 나병·콜레라와 싸운 병원, 코로나에 맞섰다”

만해충전

실천대상 받은 대구동산병원
“역사 한페이지 장식, 자부심 느껴”

‘평화대상’ 포티락 스님은 영상보내
“함께 지속적인 평화 만들자”
태국에 시상식 유튜브 생중계도

“2월 21일 갑자기 환자가 급격히 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구동산병원은
자발적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이 됐습니
다. 누구도 코로나19가 어떤 병인지 모
르는 상황이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1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늘
내린센터. 만해실천대상 수상자인 대구
동산병원 서영성 병원장이 수상 소감을
통해 코로나19가 급습하던 상황을 설명
하자 장내는 숙연해졌다.

“첫 환자가 발생한 다음 날 51명이 한
꺼번에 입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환자를 돌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경험 많은 수
간호사들과 감염 전문 의사들이 먼저 뛰
어들었습니다. 이어 계명대의 전 구성원
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첫 일주일엔 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두려움도
어려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구동산병원은 지난 8월 4일 전담병
원에서 해제될 때까지 총 166일 동안 코
로나와 사투를 벌였다. 서 병원장이
“166일 동안 누구도 감염되지 않은 것은
우리 병원의 자랑”이라며 “121년 전 미
국 선교사들이 병원을 설립한 이래 나병
과 콜레라, 장티푸스 등과 싸워왔는데 그
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돼 자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 만해대상 시상식. 왼쪽부터 우병렬 강원도 부지사, 윤성이 동국대 총장, 태국 아속 공동체 설립자 포티락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재가자 대표 캔파씨(평화 부문), 서영성 대구동산병원장, 원형 조계종 총무원장, 신악인 임홍길씨(실천 부문 공동 수상), 소설가 김주영씨와 시인 신달자씨(문예 부문 공동 수상), 강현석 조선일보 논설고문, 최상기 인제군수.

부심을 느낀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만해대상 시상식장에서는 각자
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업적을 쌓아온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이 큰 감동을 일으
켰다. 만해평화대상 수상자인 태국의 아
속공동체 포티락 스님은 5분짜리 동영상
으로 수상 소감을 보내왔다. 동영상에서
포티락 스님은 “비록 지구상의 다른 곳
에 있지만 만해대상과 아속공동체는 평
화를 향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의 관계가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사명감으로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은 태국에 유튜브로 생중계
돼 태국 전역의 9개 아속공동체 구성원
들이 함께 시청하기도 했다.

또 문예대상 수상자인 소설가 김주영
씨와 실천대상 수상자 임홍길씨의 각별
한 인연이 소개돼 화제가 됐다. 임홍길씨
가 히말라야 16좌 등반을 마치고 휴먼재
단 설립을 구상하던 2007년 김주영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던 파라다이스재단으
로부터 특별공로상을 받았다는 것. 임씨
는 “그때 상금을 바탕으로 휴먼재단을
만들 수 있었고, 네발의 어려운 어린이들
을 돕기 시작했다”며 “복(福) 중의 최고
가 ‘인연의 복’”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해축전 총재인 조계종 총무원
장 원형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마땅히 해
야 할 일을 하자”고 강조했다. 원형 스님
은 3·1운동을 주도해 투옥된 만해 선생
이 법정 최후 진술에서 “우리들은 우리

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사자후를 토한 것
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종 전염병에 맞서 강한 희생을 하는 세
계의 모든 의료진은 만해 스님과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는 것”이라며 “세계인
들이여, 만해를 배움시다”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근배·오탁번·이광
복·이상문·유자호·박시교·유성호·김영
재·윤호·김지현·이혜선씨 등 문인들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양수 미
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행사를 주최한 우
병렬 강원도 경제부지사, 최상기 인제군
수, 윤성이 동국대 총장, 강현석 조선일
보 논설고문 등이 참석했다.

인제=김한수 기자

포토뉴스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 치료 거점병원 지정 / news1 /
2020-02-21 / 대구/경북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선정 / NEWSIS / 2020-02-22 /
종합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 NEWSIS /
2020-02-23 / 종합



'코로나19'확진자 치료 병상 확보 위해 환자 이송 / news1 /
2020-02-21 / 대구·경북



[포토뉴스]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환자 이송 / 매일신문 /
2020-02-23 / 종합



[포토뉴스] "코로나19 막아라" ...대구동산병원 코로나 전사들, 치료
대책회의 / 매일신문 / 2020-02-24 / 종합

포토뉴스



코로나19와 사투 벌이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 news1 / 2020-02-24 / 대구·경북



[포토뉴스] 코로나19 진료 폐기물 옮기는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 매일신문 / 2020-02-24 / 종합



동산병원으로 들어가는 확진자 / 영남일보 / 2020-02-25 / 사회



[포토뉴스]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안으로 투입되는 '위대한 전사들' / 매일신문 / 2020-02-26 / 종합



"코로나19" 진료에 사용했던 폐기물 방역작업 하는 의료진 / NEWSIS / 2020-02-27 / 종합



'코로나19'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찾은 황교안 대표 / news1 / 2020-02-27 / 대구·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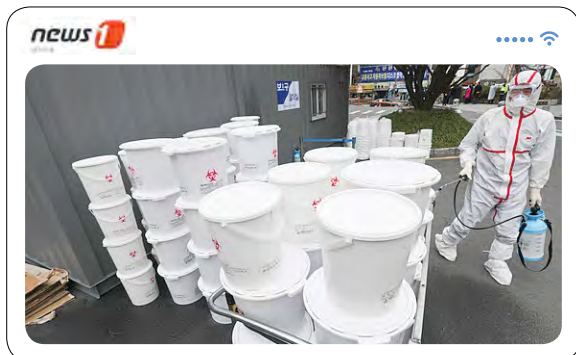
포토뉴스



[포토뉴스] 코로나19 환자 대구 가파른 증가세...대책본부에 모인 의
료진 / 매일신문 / 2020-02-27 / 종합



코로나19와 밤새도록 싸운 전사의 얼굴 / news1 / 2020-02-27 /
대구·경북



밤사이 쌓인 코로나19 의료폐기물 / news1 / 2020-02-27 /
대구·경북



‘코로나19’에 맞선 의료진들...“당신은 영웅” / news1 /
2020-02-27 /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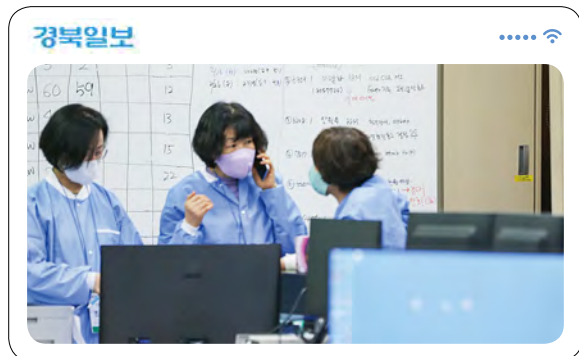


[포토뉴스] 코로나19 싸우는 의료진 힘내세요 / 매일신문 /
2020-02-27 / 종합



[포토] 대구 동산병원 폐기물 방역작업 / 경북일보 /
2020-02-27 / 종합

포토뉴스



[포토] 대구 동산병원 "피곤하고 두렵지만...사명감으로" / 경북일보 / 2020-02-27 / 종합



[포토뉴스] 코로나19 치료할 '간호사 너무 부족'... 애타는 간호사를 / 매일신문 / 2020-02-28 / 종합



[사진] 힘내라 대구, 힘내라 동산병원...응원 손길 / 현대건강신문 / 2020-02-28 / 보건·의료



[포토] 계명대 동산병원·대구동산병원에 응원의 손길 이어져 / 메디파나뉴스 / 2020-02-28 / 보건·의료



[포토] '오늘도 수고했어'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근무교대 풍경 / 오마이뉴스 / 2020-02-28 / 종합



'코로나19 확산' 선별진료소 지키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의료진 / news1 / 2020-02-28 / 대구·경북

포토뉴스

每日新聞



[포토뉴스] "자원봉사 왔습니다"...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찾은 간호사 / 매일신문 / 2020-02-28 / 종합

간호사신문



[현장사진]코로나19 최전선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사들 / 간호사신문 / 2020-02-29 / 종합

news1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서 3명 퇴원...완치자 7명으로 늘어 / news1 / 2020-02-29 / 대구·경북

경북일보



[포토] 안철수 대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진료 자원봉사 / 경북일보 / 2020-03-01 / 종합

new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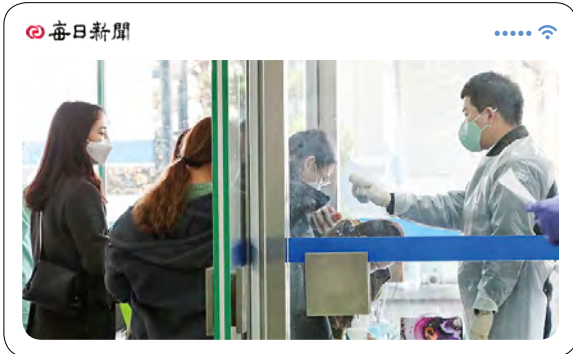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찾은 안철수 대표 / news1 / 2020-03-01 / 대구·경북

new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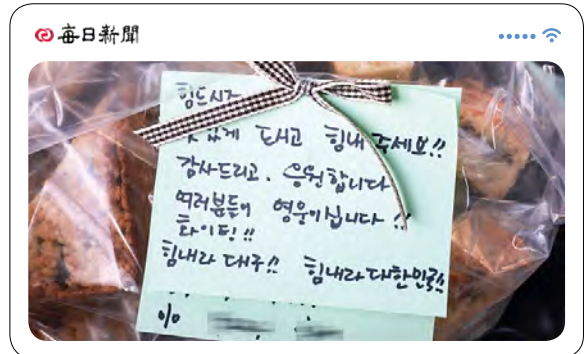


시민 온정 쌓이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 news1 / 2020-03-02 / 대구·경북

포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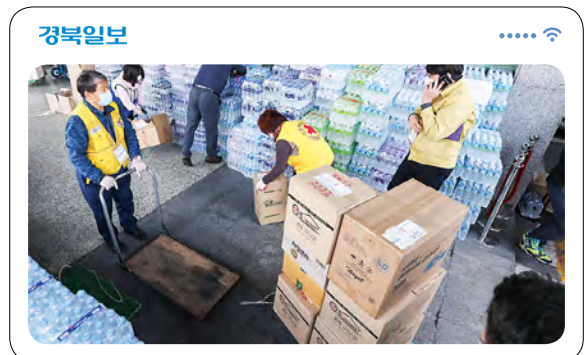
[포토뉴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거점병원에 속속 자원봉사 나오는 간호사 / 매일신문 / 2020-03-02 / 종합



[포토뉴스] "코로나19,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고맙습니다" / 매일신문 / 2020-03-02 / 종합



[포토뉴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 '범벅' / 매일신문 / 2020-03-03 / 종합



[포토]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는 택배들 / 경북일보 / 2020-03-03 / 종합



[포토] '살신성인 밴드'...진료 마친 의료진의 빛나는 훈장 / 서울신문 / 2020-03-04 / 사회



[포토] '치열한 사투의 흔적' / 브릿지경제 / 2020-03-04 / 종합

포토뉴스

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브릿지경제



[포토] 밤낮 없는 코로나19와의 사투 / 브릿지경제 / 2020-03-04 / 종합

중앙일보



[포토] 당신의 미소를 믿습니다 / 중앙일보 / 2020-03-04 / 사회

대구일보



모두가 잠든 밤... 밤새 사투벌인 의료진의 휴식 / 대구일보 / 2020-03-05 / 종합

영남일보



"의료戰士들에 삼계탕 대접" / 영남일보 / 2020-03-05 / 종합

연합뉴스



대구동산병원, 산모 확진자 전용 진료실 마련 / 연합뉴스 / 2020-03-05 / 사회

每日新聞



[포토뉴스] 일반 응급 환자 코로나19 검사 먼저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매일신문 / 2020-03-05 / 종합

포토뉴스

경북일보



[포토] 대구 방역업체 끝없는 사투 / 경북일보 / 2020-03-05 / 종합

news 1



힘내라 대구! 힘내라 의료진! / news1 / 2020-03-05 / 대구·경북

news 1



‘꽃샘추위까지’ 코로나 사투 의료진 이종고 / news1 / 2020-03-05 / 대구·경북

연합뉴스



지역거점병원에 쌓이는 온정의 손길 / 연합뉴스 / 2020-03-06 / 사회

NEWSIS



방호복 착용하는 야간 근무 의료진 / NEWSIS / 2020-03-06 / 종합

연합뉴스



호흡 보호구 벗는 의료진 / 연합뉴스 / 2020-03-06 / 사회

포토뉴스



[포토뉴스] 코로나19 치료 '최일선' 전사들... '고군분투'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 매일신문 / 2020-03-07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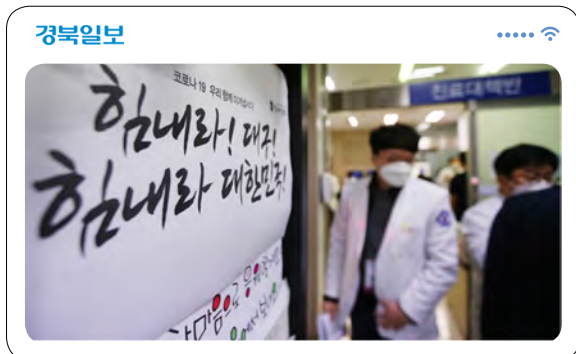
보호구 착용 서로 돕는 의료진 / 연합뉴스 / 2020-03-07 / 사회



[포토] 봄비 내리는 코로나19 대구 의료현장 / 경북일보 / 2020-03-10 / 종합



[포토] 격무 속에도... 간호사들 '밝은 표정' / 국민일보 / 2020-03-10 / 종합



[포토]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향한 응원... '힘내세요' / 경북일보 / 2020-03-10 / 종합



'코로나19 최전선' 대구동산병원과 사과나무 / 한국경제 / 2020-03-11 / 종합

포토뉴스

아주경제



[포토] 이마에는 '영웅의 훈장' / 아주경제 / 2020-03-16 / 종합

NEWSIS



땀에 흠뻑 젖은 의료진 / NEWSIS / 2020-03-16 / 종합

경북일보



[포토] 땀에 흠뻑 젖은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 경북일보 / 2020-03-16 / 종합

news1



퇴원 앞두고 의료진 주의사항 듣는 완치자 / news1 / 2020-03-16 / 대구·경북

한국일보



[포토] 코로나 완치 후 퇴원... 하늘 향해 번쩍 / 한국일보 / 2020-03-16 / 사회

NEWSIS



대구에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훈훈' / NEWSIS / 2020-03-16 / 종합

포토뉴스

每日新聞



[포토뉴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 매일신문 / 2020-03-16 / 종합

NEWSIS



"오늘도 묵묵히" / NEWSIS / 2020-03-16 / 종합

news1



"한국 의료진의 '엄지척'...세상 구하는 어벤져스" / news1 / 2020-03-16 / 종합

news1



'코로나19 한 달' 전국에서 날아든 의료진 응원 메시지 / news1 / 2020-03-17 / 대구·경북

news1



힘내라 대한민국! 파이팅! / news1 / 2020-03-17 / 대구·경북

NEWSIS



"붉은 온다" / NEWSIS / 2020-03-17 / 종합

포토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 NEWSIS / 2020-03-17 / 종합



신종 코로나 대구 발병 한 달 “파티팅 외치는 의료진” / NEWSIS / 2020-03-17 / 종합



[포토] 봄꽃 뒤로하고 병동으로 향하는 의료진들 / 경북일보 / 2020-03-17 / 종합



근무 교대하는 의료진 / NEWSIS / 2020-03-18 / 종합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 NEWSIS / 2020-03-18 / 종합



새로운 하루 시작하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 news1 / 2020-03-18 / 대구·경북

포토뉴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하루 / news1 / 2020-03-18 / 대구·경북



"당신들이 있기에" / NEWSIS / 2020-03-18 / 종합



"이제는 집으로" / NEWSIS / 2020-03-22 / 종합



[포토]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으로 / 한국일보 / 2020-03-23 / 사회



[포토뉴스] 대구 의료진을 향한 국민들의 '응원 편지' / 매일신문 / 2020-03-23 / 종합



"묵묵히 코로나19 최전선으로" / NEWSIS / 2020-03-24 / 종합

포토뉴스

每日新聞



[포토뉴스] 대구동산병원 찾은 세계보건기구(WHO) 의사들 / 매일신문 / 2020-03-24 / 종합

경북매일



백의 천사들의 웃음 / 경북매일 / 2020-03-25 / 종합

파이낸셜뉴스



WHO 자문위원단, 계명대 동산병원 방문 원더풀! / 파이낸셜뉴스 / 2020-03-26 / 종합

NEWSIS



"오늘도 코로나19 최전선으로" / NEWSIS / 2020-03-26 / 종합

브릿지경제



[포토] 밴드 투성이 얼굴일지라도 / 브릿지경제 / 2020-03-26 / 종합

NEWSIS



간호사들에게 깜짝선물 전하는 김제동 / NEWSIS / 2020-03-26 / 종합

포토뉴스

서울신문



[포토]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 서울신문 /
2020-03-26 / 사회

每日新聞



[포토뉴스] 봄비 속에 활짝 웃는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
매일신문 / 2020-03-26 / 종합

NEWSIS



"미소 천사" / NEWSIS / 2020-03-27 / 종합

每日新聞



[포토뉴스] 미국, 유럽이 한국 코로나 배운다...대구동산병원 의료진 /
매일신문 / 2020-03-27 / 종합

每日新聞



[포토뉴스] 다시 코로나19 전장 투입되는 의료진들 / 매일신문 /
2020-03-29 / 종합

NEWSIS



동산병원 의료진 "함께하는 동료" / NEWSIS /
2020-03-31 / 종합

포토뉴스



[포토] 코로나 최전선에서 '치열한 사투' / 경북일보 / 2020-04-01 / 종합



대구 OK / news1 / 2020-04-10 / 대구·경북



[아동 포토] 대구 의료진 격려하는 정 총리 / 아시아뉴스통신 / 2020-04-11 / 포토뉴스



병동 향하는 의료진 / 영남일보 / 2020-04-21 / 종합



[포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대구동산병원 방문 / 경북일보 / 2020-04-23 / 종합



[포토] 다시 대구 찾은 '의사 안철수' / 국민일보 / 2020-04-28 / 종합

포토뉴스

경북일보



[포토] 100일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싸움 /
경북일보 / 2020-04-28 / 종합

경북일보



[포토] 황금연휴에도 일하는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의료진 /
경북일보 / 2020-05-03 / 종합

NEWSIS



대구동산병원 의료진도 "덕분에 챌린지" / NEWSIS /
2020-05-06 / 종합

news1



코로나19와 싸우는 간호사들 / news1 / 2020-05-12 / 대구·경북

news1



'마지막 환자까지 최선을...' / news1 / 2020-05-21 / 대구·경북

每日新聞



[포토뉴스] 방호복 아닌 '간호복' 입은 간호사들...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일반진료 시작 / 매일신문 / 2020-06-16 / 종합

포토뉴스

서울신문



[포토뉴스] '코로나 전담' 대구동산병원, 115일 만에 정상진료 시작 / 서울신문 / 2020-06-16 / 사회

medipana



[포토]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사진전 개최 / 메디파나뉴스 / 2020-06-22 / 보건·의료

每日新聞



[포토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대구동산병원 방문 / 매일신문 / 2020-06-25 / 종합

NEWSIS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 대구동산병원 방문 / NEWSIS / 2020-08-11 / 종합

朝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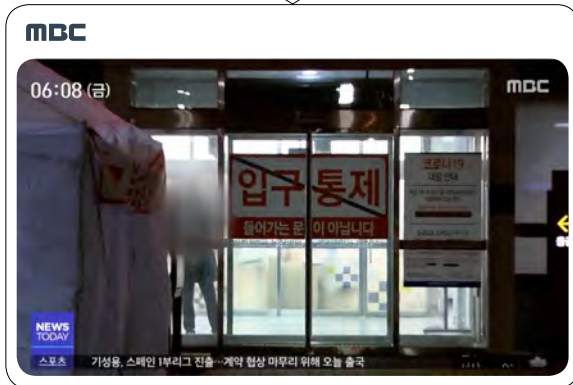
[알립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영웅들에게 만해대상 / 조선일보 / 2020-07-15 / 종합

한겨레



대유행 위기 코로나19, 대구에서 온 편지 / 한겨레 / 2020-08-21 / 사회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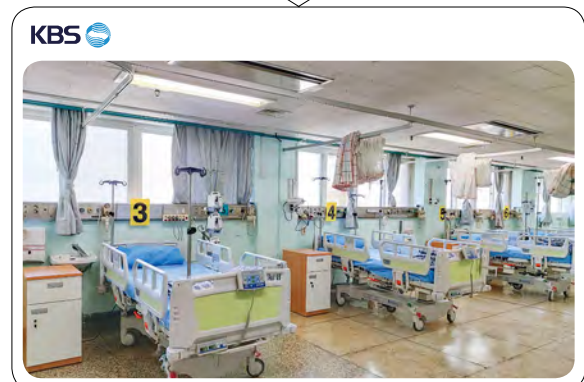
대구·경북 무더기 감염...“의심환자만 수백 명” / MBC / 2020-02-21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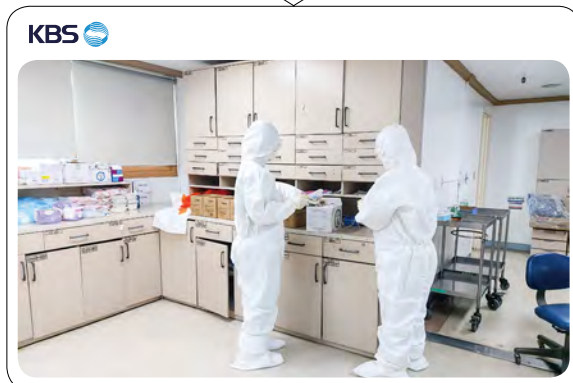
[현장영상] “대구시, 3월까지 계획된 다중 모이는 행사 취소·연기” / YTN / 2020-02-21 /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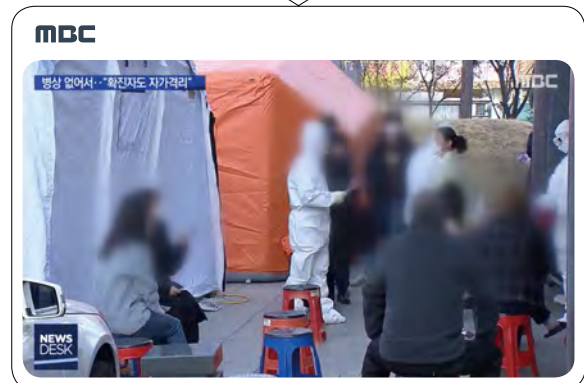
대구서 38명 추가 확진...“대부분 신천지 교인 관련” / JTBC / 2020-02-21 / 사회



대구의료원·대구 동산병원에 코로나 전용 병상 마련 / 대구KBS / 2020-02-21 / 대구/경북



의료공백 현실화...방역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대구KBS / 2020-02-21 / 대구·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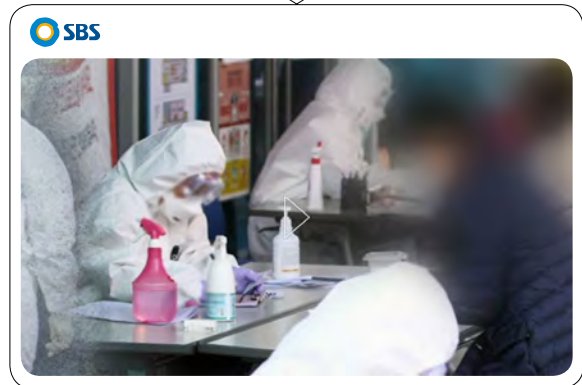


‘음압병상’ 없어 집에서 자가격리...선별진료소도 마비 / MBC / 2020-02-21 / 사회

방송



대구 의심환자 폭증 '진료소 과부하'...병실 부족도 심각 / 채널A / 2020-02-21 / 사회



일단 격리 병실부터...대구 입원 환자들 퇴원 조치 / SBS / 2020-02-21 / 경제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국민안전병원 운영 / KBS / 2020-02-21 / 사회



꽤 찬 음압병실...일반 병실에도 환자 수용 / YTN / 2020-02-21 / 사회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추가 확인...대구·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 KBS / 2020-02-22 / 종합



추가 환자 급증·2번째 사망자...병실 마련 '안간힘' / YTN / 2020-02-22 / 사회

방송

YTN



“대구 확진자 수 급격히 증가...공무원·간호사도 포함” / YTN / 2020-02-22 / 사회

TV
조선

확진자 폭증...계명대·동산병원에 500여개 병상 확보 / TV조선 / 2020-02-23 / 보건·의료

한국경제TV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 한국경제TV / 2020-02-23 / 사회

KBS



“대구지역 609개 병상 확보...1,000개까지 늘릴 계획” / KBS / 2020-02-23 / 종합

MBC



감염확산 ‘대구’...병상·의료진 확보 비상 / MBC / 2020-02-24 / 사회

법률
방송
뉴스

코로나19 ‘심각’ 단계의 법적 의미... 휴교명령, 통행금지, 강제조사 모두 가능 / 법률방송뉴스 / 2020-02-24 / 종합

방송



[코로나19] 대구 446명·경북 186명...치료 인프라 확보 돌입 / MTN / 2020-02-24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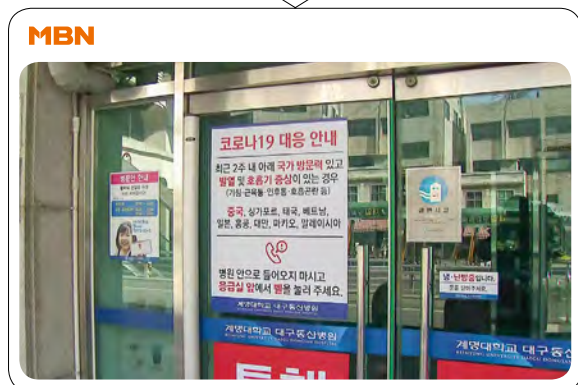
대구시 병상 520개 확보...국군대구병원 등 추가 예정 / MBN / 2020-02-24 / 사회



[생방송 심야토론] 지역사회 확산, '코로나19' 새로운 대응전략은? / KBS / 2020-02-24 / 종합



대구·경북 142명 추가 확진...지역 의료기관 비상 / YTN / 2020-02-24 /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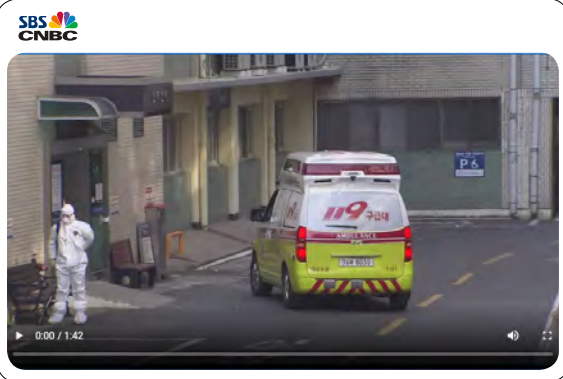


정부, 병상 1천600개 확보·신천지 전수조사...코로나 19 "총력전" / MBN / 2020-02-25 / 사회



[영상] 아...누리꾼 올린 사진 한 장 "힘내세요! 대한민국 의료진" / 연합뉴스TV / 2020-02-25 / 사회

방송



대구·경북 확진자 67명 늘어... "추가병상·인력지원 절실" / SBS_CNBC / 2020-02-25 / 종합



[뉴스초점] 코로나19 국내 확진 977명... "이제 실질적 대유행" / 연합뉴스TV / 2020-02-25 / 사회



식당 흥보 나선 시민들... "힘내라 대구" 응원 물결 / JTBC / 2020-02-25 / 사회



대구 의료진들 "인력도, 장비도 부족...도와주세요" / SBS / 2020-02-25 / 사회



대구·경북, 확진자·사망자 수 지속적 '증가' / KBS / 2020-02-26 / 사회



[뉴스해설] 힘내요 대구경북... 이어지는 응원의 물결 / KBS / 2020-02-26 / 사회

방송

KBS



“한 명이 2~30명 환자 담당”...의료진, 병상 태부족 / 대구KBS / 2020-02-26 / 대구/경북

SBS



대구·경북 지키는 의료진과의 화상 인터뷰 “방호복, 마스크 5일 치 밖에...” / SBS / 2020-02-26 / 사회

jtbc



대구, 격리된 의료진만 200명...“병상 있어도 의사가 없다” / JTBC / 2020-02-26 / 사회

TV 조선



284명 추가 확진, 총 1261명...37일 만에 1천명 넘어 '대유행' / TV조선 / 2020-02-26 / 사회

KBS



“의료진 한 명이 20~30명 환자 담당”...병상도 태부족 / KBS / 2020-02-26 /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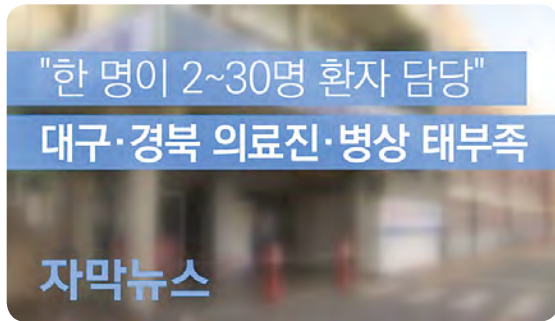
KBS



대구 1명 추가 사망...확진자 첫 퇴원 / KBS / 2020-02-26 / 사회

방송

KBS



[자막뉴스] "한 명이 2~30명 환자 담당"...의료진, 병상 태부족 / KBS / 2020-02-26 / 종합

SBS



국내 추가 확진 284명·총 1,261명...증가 폭 가장 커 / SBS / 2020-02-27 / 종합

JTBC



"병상 있어도 의사가 없다"...대구 의료진 200명 격리 / JTBC / 2020-02-27 / 사회

MBC



황교안, 대구 방문...동산병원·서문시장·시청 점검 / MBC / 2020-02-27 / 종합

KBS



대구 코로나19 1명 또 퇴원, 완치 2명 / 대구KBS / 2020-02-27 / 대구·경북

SBS



대구 병상확보 초비상..."집에서 대기 확진자 수백 명" / SBS / 2020-02-27 / 종합

방송

연합뉴스TV



대구 동산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총 232명 / 연합뉴스TV / 2020-02-27 / 사회

YTN



대구·경북서 280명 추가 확진... "병상·의료진 부족" / YTN / 2020-02-28 / 사회

JTBC



[인터뷰] "의료현장 신속대응 위해 결정 권한 확대 필요" / JTBC / 2020-02-28 / 사회

MBN



하루 450명 확진에 대구 '야전병원 방불'... 의료진 탈진 속출 / MBN / 2020-02-28 / 종합

CHANNEL A



확진자 늘어가는데...대구엔 구급차·방호복 턱없이 부족 / 채널A / 2020-02-28 / 사회

TV조선



쪽잠 자는 의사·간호사들 피로 누적... "의료진 방호복도 바닥" / TV조선 / 2020-02-28 / 보건·의료

방송

KBS



정 총리 “3월초 2천2백여 병상 입원 가능...특단 대책 필요” / KBS / 2020-02-28 / 종합

YTN



의료진 24시간 돌보지만 역부족...“특히 간호 인력 시급” / YTN / 2020-02-29 / 사회

TV
조선

대구 입원대기 1304명...“확보 병상, 환자 증가세 못 따라가” / TV조선 / 2020-02-29 / 사회

YTN



“경증 무증상 코로나19 환자 80%...퇴원 매뉴얼 필요” / YTN / 2020-02-29 / 사회

YTN



안철수, 대구 코로나19 전담병원 방문...“진료 과정 참관” / YTN / 2020-03-01 / 사회

KBS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대구에서 의료 봉사 / KBS / 2020-03-01 / 종합

방송

MBN



"코로나19"와 사투하는 대구 의료진...의사 실신하기도 / MBN / 2020-03-02 / 사회

MBN



대구동산병원 이틀째 의료 봉사 중인 안철수 "덥고 힘들다" / MBN / 2020-03-02 / 사회

MBN



대구 다녀온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너무 열악하다" / MBN / 2020-03-02 / 종합

MBC



"도울 수 있어 다행"...대구로 향하는 백의의 천사들 / MBC / 2020-03-02 / 사회

연합뉴스TV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에게 듣는 현재 상황 / 연합뉴스TV / 2020-03-03 / 사회

JTBC



의료진 위한 기부 행렬...코로나 맞서는 '응원 백신' / JTBC / 2020-03-03 / 사회

방송

KBS



[영상] “우리도 두렵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기에 힘을 냅니다”
대구동산병원 ‘백의의 천사들’ / KBS / 2020-03-04 / 종합

중앙일보



[영상] 대구로 달려간 20대 간호사의 감동 손편지...응원합니다! /
중앙일보 / 2020-03-05 / 종합

TBN



국립중앙의료원, 대구동산병원에 의료인력 20여명 파견 / TBN /
2020-03-10 / 종합

KBS



음성 나오다 양성...판정 반복 왜? / 대구KBS /
2020-03-13 / 대구·경북

법률방송 뉴스



이 사진을 보라... AFP “대구 간호사들 얼굴의 반창고는 명예의 배지”
/ 법률방송뉴스 / 2020-03-14 / 종합

SBS



정 총리 “대구·경북 저력 확인...코로나19 싸움에서 큰 힘 될 것” /
SBS / 2020-03-14 / 정치

방송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코로나19 치료시설 확충 / 티브로드 / 2020-03-16 / 대구·경북



오늘도 환자 곁에 있는 의료진... "엄마가 사랑한다" / YTN / 2020-03-17 / 사회



"간호인력 두 배 필요"...요양환자 대책 시급 / 대구KBS / 2020-03-18 / 대구·경북



[신동욱 앵커의 시선] 그래도 봄은 온다 / TV조선 / 2020-03-18 / 사회



코로나19 중환자 증가 이제 시작, 총력지원 절실 / CTS기독교TV / 2020-03-19 / 종합



코로나 사망자 94명...수도권·해외입국 확진 증가 / MBC / 2020-03-20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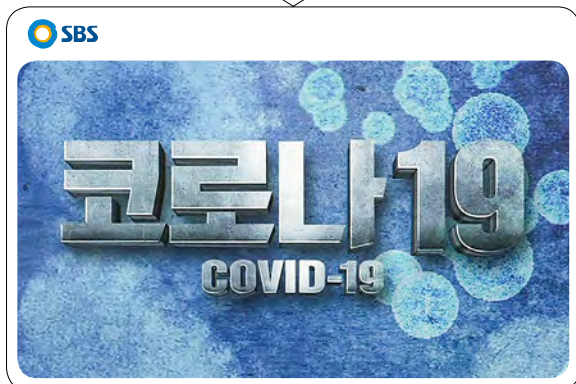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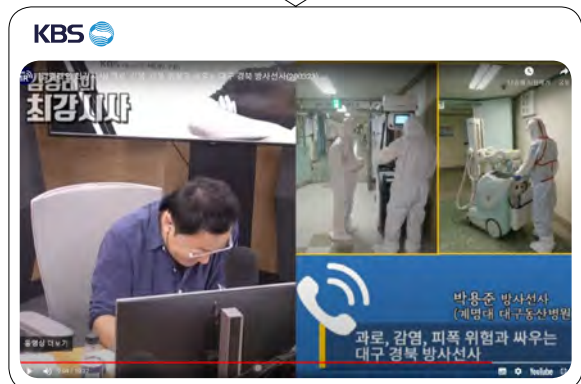
[피플 LIVE] '사투' 다녀온 의학전문 기자... '백의의 용사' 이진한 / 채널A / 2020-03-20 / 사회



'한달째 사투' 의료진 "빼앗긴 봄 돌려드릴 때까지 최선 다 할게요" / JTBC / 2020-03-21 / 사회



'코로나19' 111번째 사망자 발생...대구 김신요양병원 입원 환자 / SBS / 2020-03-23 / 종합



[최강시사] 방호복에 방사선 차단복까지...이중으로 힘든 대구 방사선사 / KBS / 2020-03-23 / 종합



더불어시민당 · 미래한국당, 오후 비례후보 발표...국민의당 '최연숙'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1번 / 불교방송-BBS / 2020-03-23 / 종합



중환자 치료 '에크모' 부족, 추가확보 시급 / KBS / 2020-03-23 / 사회

방송



고열·호흡 곤란 다 견뎌냈지만... "주위 시선 무서워" / MBC / 2020-03-24 /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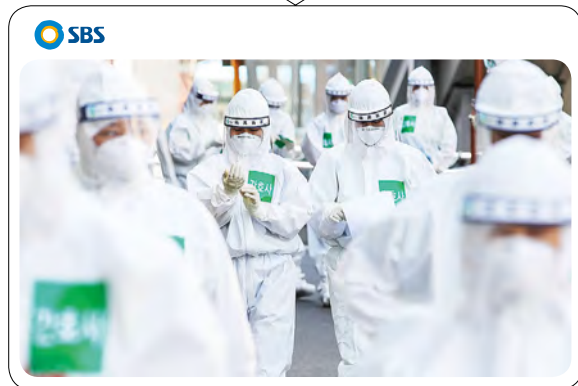
코로나19, 고령자 치명률↑...한달 넘게 바이러스 검출 / KBS / 2020-03-25 / 종합



<대구>교육청-지역 대학병원, 코로나19 공동대응 협약 체결 / 티브로드 / 2020-03-26 / 대구·경북



WHO 자문단 동산병원 진료체계 견학 / 대구KBS / 2020-03-28 / 대구·경북



'오늘도 파이팅입니다!...'방호복 입고 코로나 전장으로 / SBS / 2020-03-29 / 종합



WHO가 눈여겨 본 대구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극복 비법 / YTN / 2020-12-13 / 종합

특집방송

KBS



특집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 KBS1 / 2020-02-28

EBS



특집방송 <모금방송> / EBS / 2020-02-29

fbc 극동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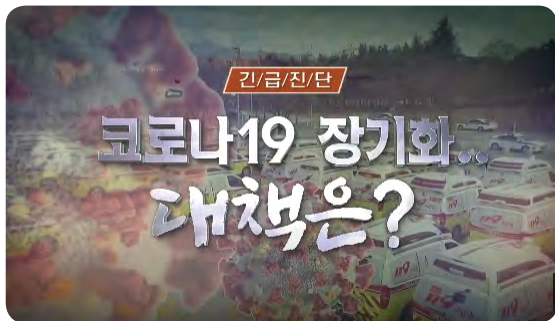
특집방송 극동방송 특별생방송 <사랑의 온정보내기> / 극동방송 / 2020-03-02

KBS



특집방송 대구로 달려온 그들 - 작은 영웅들과 함께 한 3일 / KBS / 2020-03-06

T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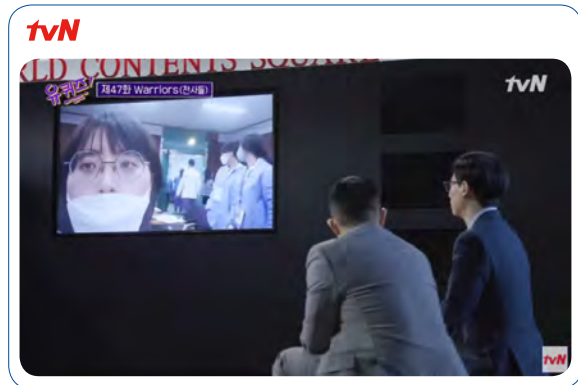
특집방송 긴급진단, 코로나19 장기화..대책은? / TBC / 2020-03-06

CTS



특집방송 대구지역 의료진, 코로나19에 맞선 노력 / CTS뉴스 / 2020-03-11

특집방송



특집방송 유 퀴즈 온 더 블록 - Warrior(전사들) / tvN / 2020-03-11



특집방송 <스페셜> 대유행을 저지하라 - 코로나19 최전선에서 / SBS / 2020-0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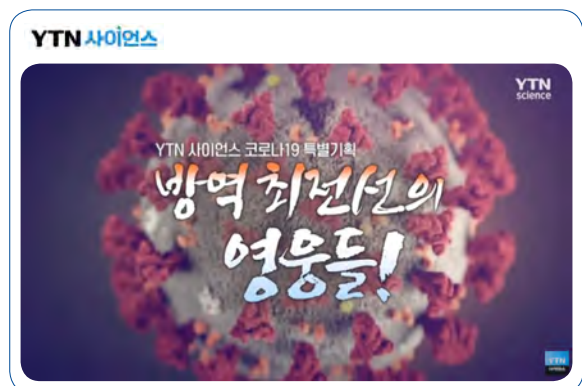
특집방송 코로나19 특집 - 2020, 대구의 봄 / 대구MBC / 2020-03-27



특집방송 굿데이 프라이데이 -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 / TBC / 2020-03-30



특집방송 코로나19 극복 특별생방송 EBS 함께합니다 / EBS / 2020-04-10



특집방송 방역 최전선의 영웅들! / YTN사이언스 / 2020-04-27

특집방송

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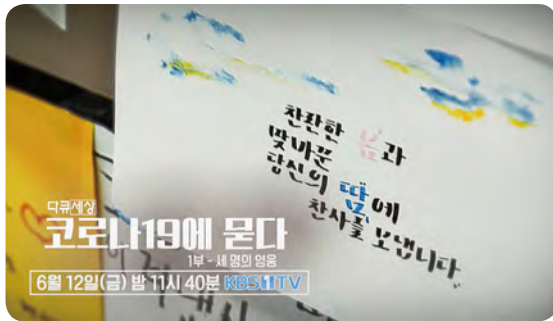
특집방송 시리즈M - 죽음 앞의 인간 / MBC / 2020-05-21

MBC B|B|C



특집방송 한국은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웠나 / MBC-BBC / 2020-06-06

KBS



특집방송 다큐세상: 코로나19에 묻다 1부, 세 명의 영웅 / KBS1 / 2020-06-12

JTBC



특집방송 '비긴어게인 코리아' 안전한 공연문화 '거리두기 버스킹' / JTBC / 2020-06-13

KBS



특집방송 KBS, 동산병원서 찾아가는 음악회 열어 / KBS / 2020-07-23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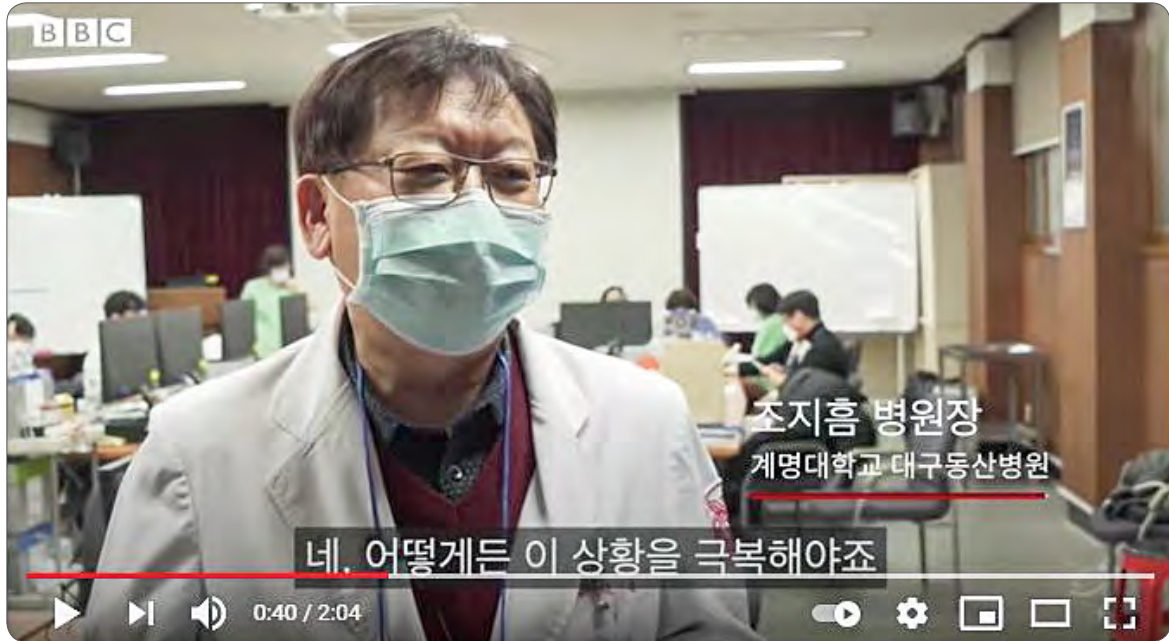


특집방송 코로나19 2차 팬데믹 공공의료 이대로 못 버틴다 / 시사직격 / KBS / 2020-09-04~05

외신

BBC

영국 BBC NEWS KOREA / South Korea: How to Fight Coronavirus / 2020-02-23



abc NEWS

미국 abc NEWS / Inside the epicenter of the South Korean coronavirus outbreak: Reporter's Notebook / 2020-02-24

Inside the epicenter of the South Korean coronavirus

abc NEWS

VIDEO

LIVE

SHOWS

CORONAVI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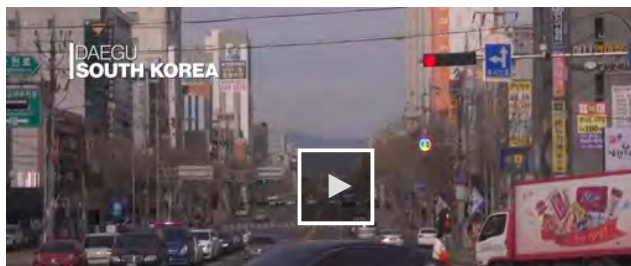


LOG IN

People can leave Daegu and go out to walk their dogs or get their groceries.

By Ian Pannell

24 February 2020, 23:54 • 6 min read



Top Stories

Georgia election officials

Murder mystery rocks Yale University after grad student found fatally shot off campus

Feb 09, 8:39 AM



Georgia Sec. of State discusses phone call with Trump about election results

Jan 04, 9:16 PM



Mom says she came home to find 2 boys shot to death, 1 hurt

Feb 09, 1:45 AM



Snow shoveling leads to deadly



외신

WSJ

미국 WSJ / Not Enough Doctors in Daegu: As Virus Cases Rise, South Korea's Response Is Criticized / 2020-02-24

2021. 2. 9.

Not Enough Doctors in Daegu: As Virus Cases Rise, South Korea's Response Is Criticized - WSJ

ASIA

Not Enough Doctors in Daegu: As Virus Cases Rise, South Korea's Response Is Criticized

More than 760,000 people sign petition calling for ban on all Chinese travelers

By [Dasl Yoon](#) in Daegu, South Korea, and [Timothy W. Martin](#) in Seoul

Updated Feb. 24, 2020 8:23 pm ET

South Korea's efforts to tackle the coronavirus epidemic are being criticized for both moving too quickly and not fast enough, a dizzying backlash as the country struggles to tame the fast-spreading illness.

In the hard-hit city of Daegu, hospitals warned that they don't have enough doctors, nurses and investigators to keep up with the constant stream of infected and at-risk patients. Government measures aimed at reducing the risk of infection, like discarding bedsheets and blankets after a

The New York Times

미국 The New York Times / In Coronavirus Crisis, Korean City Tries Openness, a Contrast to China / 2020-02-25

In Coronavirus Crisis, Korean City Tries Openness, a Contrast to China

Even in the center of the outbreak in Daegu, officials are not restricting the movement of people, which could be a template as the virus moves around the globe.



외신

abc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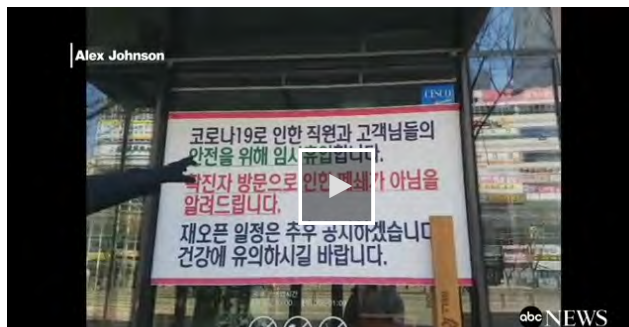
미국 abc NEWS / Fear grips Daegu, South Korea, amid coronavirus / 2020-02-25

Fear grips Daegu, South Korea, amid coronavirus

South Korea reported 231 additional coronavirus cases with three more deaths.

By **Joohee Cho**

25 February 2020, 02:53 • 11 min read



Top Stories

Georgia election officials formally launch investigation into Trump phone calls

Feb 09, 7:31 AM



Murder mystery rocks Yale University after grad student found fatally shot off campus

Feb 09, 8:39 AM



Georgia Sec. of State discusses phone call with Trump about election results

Jan 04, 9:16 PM



Mom says she came home to find 2 boys shot to death, 1 hurt

Feb 09, 1:45 AM



GOP on defense as Democrats



abc NEWS

미국 abc NEWS / Countries across the world take precautions as coronavirus spreads / 2020-02-28



외신

Newsweek

중국 CHINA NEWS WEEK / 大邱实施“最大程度封锁”，韩国最糟情况是疫情持续至年底 / 2020-02-29

주간君说★

"전염병이 오랫동안 퍼지면 우리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것입니다"



WSJ

미국 WSJ / Not Enough Doctors in Daegu: As Virus Cases Rise, South Korea's Response Is Criticized / 2020-03-02

WSJ|VIDEO

Home

Browse

Series

Live Q&A

WSJ Events

From Sponsors

WSJ.com



2/24/2020 5:46AM

South Korea on Red Alert as Coronavirus Cases Soar

South Korea raised its alert status to the highest level after it became the most coronavirus-hit country outside of China. WSJ's Dasl Yoon reports from Daegu, the city at the center of the country's outbreak, which has become a virtual ghost town. Photo: Jean Chung for The Wall Street Journal



CORONAVIRUS

MORE →

외신

中國報道

중국 China Report / 大邱告急: "防疫模范城市" / 2020-03-02



DER SPIEGEL

독일 DER SPIEGEL / Was die Welt von Südkorea lernen kann / 2020-03-10

Coronakrise

Was die Welt von Südkorea lernen kann

Schnelle, flächendeckende Tests und modernste Medizintechnik: Südkorea ist so gut wie kaum ein anderes Land für eine Corona-Epidemie gerüstet. Trotzdem sind auch dort die Fallzahlen zwischenzeitlich sprunghaft angestiegen.

Aus Seoul berichtet **Katharina Graça Peters**

12.03.2020, 22.44 U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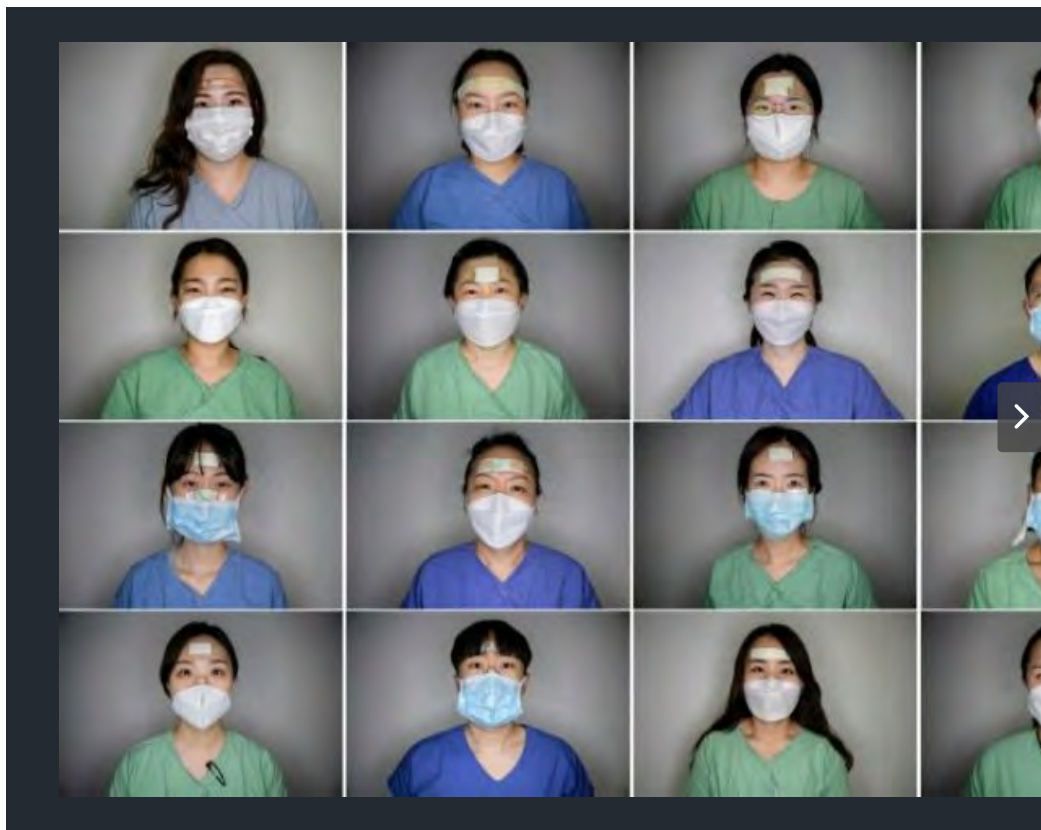
외신

AFP

프랑스 AFP 통신 / S. Korean nurses' bandages become badges of honour / 2020-03-13

AFP

S. Korean nurses' bandages become badges of honour



1 / 5

The pads, plasters and tape protect the nurses' faces from painful sores that can develop as they tend to coronavirus patients for hours on end

[More](#)

외신



중국 신화통신 / Feature: S. Koreans hope to return to normal life amid slowing COVID-19 outbreak / 2020-03-17

Feature: S. Koreans hope to return to normal life amid slowing COVID-19 outbreak

Source: Xinhua | 2020-03-17 23:15:49 | Editor: Mu Xuequan



DAEGU, South Korea, March 17 (Xinhua) -- Half of the shops resumed business, while the other half remained closed Tuesday at Seomun Market, the biggest traditional market of Daegu city that has been the epicenter of the COVID-19 outbreak in South Korea.

Only a few customers were seen inside the shops. On the street, office workers dressed in suit walked along by twos and threes, with take-out coffee in their hands.

Despite the moderate recovery, it was a stark contrast with the cityscape of Daegu, about 300 km southeast of the capital Seoul, around two weeks earlier. The Seomun Market had been temporarily closed over the virus spread, the first shutdown since its opening hundreds of years ago.

Lots of bars, restaurants and shops had been closed, with almost all of concerts, sports and cultural events cancelled for the past weeks. People had refrained from traveling, shopping and social gatherings, while attending church services online.



미국 UPI / Nurses 'drive everything' in Sou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 2020-04-13

Nurses 'drive everything' in Sou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Published: April 13, 2020 at 3:00 AM

Thomas Maresca

DAEGU, South Korea, April 13 (UPI) -- While South Korea has found success in combating the spread of COVID-19 through an aggressive approach of testing and contact tracing, there has been another crucial factor driving the country's response to the deadly disease: its nurses, who have carried some of the heaviest burdens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here.

At hospitals in areas where the coronavirus outbreak was most severe, such as Daegu, the southeastern city where about two-thirds of the country's more than 10,000 COVID-



대구동산병원 의료진들 땀범벅

3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근무를 마친 의료진들의 옷이 땀으로 흥뻑 젖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전국에서 보내온 의료진 응원 편지

“그대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23일 오후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앞 벽면에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수천 장의 ‘의료진 응원’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힘들어도 웃습니다 3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마스크를 쓴 채 근무 교대 준비를 하러 가고 있다. 보호구 착용으로 얼굴이 눌러 자국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용 반창고를 붙였다.

대구뉴스1



다시 전장 투입되는 의료진들

28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
환자 치료를 위해 격리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비가 내린 여유...그렇게 봄이 왔다

불비가 내린 28일 오후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마친 의료진이 우산을 받쳐든 채 잠시 여유를 가지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병동 향하는 의료진

20일 코로나19 대응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ihd@yeongnam.com



정상 진료 대구동산병원...방호복 벗은 간호사들 방호복을 입고 그동안 코로나19와 싸웠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사들이 15일 오전 간호국 지원으로 임원들 앞둔 일반 환자들을 치료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해 온 지 115일 만인 이날부터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이 병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1천27명이 입원치료를 받았고 932명이 퇴원했다. 두태욱 기자 woo@maeil.com



해리스 주한미대사, 동산병원 의료진 격려 24일 오후 대구동산병원 의료진교미공간을 찾은 해리스 주한미대사(가운데)가 의료진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ymaeil@maeil.com



밤에 짙은 의료진 27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근무를 마친 한 의료진이 방호복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ymaeil@maeil.com



대구동산병원 찾은 WHO 의사들 24일 오후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을 찾은 세계보건기구(WHO) 소속 의사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격리병동을 둘러본 후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법과 의료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 김영진 기자 kyymaeil@maeil.com



‘코로나19’ 동산병원 의료진, 식당에서 비대면 식사

국내 ‘코로나19’ 동산병원 의료진을 우려해 마

계명대 교직원 ‘급여 1% 나눔’ 온정의 손길

동산병원·대구동산병원 의료지원
성금 1억5천만원 전달 감사 전회
유학생·재학생 식품·생활비 전달

계명대(총장 신일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온정의 손길로 힘을 보태고 있다.

계명대는 지난 2월 26일과 이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 의료진들을 위해 각각 400세트와 600 세트의 위문 간식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9일에는 의료활동 지원을 위해 성금 1억5천만원을 계명대 동산병원(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전달한다.

이 밖에도 여건이 어려워 외부 활동을 못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기초생활수급 재학생들을 위해 3천만원가량의 식품을 1천500여 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생활비 지원이 절실한 50여 명의 재학생에게 각 100만원씩 총 5천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모든 재원은 계명대 교직원의 급여 1%로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 (사)계명1%사랑나누기에서 마련됐다.

계명대 총학생회도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손길이 이어지며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학생회 간부 30여 명이 나눔 실천을 위해 자발적으로 150만원을 모아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계명대 자매대학인 중국 북경여언대학, 연변대학, 중국사회과학원대학, 화북수리수전대학 등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오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지금 대구의 상황을 심각하게 걱정하면서도 고통을 분담해 함께 이겨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구호의 손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료진들

이 봉사에 동참하고 있으며,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돕기 위해 제주축산개발 정규진 회장이 성금 2천만원을 전달해왔다. 대한적십자사에서 방호복과 마스크 등 의료물품 지원과 함께 의료진들을 위해 점심으로 삼계탕을 제공하기도 했다.

신일회 계명대 총장은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힘을 모아 다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좌절하지 말고 어떤 힘을 보낼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imaeil.com

65세 이상 중증환자 급증...조기 검사·입원 '관건'



‘고군분투’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대구지역 ‘코로나19’ 감염 사태 극복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자원봉사 의료진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산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레벨D 방호복으로 무장하고 근무에 투입되는 의료진이 마스크와 방호복을 서로 점검해주는 모습 등이 아름다워 보인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aeil.com

기사 리스트

연번	제목	매체명	일자
1	확진 환자 치료 위해 계명대동산병원 신축 병동 긴급승인	쿠키뉴스	2020-02-21
2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국가지정 코로나19 확진환자 전용거점 병원 결정	경북일보	2020-02-21
3	계명대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치료 거점병원' 활용	매일경제	2020-02-21
4	대구의료원 추가병실 확보, 계명대동산병원 거점병원 활용	쿠키뉴스	2020-02-21
5	대구의료원·대구동산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매일신문	2020-02-21
6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상 확보 위해 환자 이송	news1	2020-02-21
7	대구 서문시장 앞 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메디파나뉴스	2020-02-21
8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운영	닥터W	2020-02-21
9	대구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아시아뉴스통신	2020-02-21
10	대구 동산병원, 코로나 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운영	한국경제	2020-02-21
11	서문시장 앞 대구광역시 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국제뉴스	2020-02-21
12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 19' 지역 거점병원으로 지정	헬스코리아뉴스	2020-02-21
13	계명대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치료 거점병원' 활용(종합)	매일경제	2020-02-21
14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신종코로나 치료 전문병원으로	한국일보	2020-02-21
15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부산 파이낸셜뉴스	2020-02-21
16	계명대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치료 거점병원' 활용	이헬스통신	2020-02-21
17	대구의료원·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 치료 거점병원 지정	news1	2020-02-21
18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쿠키뉴스	2020-02-21
19	대구동산,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메디코파마	2020-02-21
20	통큰 동산의료원, 병실 비워서 코로나 전용병실 연다	메디칼타임즈	2020-02-21
21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117병상서 확진자 치료"	라포르시안	2020-02-21

기사 리스트

번호	제목	매체명	일자
22	대구의료원, 계대대구동산병원...“코로나19, 확진자 전용 병원으로”	경향신문	2020-02-21
23	병실 부족에...대구의료원·동산병원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중앙일보	2020-02-21
24	동산병원에 하나둘 모여드는 '코로나19' 전사들	미주중앙일보	2020-02-21
25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거점 입원시설로	영남일보	2020-02-21
26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뉴데일리	2020-02-21
27	대구의료원·대구동산병원 '감염병전담' 지정	매일신문	2020-02-22
28	[사설] 의료 시스템 붕괴와 병원 감염 막는 게 급선무다	조선일보	2020-02-22
29	대구 대학병원 '간급의료 공백'...“응급실을 사수하라”	매일신문	2020-02-22
30	대구 서문시장 연 이래 첫 휴장...금융지점도 잇단 폐쇄	영남일보	2020-02-22
31	대구동산병원, 거점병원 지정...확진자 수용·치료 '숨통'	영남일보	2020-02-22
32	대구 동산병원 비어있던 1000병상,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활용한다	메디게이트뉴스	2020-02-22
33	코로나19 확진자 급증...대구 동산병원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현대건강신문	2020-02-22
34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의료원 소개...코로나19 환자 본다	이데일리	2020-02-22
35	대구의료원·계명대동산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선정	NEWSIS	2020-02-22
36	동산병원에 하나둘 모여드는 '코로나19' 전사들	중앙일보	2020-02-22
37	대구지역 대형병원 의료진 자원봉사 행렬	영남일보	2020-02-22
38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의학신문사	2020-02-22
39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의료일보	2020-02-22
40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프라이임경제	2020-02-22
41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재경일보	2020-02-22
42	코로나19: 대구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	BBC NEWS KOREA	2020-02-23

기사 리스트

연번	제목	매체명	일자
43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NEWSIS	2020-02-23
44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서 코로나19 대응 교육받는 간호사들	뉴스핌	2020-02-23
45	코로나19 확진자 맞을 준비 마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팩스넷	2020-02-23
46	대구 의료 인력 태부족, 군부대도 지원 나서	대구일보	2020-02-23
47	신천지 대구교회 소재 불명 670명, 경찰이 직접 추적한다	동아일보	2020-02-23
48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대구일보	2020-02-23
49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전국매일신문	2020-02-23
50	경북대병원 등 대구 대학병원 3곳 응급실 운영 재개	매일경제	2020-02-23
51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거점병원으로 지정	아시아투데이	2020-02-23
52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세명일보	2020-02-23
53	코로나19 경보 '빨간불' 켜다..."향후 1주일~열흘, '중대 고비'"	매일경제	2020-02-23
54	'코로나19' 대구지역 '가짜뉴스' 확산에 검찰·경찰의 강력한 수사 필요	대구신문	2020-02-23
55	정부 "한달간 집중적으로 대구시 모든 유증상자 진단검사"	동아일보	2020-02-23
56	대구·경북 의사회·보건복지부 장관 긴급 회의	대구일보	2020-02-23
57	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경북연합일보	2020-02-23
58	대구동산병원,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경북매일	2020-02-23
59	중수분, 대구의료원-대구동산병원 156개 병상 확보-대구의료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데일리메디팜	2020-02-23
60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사 코로나19 확진	매일신문	2020-02-23
61	경북대병원·동산병원·영남대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대구신문	2020-02-23
62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경상매일신문	2020-02-23
63	대구동산병원, 코로나 '지역 거점병원' 지정	경안일보	2020-02-23

기사 리스트

번호	제목	매체명	일자
64	Inside the epicenter of the South Korean coronavirus outbreak: Reporter's Notebook	abc NEWS	2020-02-24
65	조치흠 병원장 인터뷰	abc NEWS	2020-02-24
66	코로나바이러스 현장	WSJ	2020-02-24
67	서문시장 앞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지역거점병원' 지정	대구일보	2020-02-24
68	경북대병원·동산병원·영남대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대구신문	2020-02-24
69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에 지정	의계신문	2020-02-24
70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일요서울	2020-02-24
71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팩스넷	2020-02-24
72	경북대병원·계명대 동산병원 간호사 확진...의료진 확진 6개병원 7명	news1	2020-02-24
73	'코로나19 현장'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news1	2020-02-24
74	코로나19와 사투 벌이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news1	2020-02-24
75	[속보] 정부 "대구 지역 도울 의료인 신청, 오늘부터 받아"	중앙일보	2020-02-24
76	대구 457명 확진...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확진 잇따라	매일경제	2020-02-24
77	대구시 '코로나19' 155명 추가 확진...총 457명(전문)	매일신문	2020-02-24
78	[코로나19] '지역거점'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연합 전선'으로 확산 저지	매일신문	2020-02-24
79	[코로나19] 대구동산병원 "경증환자 400~500명 더 받을 수 있다"	매일신문	2020-02-24
80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경상매일신문	2020-02-24
81	의료 폐기물 옮기는 동산병원 의료진	매일신문	2020-02-25
82	In Coronavirus Crisis, Korean City Tries Openness, a Contrast to China	The New York Times	2020-02-25
83	Fear grips Daegu, South Korea, amid coronavirus	abc NEWS	2020-02-25
84	전국 의료진 '연합 전선' 동산병원에 인력 파견	매일신문	2020-02-25

기사 리스트

연번	제목	매체명	일자
85	동산병원으로 들어가는 확진자	영남일보	2020-02-25
86	쏟아지는 확진자...대구, 의료대란 '위기'	세계일보	2020-02-25
87	국내 치사율 0.96%... 일본 "수치 유동적, 위험도 단정못해"	동아일보	2020-02-25
88	격리된 인턴 의사들 "복귀 시켜 달라" ...잔잔한 감동	디스패치	2020-02-25
89	대구·경북, 의료진 감염 속출에 의료 공백 '초읽기'	노컷뉴스	2020-02-25
90	대구 '의료시스템 마비' 막아야...공보의·타지 의료진 힘 보태	매일경제	2020-02-25
91	정부,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공공2부제 중단, 1회용컵 사용 허용"	전자신문	2020-02-25
92	대구의사회 "지금 바로 대구로 와달라" ...의료계에 호소	동아일보	2020-02-25
93	코로나19 대응에 1600병상 확보 추진	메디팜뉴스	2020-02-25
94	보훈병원 소속 간호사 10명 대구·경북 파견 자원	news1	2020-02-25
95	밤새 의료인 58명 대구로 향했다...정부, 전담병원 확보(종합)	NEWSIS	2020-02-25
96	동산병원 "경증환자 400~500명 더 받을 수 있다"	매일신문	2020-02-25
97	#힘내라 대구...의료진 모여들고 마스크·온정 쏟아졌다	아시아경제	2020-02-25
98	코로나 여파... '원내약국' 논란 계명대 동산병원 '현장검증' 연기	약사공론	2020-02-26
99	코로나19 대응 병상 1600개 확보 공공2부제 일시중단	한국디지털뉴스	2020-02-26
100	'대구의 호소'에 응답한 영웅들...이어지는 의료진 '대구행'(종합)	news1	2020-02-26
101	대구시 '1000개 병상·의료 인력 300명' 지원 요청	매일신문	2020-02-26
102	코로나 12번째 사망자...기저질환 73세 신천지 교인, 계명대 동산병원서 사망	한국정경신문	2020-02-26
103	"코로나 이겨낼 진짜 힘은 선행"... 온정에 용기 얻는 대구	세계일보	2020-02-26
104	"소명으로 지역민 생명 지켜야죠"...대구 공무원들 '24시간 사투'	경북일보	2020-02-26
105	타임라인 '코로나19' 확산 비상 정총리 "한참 확진자 급증 안했는데...신천지 사태로 국민 당혹"	경향신문	2020-02-26

기사 리스트

번호	제목	매체명	일자
106	의심환자, 검사·격리 거부하면 처벌... '코로나3법' 국회 통과(종합)	서울신문	2020-02-26
107	대구서 모든 집회 금지... 권영진 시장 "코로나19, 1주일이 분수령"	스포츠경향	2020-02-26
108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첫 완치 판정... 추가 사망자도 발생	세계일보	2020-02-26
109	전국 어린이집 27일부터 10일간 휴원	매일경제	2020-02-26
110	TK 넘어 영남권 전체로 번진 코로나19 확산세(종합)	아시아투데이	2020-02-26
111	"장기간 격리수용 건강상태 열악... 면역기능 떨어져 치명적" [코로나19 비상]	세계일보	2020-02-26
112	대구서 국내 12번째 코로나19 사망자... 계명대 동산병원서 치료받던 70대 남성	영남일보	2020-02-26
113	"대구, 안심병원 없어... 전국 의료진 200여명 대구 집결"	경북일보	2020-02-26
114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누군가 해야 한다. 어떡하든 막아내야 한다"	중앙일보	2020-02-26
115	병상 있어도 의사가 없어... 대구시장 "군의관 등 의료진 보내달라"	동아일보	2020-02-26
116	대구의사회 회장 "선후배들, 격리병원·응급실로 달려와 달라"	동아일보	2020-02-26
117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코로나19 12번째 사망자 발생	동양뉴스	2020-02-26
118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전쟁을 시작하다	의협신문	2020-02-26
119	동산병원의 희생,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	의학신문사	2020-02-27
120	계명대 원내악국 소송 '현장검증'도 무기한 연기	데일리팜	2020-02-27
121	동산병원·대구의료원 등 건보급여비 '선지급'	데일리메디	2020-02-27
122	동산병원, 서문시장, 대구시청 온 황교안의 2시간	뉴스민	2020-02-27
123	"코로나19" 진료에 사용했던 폐기물 방역작업 하는 의료진	NEWSIS	2020-02-27
124	'코로나19'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찾은 황교안 대표	news1	2020-02-27
125	"작은 보탬" 마스크와 간식... 동산병원에 모인 온정	한국일보	2020-02-27
126	[코로나19 비상] 코로나와 사투 벌이는 대구 의료진, 자원봉사자의 '피땀눈물'	매일일보	2020-02-27

기사 리스트

연번	제목	매체명	일자
127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푸른신문	2020-02-27
128	[코로나19] 마스크, 체온계 십시일반...동산병원 물품보내기 릴레이	매일신문	2020-02-27
129	지역 의사들 고군분투... "그대들이 영웅입니다"	매일신문	2020-02-27
130	코로나19와 밤새도록 싸운 전사의 얼굴	news1	2020-02-27
131	일반병상도 꽉찬 대구, 확진 309명 입원못해 자가격리	조선일보	2020-02-27
132	대구동산병원에 이어지는 시민들의 온정의 손길 '훈훈'	의협신문	2020-02-27
133	[코로나19] 대구 확진자 퇴원 러시	매일신문	2020-02-27
134	[코로나19] 병상 확보해도 입원 지연	매일신문	2020-02-27
135	딸 만류에 "감기 한번 안 걸렸다"며 대구 달려간 '메르스 전사'	중앙일보	2020-02-28
136	대구 간 황교안 "불편드릴까봐 늦게 왔다...찢어질 듯 가슴 아파"	동아일보	2020-02-27
137	황교안 오늘 대구로...동산병원·서문시장·시청 방문	매일경제	2020-02-27
138	환자 1200명 넘는 코로나..."이젠 장기전, 응급실 사수하라"	중앙일보	2020-02-27
139	"계명대 동산병원 코로나19 입원자 48시간 이상 증상 없는 사람 50명"	영남일보	2020-02-27
140	밤사이 쌓인 코로나19 의료폐기물	news1	2020-02-27
141	'코로나19'에 맞선 의료진들..."당신은 영웅"	news1	2020-02-27
142	광주기독병원, 대구동산병원에 의료용품 전달	광주매일신문	2020-02-27
143	계명대 동산병원·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응원의 손길 이어져	아시아뉴스통신	2020-02-27
144	계명대 동산병원·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전국 곳곳 응원의 손길	뉴데일리	2020-02-27
145	계명대 동산병원·대구동산병원, 응원의 손길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2020-02-27
146	24시간 진료체계..."지금 병원은 한 마디로 전쟁터...6일째 집에가지 못했다"	영남일보	2020-02-28
147	Countries across the world take precautions as coronavirus spreads	abc NEWS	2020-02-28

기사 리스트

번호	제목	매체명	일자
148	동산병원 들어서는 황 대표	경북일보	2020-02-28
149	계명대 의대 동창회, 대구동산병원에 2580만원 기탁	매일신문	2020-02-28
150	계명대 동산병원·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응원의 손길 이어져	일요서울	2020-02-28
151	계명대 동산의료원, "각계각층 응원 손길"	이헬스통신	2020-02-28
152	계명대 동산병원 ·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응원 손길 이어져	보건타임즈	2020-02-28
153	계명대 동산병원·대구동산병원, 전국서 온정의 손길 이어져	NSP통신	2020-02-28
154	코로나19 환자 치료하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응원 물결	청년 의사	2020-02-28
155	"작지만 도움 되기를" ...대구동산병원에 모인 전국의 온기	세계일보	2020-02-28
156	동산병원 소인태 교수 "간호사 절대 부족...200명 이상 필요"	매일경제	2020-02-28
157	[오늘 의료계는?] 동산병원·대구동산병원에 응원 손길 등	헬스코리아뉴스	2020-02-28
158	코로나19로 전국 병원 경영위기 심각...의료체계 붕괴 우려	매일경제	2020-02-28
159	‘코로나19 확산’ 선별진료소 지키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의료진	news1	2020-02-28
160	코로나19 검사 어떻게 이뤄지나	영남일보	2020-02-28
161	코로나19 사태 중심 대구...동산병원, 시민을 품다	의협신문	2020-02-28
162	[코로나19] "입원 대기자 사망 재발 막아야" 대구시, 24시간 핫라인 구축	매일신문	2020-02-28
163	코로나 19 지역거점병원 동산병원	영남일보	2020-02-28
164	동산병원 찾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매일신문	2020-02-29
165	마스크·라면·체온계... 대구동산병원에 쏟아진 200박스의 온정	조선일보	2020-02-29
166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확진자 3명 동시 퇴원	파이낸셜뉴스	2020-02-29
167	코로나19 완치자 3명, 대구동산병원서 동시 퇴원	한겨레	2020-02-29
168	검체 채취→3중 밀폐→핵산 추출→6시간 내 판정	영남일보	2020-02-29

기사 리스트

연번	제목	매체명	일자
169	못먹고, 못자도, 웃는다... 우리는 간호사다	동아일보	2020-02-29
170	대구는 "최대 봉쇄"를 구현, 한국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말까지 계속	CHINA NEWS WEEK	2020-02-29
171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뉴데일리	2020-02-29
172	간호 인력 너무 부족한데 어쩌나...	매일신문	2020-02-29
173	대구동산병원서 신종코로나 3명 동시퇴원	한국일보	2020-02-29
174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쿠키뉴스	2020-02-29
175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서 3명 퇴원...완치자 7명으로 늘어	news1	2020-02-29
176	대구 동산병원에서 퇴원하는 코로나19 완치판정자	영남일보	2020-02-29
177	"병상 아무리 늘려도 태부족"...대구에선 하루 수백명씩 확진	문화일보	2020-02-29
178	대구 동산병원 코로나19 현장 파견 나온 공중보건의	영남일보	2020-02-29
179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라포르시안	2020-02-29
180	코로나19 완치자 3명, 대구동산병원서 동시 퇴원	영남일보	2020-02-29
181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보건타임즈	2020-03-01
182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지역민들에게 큰 힘"	아시아뉴스통신	2020-03-01
183	고양시 6번째 확진자 발생... 대구동산병원 확진자와 접촉	이플러스뉴스	2020-03-01
184	[코로나19-대구] 신일희 계명대 총장 "제중원 정신으로 함께 극복하겠다"	일요신문	2020-03-01
185	계명대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동양뉴스	2020-03-01
186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메디파나뉴스	2020-03-01
187	계명대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거점병원 지정...'24시간 체제' 운영	신아일보	2020-03-01
188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확진자 3명 완치 동시 퇴원	서울일보	2020-03-01
189	"의사 안철수, 대구동산병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중"	머니투데이	2020-03-01

기사 리스트

번호	제목	매체명	일자
190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총력전 펼쳐	매일신문	2020-03-01
191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매일신문	2020-03-01
192	계명대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대구일보	2020-03-01
193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찾은 안철수 대표	news1	2020-03-01
194	"힘들어도 꼭 참다 응원에 울컥"	경향신문	2020-03-01
195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대학저널	2020-03-01
196	계명대 동산병원·대구동산병원에 응원의 손길	세명일보	2020-03-01
197	대구로 내려간 '의사' 안철수... 동산병원서 방호복 입고 진료 봉사	조선일보	2020-03-01
198	계명대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지역민의 큰 힘'	뉴데일리	2020-03-01
199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일요서울	2020-03-01
200	계명대 신 총장 대구동산병원 방문 격려	뉴영남매일	2020-03-01
201	계명대 병원들에 모아지는 시민들의 응원 '눈길'	경북신문	2020-03-01
202	사명감 하나로 오늘도 버틴다	대구신문	2020-03-01
203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경상매일신문	2020-03-01
204	계명대 동산병원·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응원의 손길	경상매일신문	2020-03-01
205	시민 온정 쌓이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news1	2020-03-02
206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세명일보	2020-03-02
207	Not Enough Doctors in Daegu: As Virus Cases Rise, South Korea's Response Is Criticized	WSJ	2020-03-02
208	(번역)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 계명대학이 용감히 맞서	China Report	2020-03-02
209	[e글중심] '의사' 안철수 ... "이때까지 한 것 중 제일 잘했다"	중앙일보	2020-03-02
210	코로나19 경증환자 대구1 생활치료센터 이송 시작...중증·경증 이원화 치료 돌입	경북일보	2020-03-02

기사 리스트

연번	제목	매체명	일자
21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명·경제 피해 현실화	매일신문	2020-03-02
212	경북도 2일 오전 11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620명	대구신문	2020-03-02
213	코로나19 강타한 대구, 의료진 끝없는 '사투'	매일경제	2020-03-02
214	동산병원 밀려드는 온정	대구신문	2020-03-02
215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창의적 등대지기 정신으로 헌신"	경북신문	2020-03-02
216	대구동산병원의 분투[횡설수설/송평인]	동아일보	2020-03-03
217	자가격리 환자 줄이기 안간힘 쓰는 대구...아직 2195명 집에	중앙일보	2020-03-03
218	[당신이 코로나 전사] "국민 관심과 응원 덕분에 힘내고 있어요"	중앙일보	2020-03-03
219	권영진 "대통령, 대구에 치료병상·의료인력 적극 지원 약속"	경북일보	2020-03-03
220	"언제까지 버틸지"...탈진·두통 시달리는 간호사들	노컷뉴스	2020-03-03
221	[오늘 의료계는?] 세브란스병원 대구에 의료인력 파견 등	헬스코리아뉴스	2020-03-03
222	[당신이 코로나 전사] "국민 관심과 응원 덕분에 힘내고 있어요"	일간스포츠	2020-03-03
223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 성금 모금	세계일보	2020-03-03
224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대구 살리는 코로나 전사들[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	2020-03-03
225	'최후의 보루' 의료진이 지쳐간다	경북도민일보	2020-03-03
226	대구동산병원에 1억 기부	한국경제	2020-03-03
227	"당신들 일인데 생색은" 그 말에 무너져요... 24시간 숨쉴 틈 없는 교대근무가 아니라	서울신문	2020-03-03
228	[코로나19] 엑스코·체육관까지..."대규모 격리 시설 준비해야"	매일신문	2020-03-03
229	연대 세브란스, 경북 대구에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 지원	news1	2020-03-03
230	'코로나19 전사들' 타지 의료인 위해 모텔 1동 비운 배상재 씨	매일신문	2020-03-03
231	서울 대학병원들, 코로나19 사태에 병상 비우고 인력 파견(종합)	매일경제	2020-03-03

기사 리스트

번호	제목	매체명	일자
232	대구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경비 부담 주체 논란	영남일보	2020-03-03
233	"내일이 힘든 자영업자지만 오늘, 더 힘든 당신을 응원합니다"	세계일보	2020-03-03
234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땀 '범벅'	매일신문	2020-03-03
235	전국에 퍼지는 '마더 테레사 효과'	SEGYE 비즈&스포츠월드	2020-03-03
236	"WHO 한국 우려? 해외 경증환자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노컷뉴스	2020-03-03
237	의료진 위한 기부 행렬...코로나 맞서는 '응원 백신'	일간스포츠	2020-03-03
238	"우한의 참혹함이 대구에 덧씌워지고 있다... 전쟁의 최전선, 모두가 작은 소망을 되뇌인다"	기자협회보	2020-03-04
239	서울 대형병원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위해 대구·경북 의료진 파견	조선일보	2020-03-04
240	[브리핑@후암동]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헤럴드경제	2020-03-04
241	[코로나19 비상] '못 자고 못 씻고' 현장 의료진 사투... 각계각층 지원 줄이어	매일일보	2020-03-04
242	(메인) '대구를 살리자'는 사명으로 현장 지키는 의료진들	한국경제	2020-03-04
243	대구 자원 물결에 현지주민도 보은 답례... "쉽게 할 수 있는 일"	news1	2020-03-04
244	대학가에 부는 '봄바람'... '코로나19' 모금 줄이어	대학저널	2020-03-04
245	마스크 오래 써 혈어버린 코 위에 밴드 붙이면서 대구 의료지원 중인 간호장교	인사이트	2020-03-04
246	"힘내요. 대구"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행복 바이러스' 확산	매일경제	2020-03-04
247	"저희는 건강권, 휴식권 없나요?" ...코로나 전담 대구 의료진 피로 누적	뉴스민	2020-03-04
248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대구 있을래요" 자원봉사 나선 공시생	매일경제	2020-03-04
249	대구가 아프다...그러나 울지 않는다	한국경제	2020-03-04
250	"땀에 젖은 모습 너무 안타까워" 의료진 지원 물품 손길 줄이어	파이낸셜뉴스	2020-03-04
251	'코로나 임무' 공중보건의 742명 조기 임용...대구·경북 등 신속 배치	조선일보	2020-03-04
252	마음을 담아...죽·속옷·손편지 '세심한 기부'	한국경제	2020-03-04

기사 리스트

연번	제목	매체명	일자
253	[영상] “우리도 두렵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기에 힘을 냅니다” 대구동산병원 ‘백의의 천사들’	KBS	2020-03-04
254	[메아리] 팬데믹 시대, 지혜의 저널리즘	한국일보	2020-03-04
255	질은 어둠속에서...코로나19와 밤새 사투	대구일보	2020-03-04
256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대구 자원한 간호장교 “막 파견 온 후배님들, 보람찬 일에 감사하자”	YTN	2020-03-04
257	[영상] “국민 응원에 힘나요” 대구 달려간 간호사 감동 손편지	미주중앙일보	2020-03-04
258	[코로나19] 文대통령, SNS에 감사 메시지...“국민이 희망 키워”	아주경제	2020-03-04
259	“이곳엔 두려워하는 군중이 없다”...대구 취재한 美 ABC도 감동	한국경제	2020-03-04
260	[공공story] 대한민국을 살려낸 영웅	공공뉴스	2020-03-04
261	[힘내라 의료계] 코로나19 응원·후원·기부 줄이어1...대학병원에 이어지는 기부 행렬	메디컬월드뉴스	2020-03-04
262	보름 넘게 ‘하루 12시간 사투’ 지쳐가는 전사들	영남일보	2020-03-05
263	文대통령 “국가가 못한 부분, 대구 시민이 챙겨줘”	매일신문	2020-03-05
264	‘위기를 이겨내는 힘’ 뜨거운 기부 릴레이	동아일보	2020-03-05
265	대구동산병원, 산모 확진자 전용 진료실 마련	연합뉴스	2020-03-05
266	[포토뉴스]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코로나19 검체 채취	매일신문	2020-03-05
267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푸른신문	2020-03-05
268	[포토] 대구 방역업체 끝없는 사투	경북일보	2020-03-05
269	[동방인어] 120년 역병과 싸운, 이 병원	아주경제	2020-03-05
270	[코로나 전사의 일기] “환자들끼리 의지..밥 안 먹는 환자 걱정하며 영양제 챙기기도”	중앙일보	2020-03-05
271	“간호사 쓰러져도 환자 살려야” 대구서 사투 벌인 부산 간호사	노컷뉴스	2020-03-05
272	힘내라 대구! 힘내라 의료진!	news1	2020-03-05
273	컷등에 밴드 붙인 간호장교 “힘 보탬 수 있어 자랑스럽다”	한겨레	2020-03-05

기사 리스트

번호	제목	매체명	일자
274	한센병에 이어 밤새 코로나19와 사투... '백의의 천사들'을 만나다	동아일보	2020-03-05
275	美 ABC "대구, 공황은 없다 폭동도, 두려워하는 군중도 없다..."	매일신문	2020-03-05
276	암흑속 빛난 '달빛동맹'...광주, 대구의 눈물을 닦다	매일경제	2020-03-05
277	마스크에 쓸린 콧등...가슴 뭉클 '밴드 투혼'	대구신문	2020-03-06
278	"대구시민들 침착히 대처 많은 이에 새 삶의 모델"	매일신문	2020-03-06
279	[코로나 전사의 일기] "환자가 다른 환자를 돌본다...대구 병실, 그곳에서 본 마음"	중앙일보	2020-03-06
280	'코로나19' 동산병원 의료진, 식당에서 비대면 식사	매일신문	2020-03-06
281	대구? 경북 코로나19 전선에 뛰어든 대형병원 의사들	메디칼타임즈	2020-03-06
282	[코로나19] "대구경북으로 의료팀 파견...아픔 나누는 서울 대형병원들"	아주경제	2020-03-06
283	'다큐3일' 대구로 모인 영웅들, 장례식장에서 숙식하며 코로나19와 치열한 사투	일요신문	2020-03-06
284	[코로나 전사의 일기] "6일 근무했는데 한달 한 느낌" 대구 달려간 간호사의 소망	미주중앙일보	2020-03-07
285	'고군분투'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매일신문	2020-03-07
286	"방호복 입고 일하니 숨쉬기 힘들고 땀 흥건은 다반사"	news1	2020-03-07
287	[코로나 전사의 일기] "걸어다니던 환자 돌연 응급상황...보호구 체크 못하고 뛰었다"	중앙일보	2020-03-07
288	"의사로서 소명 다하자" 호소 통했나...350여명 의사들 대구로	청년 의사	2020-03-07
289	주말 이른아침 '코로나19 대응 위해'	news1	2020-03-08
290	코로나19 대응 '아침 안개 속에서'	news1	2020-03-08
291	계명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 기울이며 온정의 손길 이어가	매일신문	2020-03-08
292	[코로나 전사의 일기] "6일 근무했는데 한달 한 느낌" 대구 달려간 간호사의 소망	중앙일보	2020-03-08
293	[매일칼럼] 우리가 영웅이다	매일신문	2020-03-08
294	코로나19 밤낮 대응하는 의료진 향한 메시지	세명일보	2020-03-08

기사 리스트

연번	제목	매체명	일자
295	[데스크칼럼] 바이러스 사라진 봄을 기다리며	아이뉴스24	2020-03-08
296	"코로나19 극복을"...대구·경북 휴일에도 각계서 온정	매일경제	2020-03-08
297	"코로나 확산 막는게 최우선"... 전국 곳곳서 눈물겨운 사투	아주경제	2020-03-08
298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해외언론에서도 큰 관심	동양뉴스	2020-03-09
299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쓸쓸한 코로나 '죽음'...장례 안하기도	news1	2020-03-09
300	코로나 50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든 韓사회 틈새 '情 나눔' 솟다	news1	2020-03-09
301	계명대 교직원 '급여 1% 나눔' 온정의 손길	매일신문	2020-03-09
302	계명대,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로 힘 보태	KNS뉴스통신	2020-03-09
303	[코로나 전사의 일기] "힘드시죠, 빨리 나을게요" 열리는 환자, 되레 날 위로했다	중앙일보	2020-03-09
304	의료전사 응원하는 봄꽃 '활짝'	영남일보	2020-03-09
305	열흘 가까이 의료 봉사 이어가는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2020-03-09
306	코로나19 치료 현장에 투입된 공중보건의	연합뉴스	2020-03-09
307	[每日칼럼] 우리가 영웅이다	매일신문	2020-03-09
308	'대구에도 봄은 온다'	news1	2020-03-09
309	조선대병원 간호사들, 코로나19 최전선 대구로	광주매일신문	2020-03-10
310	국립중앙의료원, 대구에 긴급 의료지원팀 25명 파견한다	인사이트	2020-03-10
311	불교·천주교, 도시락·후원금으로 코로나 의료진 응원	한국일보	2020-03-10
312	NMC, 의료진 20여명 대구동산병원 2주간 긴급 파견	메디파나뉴스	2020-03-10
313	천주교 대구대교구, 코로나 거점병원에 3억원 후원	대경일보	2020-03-10
314	코로나19 의료진 '바쁜 발걸음'	경상투데이	2020-03-10
315	칼럼=코로나19, 지역사회에 퍼지는 마더 테레사 효과	전라일보	2020-03-10

기사 리스트

번호	제목	매체명	일자
316	"힘내라! 대구... 의료진은 진정한 영웅!"	경북매일	2020-03-10
317	위기 속 빛난 대구의 집단지성·위대한 시민정신	대구신문	2020-03-10
318	독일 슈피겔(시사주간지)-심장내과 최상웅 교수 전화 인터뷰	DER SPIEGEL	2020-03-10
319	AFP통신-파견 간호사 인터뷰	AFP 통신	2020-03-10
320	코로나19 최전선 대구동산병원 조화숙 팀장이 들려주는 '사투 현장'	대구신문	2020-03-10
321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치료시설 확충 총력	경북신문	2020-03-12
322	요즘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한 없이 자랑스럽다!	BreakNews	2020-03-12
323	[코로나19]지역 거점' 대구동산병원, 2차례 병상 증설 452개 병상으로	매일신문	2020-03-12
324	외신들, 코로나 사태 속 한국 주목... "성숙한 시민의식 돋보인다"	중앙일보	2020-03-12
325	"의사로서 대구·경북 아픔 외면할 수 없어"	전남매일	2020-03-12
326	대구동산병원, 병상 대폭 늘려...총 9개 병동 452병상 운영	영남일보	2020-03-12
327	"서로 지키는 마음으로 버틴다" 대구 선별진료소 열흘의 기록	한겨레	2020-03-12
328	지역사회에 퍼지는 마더 테레사 효과	전라일보	2020-03-12
329	사랑의 인술 펼친 당신이 영웅!	경북매일	2020-03-12
330	계명대 동산병원 코로나 치료시설 확충 병상수 대폭 늘리고 중환자실도 증설	영남일보	2020-03-13
331	대구동산병원 치료병상 대폭 늘린다	매일신문	2020-03-13
332	방역 봉사부터 먹거리까지...기업들, 코로나 극복에 다방면 지원(종합)	NEWSIS	2020-03-13
333	의료기기업체, 코로나19 극복 위해 팔 걷다	의학신문사	2020-03-13
334	S. Korean nurses' bandages become badges of honour	AFP 통신	2020-03-13
335	[비타민뉴스] "당신이 먼저입니다" 마스크 소량기부 '훈훈'	KBS	2020-03-13
336	안철수 "위기극복 확신...IMF '금모으기 운동'처럼 하나로 모여"	팩스넷	2020-03-13

기사 리스트

연번	제목	매체명	일자
337	대구서 코로나19 확진자 보다 완치자 많은 "골든크로스" 확인	NEWSIS	2020-03-15
338	[사설] 탈진상태 대구·경북의료진에 힘 실어줘야	전국매일신문	2020-03-15
339	[소년중앙] "컵반 먹으며 코로나19 대응 근무...사명감으로 일하지만 아쉬워"	미주중앙일보	2020-03-15
340	"생사 오가는 현장...시민들의 응원 덕에 버팁니다"	매일신문	2020-03-16
341	"그대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경북일보	2020-03-16
342	확진 환자·병상 지킨 '醫兵' 확산세 누그러뜨린 수훈감	매일신문	2020-03-16
343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중환자실에 시설·인력·의료장비 등 지원	뉴스1	2020-03-16
344	의료봉사 인력들 "파이팅"	동아일보	2020-03-16
345	[최보식이 만난 사람]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 시켜달라... 이름 노출은 원치 않던 그 의사들"	조선일보	2020-03-16
346	[소년중앙] 코로나19 막으려고 병원에서 먹고 자며 환자 돌보조	중앙일보	2020-03-16
347	대구 간호사들 '봉대투혼'...그래도 웃습니다	디스패치	2020-03-16
348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코로나19 치료시설 확충	티브로드	2020-03-16
349	그들의 분투를 엿보는 순간	시사인	2020-03-16
350	대구 '골든 크로스' 희망이 보인다	news1	2020-03-16
351	지금 필요한 건 회복 기원하는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	정책브리핑	2020-03-16
352	대구에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훈훈"	NEWSIS	2020-03-16
353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중환자실에 시설·인력·의료장비 등 지원	일요서울	2020-03-16
354	언론에 보도된 '코로나 전사' 간호사들 (5)	간호신문	2020-03-16
355	[AFP] 간호사 얼굴의 밴드 '명예의 배지' 되다	간호신문	2020-03-16
356	대구동산병원 중환자실을 향한 도움의 손길들	메디포뉴스	2020-03-16
357	"선한 영향력 넓히자"...게임업계, 연이은 코로나19 기부 행렬	뉴스웍스	2020-03-16

기사 리스트

번호	제목	매체명	일자
358	안산에서 보낸 '눈물의 핸드크림'...“의료진 여러분 힘내세요”	서울신문	2020-03-16
359	대구 의료진 '평평' 올린 세월호 어머니의 편지와 선물	국민일보	2020-03-16
360	"한국 의료진의 '엄지척'...세상 구하는 어벤져스"	news1	2020-03-16
361	코로나19 이제 그만! 대구동산병원 사람들	매일신문	2020-03-16
362	땀범벅의 헌신 고맙습니다	경북매일	2020-03-16
363	“코로나 사투’ 간호사로서 당연한 일”	세계일보	2020-03-17
364	[윤희영의 News English] 명예의 배지가 된 간호사 얼굴의 반창고	조선일보	2020-03-17
365	[대구 사투 한달] ② 대구 의료진 “모든 환자 퇴원할 때까지...”	매일경제	2020-03-17
366	코로나19 대응에 세계도 관심...대구동산병원·영남대병원	메디파나뉴스	2020-03-17
367	대구 대학병원 코로나19 대응 중점 부분 특색은	매일신문	2020-03-17
368	대구 4개 대학병원장 “코로나19 상황, 위기 일단 넘겼고 안정기 들었다”	매일신문	2020-03-17
369	Feature: S. Koreans hope to return to normal life amid slowing COVID-19 outbreak	신화통신	2020-03-17
370	[서소문사진관]코로나19 극복! 온 국민이 응원합니다	중앙일보	2020-03-17
371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한달 맞은 대구] 위기서 빛나는 시민 의식... 희망은 있다	서울경제	2020-03-17
372	[코로나19 한달 대구] ④ 최악의 바이러스 “퇴치”한국 의료진이 보여줬다	NEWSIS	2020-03-17
373	한달 넘게 자발적 자가격리·사재기 대신 나눔...대구 시민의 승리가 보인다	매일경제	2020-03-17
374	[who who] 사랑의 열매, 시민·단체 기부로 612억 4000만원 모였다	아주경제	2020-03-17
375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대구 의료진에 티셔츠 기부하러 갔더니 깜짝, 기부용품 줄서서 대기중	YTN	2020-03-17
376	확진자 속출 불안·두려움 속 ‘셀프 격리’ 시민의식 돋보여 전국 곳곳서 달려온 의료진...	대구신문	2020-03-18
377	“일단 위기 넘겼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매일신문	2020-03-18
378	'봉대 훈장' 의료진·응원 기부 물결·셀프 격리...	대구신문	2020-03-18

기사 리스트

연번	제목	매체명	일자
379	"실내화가 다 닳을 때까지 대구 환자 지키겠습니다"	중앙일보	2020-03-18
380	메르스 전사 김현아가 돌아왔다, 이번엔 대구 저승사자 잡는다	중앙일보	2020-03-18
381	[#힘내라.대구경북] 코로나 병동 지원한 모녀 간호사 "서로 의지해서 걱정 없어요"	한국일보	2020-03-18
382	최악의 바이러스 '퇴치' 한국 의료진이 보여줬다	경안일보	2020-03-18
383	대구 동산병원 코로나19 투사들, 국민의당 비례 명단에	세계일보	2020-03-18
384	언론에 보도된 '코로나 전사' 간호사들 (6)	간호신문	2020-03-18
385	대구로 간 간호사 한마디... "감염될지 안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부산 파이낸셜뉴스	2020-03-18
386	"코로나19 극복해요"...대구·경북에 연일 온정 답지	매일경제	2020-03-18
387	[최전선의 한 달] ① 대구는 아직 싸우고 있다...신천지→지역사회	news1	2020-03-18
388	[최전선의 한 달] ③ "세계가 대구 부러워해... '시민의식' 빛났다"	news1	2020-03-18
389	"코로나19 사태 극복, 혐오와 배제를 넘어 연대와 인권으로"	라포르시안	2020-03-18
390	계명대 동산병원,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쿠키뉴스	2020-03-18
391	계명대 동산병원, 중증응급환자 전용 치료시설 구축 속도	NEWSIS	2020-03-18
392	"감염 두렵지만 직업정신으로 환자 돌봐"	파이낸셜뉴스	2020-03-18
393	깨알 글씨 응원들이 모여 큰 힘이 됩니다	경북매일	2020-03-19
394	[임성수의 사각 프레임 속 세상 만사] '힘 내세요 우리의 영웅들'...병원 벽면 가득 채워진 응원 문구...	영남일보	2020-03-20
395	의료진과 직원 280명 환자 370명 식사 책임 면역력 높여주는 음식 끼니마다 정성껏 제공	영남일보	2020-03-20
396	레벨D 방호복 입고 땀범벅된 의료진, 전국서 밀려든 응원 메시지에 절로 미소	영남일보	2020-03-20
397	"따뜻한 점심 한 끼,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대구일보	2020-03-20
398	[오늘의 채널A] 이진한 의사기자가 다녀온 대구 현장	동아일보	2020-03-20
399	"물 한병에도 감사인사 들어 오히려 미안한 마음"	영남일보	2020-03-20

기사 리스트

번호	제목	매체명	일자
400	코로나19 사투 한달...花사한 봄날 활짝 핀 '희망'	영남일보	2020-03-20
401	동산병원 주지연 영양팀장, 의료진과 직원 280명 환자 370명 식사 책임 면역력 높여주는 음식 끼니마다 정	영남일보	2020-03-20
402	[이사람] 전국 유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서영성 원장	영남일보	2020-03-20
403	대한적십자사 RCY 대학생 봉사단 "물 한병에도 감사인사 들어 오히려 미안한 마음"	영남일보	2020-03-20
404	[코로나19 두달] ④ 대구에 모인 의료진 1660명...빨간 고글 자국에 감동	NEWSIS	2020-03-20
405	계명문화대 코로나19 극복 향한 따뜻한 마음 전달	NEWSIS	2020-03-20
406	역사를 바꾼 전염병, 인류는 항상 이겨냈다	매일신문	2020-03-21
407	[입맛땡땡] 코로나19가 앓아간 평범한 식사의 기쁨	매일경제	2020-03-21
408	[김영수의 현장클릭] '건강식품·손세정제...'.재계, 코로나19 응원 각양각색	이데일리	2020-03-21
409	대구 완치자, 감사 손편지 전해..."이 시대 진정 아름다운 분들"	중앙일보	2020-03-21
410	'한달째 사투' 의료진 "빼앗긴 봄 돌려드릴 때까지 최선 다 할게요"	JTBC	2020-03-21
411	포항 해병대서 채혈 간호사 확진...현혈 장병 90여명 격리	헤럴드경제	2020-03-21
412	사랑의 도시락·고사리손 응원 편지... "모두 힘내세요"	경북매일	2020-03-22
413	"의료진 힘내세요" 전국서 보내온 응원 메시지	대구신문	2020-03-22
414	"코로나19 병상 부족 해결도 한국서 배워야"	한국일보	2020-03-23
415	아빠의 나라 한국 너무 사랑해 스페인에서 날아와 대구서 '봉사' 중인 미녀 간호사	인사이트	2020-03-23
416	"부디 저를 그곳에 보내주세요"...대구·경북 의료 파견 간호사들의 '지원서'	조선비즈	2020-03-23
417	계명문화대, 감염병 극복 인력·물품 전방위 지원	경북일보	2020-03-24
418	다시 병동으로	대구신문	2020-03-24
419	전국 대도시 중심구청장, 대구에 코로나19 성금 전달	NEWSIS	2020-03-24
420	'대구 환자, 도내 의료진 모두 힘내세요' 도민 온정 붓물	시사일보	2020-03-24

기사 리스트

연번	제목	매체명	일자
421	[한자뉴스] 응원할게요!	어린이동아	2020-03-24
422	코로나 극복 응원의 메시지	영남일보	2020-03-25
423	대구 동산병원 찾은 WHO 소속 의사들	영남일보	2020-03-25
424	'코로나 극복' 다양한 희망 전달	대구신문	2020-03-25
425	위기 때 더 빛난 시민의식... "대구시민들이 백신"	세계일보	2020-03-25
426	한달째 사투 벌이는 의료진	영남일보	2020-03-26
427	"마스크 아껴쓰시다"	영남일보	2020-03-26
428	"코로나19 최전방 계명대 동산병원 원더풀"	경북일보	2020-03-26
429	위기 때 더 빛난 시민의식... "대구시민들이 백신"	세계일보	2020-03-26
430	대구동산병원 찾은 김제동	NEWSIS	2020-03-26
431	<대구>교육청-지역 대학병원, 코로나19 공동대응 협약 체결	티브로드	2020-03-26
432	"TK 중환자 치료 문제없다 대구 의료계 무시하지 말라"	매일신문	2020-03-27
433	"감염 예방 노력·의료진들 팀워크 인상적"	대구일보	2020-03-27
434	WHO 자문단 "동산병원 의료진, 美·유럽보다 훌륭"	영남일보	2020-03-27
435	코로나 사투 환자들의 생환 기적, "드라마에도 없는 감동"	주간동아	2020-03-27
436	<대구> 세계보건기구 자문위원단 계명대 동산병원 방문	티브로드	2020-03-27
437	CTS뉴스-예정백석, 코로나19 사태 위한 지원에 전력	CTS기독교TV	2020-03-27
438	코로나29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 꽃길만 걷자	영남일보	2020-03-29
439	[특별기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입니다	매일신문	2020-03-30
440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 위한 물품 기부	news1	2020-04-07
441	한 달 만에 다시 대구 찾은 정세균 총리 "장기전 준비 필요"	국민일보	2020-04-11

기사 리스트

번호	제목	매체명	일자
442	Nurses 'drive everything' in Sou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UPI	2020-04-13
443	대구지역 '병원장 단톡방'이 코로나 중환자 살렸다	동아일보	2020-04-23
444	'의료진 덕분에' 감사 배지 전달	매일신문	2020-04-24
445	[대구동산병원에서] ⑤ 맨 앞에 선 간호사들	뉴스민	2020-04-16
446	"감사합니다"...의료 영웅 응원 열기	대구신문	2020-04-24
447	"당신은 영웅입니다"	영남일보	2020-04-24
448	[인터뷰] "환자 퇴원 때 보람...격리환자 외로움에 시달려"	매일경제	2020-04-26
449	安 "여러분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대구신문	2020-04-28
450	[사설] 코로나와 사투 벌이다 경영난 겪는 동산병원	영남일보	2020-04-28
451	"의료봉사 약속지키려..." 다시 대구에 온 안철수	영남일보	2020-04-28
452	코로나 사투 발벗고 나선 동산병원, 두 달간 630명 완치	중앙일보	2020-04-29
453	방호복·고글...밤낮 없는 물품 수급 '진땀'	대구신문	2020-05-01
454	'대구 70일간의 사투' 전세계 이목 쏠린다	대구일보	2020-05-01
455	남북함께국민연합, 토종닭삼계탕 150인분 코로나19 퇴치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에 기증	월드스타	2020-05-01
456	[70일간의 전쟁] ③ 위기 속에 빛난 의료진..."그대들이 진정한 영웅"	news1	2020-05-02
457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의 고글 자국'	중앙일보	2020-05-05
458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 환우에 어린이날 선물 전달	매일신문	2020-05-06
459	"코로나 사투 위험수당 지급하라"	영남일보	2020-08-04
460	[코로나19 간호사 일기] 지역거점병원 파견 자원한 박지원 간호사 (1)	간호신문	2020-05-06
461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동산병원 방문 의료진·근무자에 격려와 감사의 뜻 전해	서울뉴스통신	2020-05-06
462	[코로나19 간호사 일기] 지역거점병원 파견 자원한 박지원 간호사 (2)	간호신문	2020-05-06

기사 리스트

연번	제목	매체명	일자
463	"대구 의료진 심리 지원, PTSD 예방해야"	영남일보	2020-05-06
464	권영진 대구시장, 감염병전담기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방문 '의료진.근무자' 격려	CBN뉴스	2020-05-06
465	의료진의 코로나 헌신에 '덕분에 챌린지'	동아일보	2020-05-07
466	"계명대 동산병원 전용 셔틀버스 운영을"	대구신문	2020-05-07
467	말려도 현장 달려간 '코로나 나이트게일'	동아일보	2020-05-13
468	대구동산병원도 내달 중 일반 환자 받는다	대구신문	2020-05-22
469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6월 15일부터 정상 진료	NEWSIS	2020-05-26
470	대구는 여전히 코로나와 사투...100일간의 기록	대구일보	2020-05-26
471	[의창] '혐오와 차별 바이러스'	매일신문	2020-05-27
472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이젠 정상진료 "덕분에 이겨냈습니다"	영남일보	2020-05-27
473	[그래픽텔링]코로나와 100일간 사투 벌인 야전병원 '대구동산병원'	중앙일보	2020-06-02
474	코로나 최전선 대구동산병원 100여일 만에 외래진료 시작	중앙일보	2020-06-03
475	보건의료 NGO 글로벌케어, 코로나19 대응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격려 위한 100일 기념 행사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2020-06-08
476	'코로나 전담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15일부터 정상진료	대구일보	2020-06-09
477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15일부터 정상 진료	매일신문	2020-06-09
478	"또다시 코로나 전담병원 되어도 역할 충실히 할 것"	문화일보	2020-06-11
479	"사우나 같은 방호복"...폭염에 더 지쳐가는 의료진	대구신문	2020-06-12
480	"대구 시민과 의료진, 음악으로 위로해 드려요"	대구일보	2020-06-12
481	"안 하면 안 된다는 각오로 코로나와 싸웠다"	조선일보	2020-06-13
482	힘든 시기 서로 힘 모아, 코로나에 맞서 잘 싸웠습니다	동아일보	2020-06-15
483	[의료칼럼] 헌신에 대해서는 보상보다 정당한 지불이 우선되어야	대구신문	2020-06-15

기사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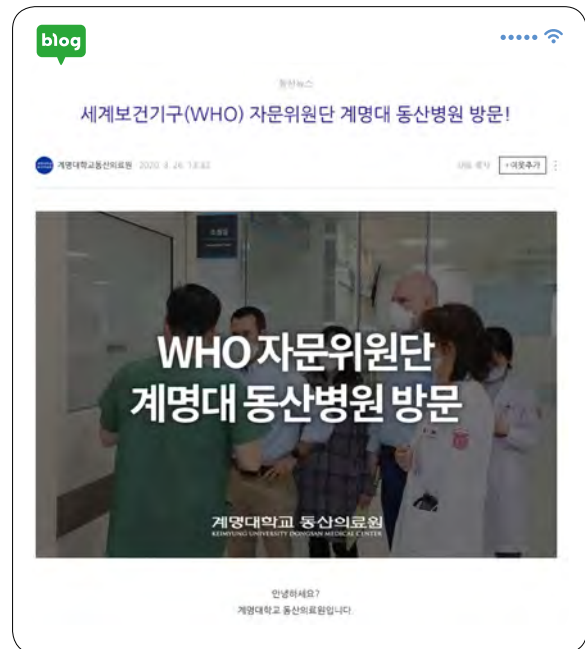
번호	제목	매체명	일자
484	"과감한 '감염병 전담 병원 승인' 확산세 방지 큰 역할"	대구신문	2020-06-15
485	대구동산병원 정상진료 재개	중앙일보	2020-06-16
486	통행로 열리고 직원은 웃음꽃 복도엔 '코로나 115일' 전시열어	영남일보	2020-06-16
487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극복 사진전 열어	라포르시안	2020-06-19
488	[책 CHECK]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다	매일신문	2020-06-20
489	감염병 전문병원 탈락한 대구시 "전문병원 유치 계속 요구할 것"	매일경제	2020-06-23
490	절망 속 꽃피운 시민의식·인간애... '2020년 대구의 봄'을 기록하다	영남일보	2020-06-24
491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만 전념하도록 행정 지원 최선"	대구신문	2020-06-24
49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간과 사회 어떻게 변할까	매일신문	2020-06-24
493	"이젠 생존과 사투 중" 코로나 맞서던 동산병원 눈물	중앙일보	2020-07-15
494	[정덕현의 엔터 인사이트] 텅 빈 거리 가득 채운 위로의 선물	매일신문	2020-07-24
495	계명대 동산병원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선정	영남일보	2020-07-28
496	대구시 '코로나 기억의 공간' 조성한다	영남일보	2020-07-29
497	"잊지 않겠습니다" 대구, 코로나 기억공간 조성한다	국민일보	2020-07-30
498	홍성진 전 중환자의학회장, 대구동산병원 감사패 및 학회 공로상 수상	의사신문	2020-08-01
499	대구동산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매일신문	2020-08-06
500	주한 싱가포르 대사 대구동산병원 격려 방문 "코로나19 헌신과 노력에 감사"	매일신문	2020-08-11

※ 약 12,000여 건의 언론보도 중 500여 건으로 요약했습니다.

SNS 게시



네이버블로그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 2020-02-24



네이버블로그 세계보건기구(WHO) 자문위원단 계명대 동산병원 방문! / 2020-03-26



네이버블로그 계명대 동산의료원,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특별 공로상 수상! / 2021-04-10



네이버블로그 대구동산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 2020-08-06

SNS 게시



페이스북 코로나19 예방대응(출입통제) / 2020-02-04



페이스북 대구동산병원 비상대책본부 / 2020-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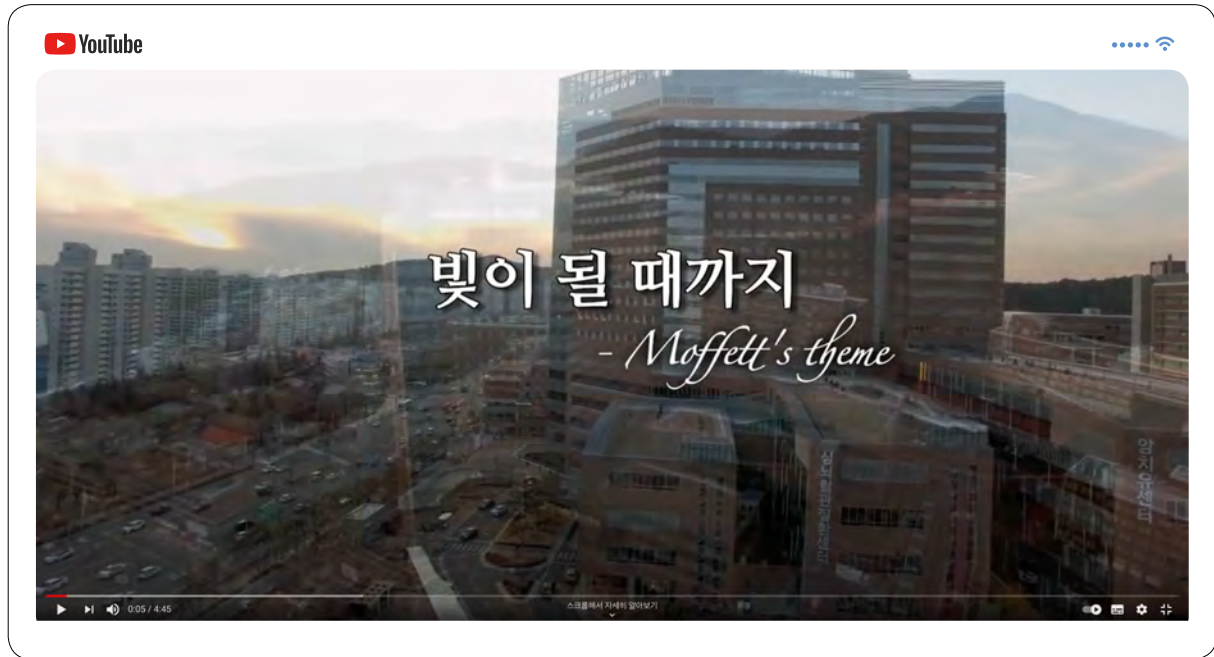


페이스북 코로나19 응원메시지 감사글 / 2020-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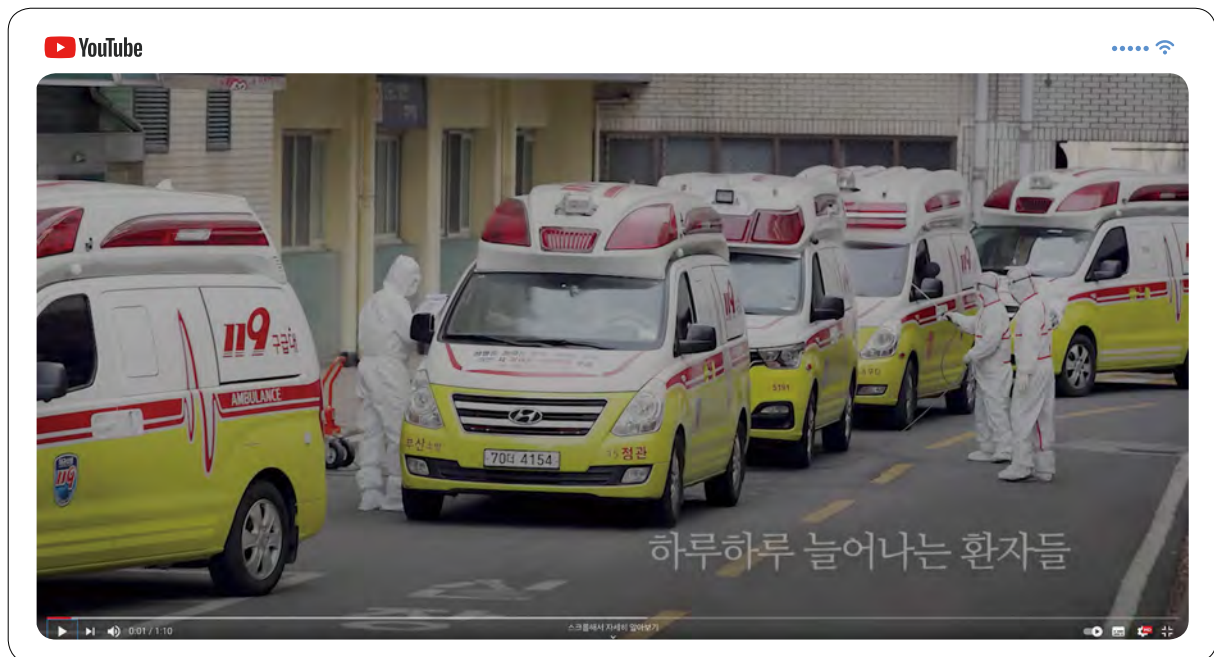


페이스북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 2020-03-09

SNS 게시



유튜브 빛이 될 때까지 영상 업로드 / 2020-0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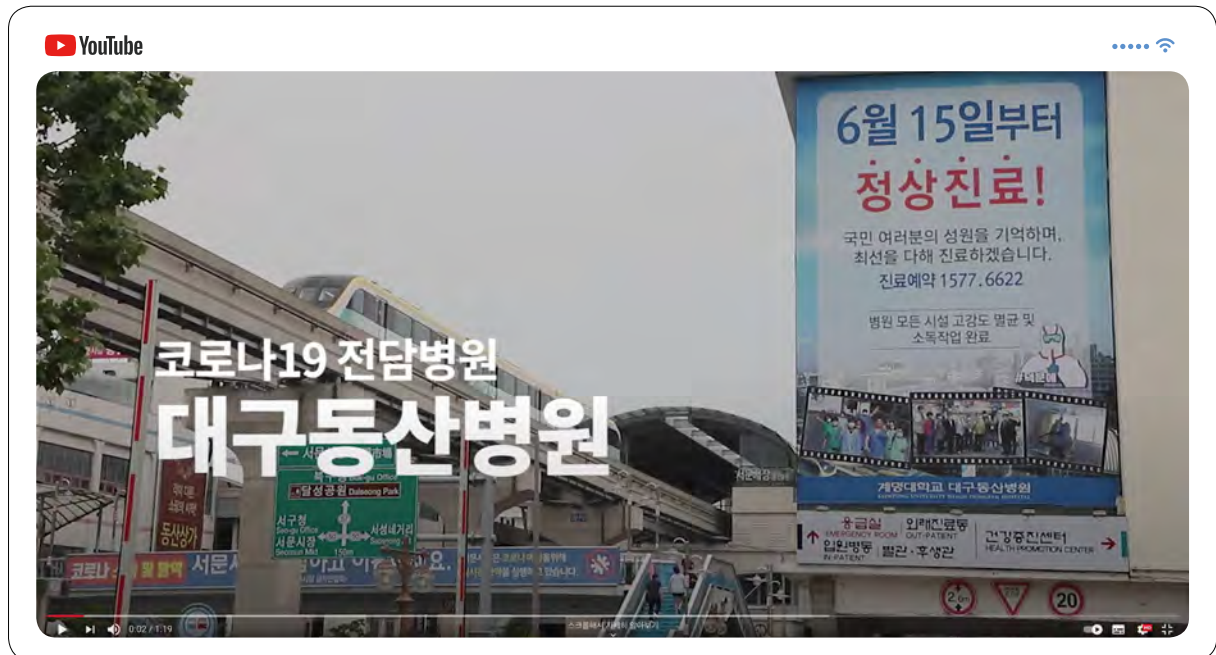


유튜브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합시다! / 2020-03-06

SNS 게시



유튜브 외래 방문 시 행동수칙 영상 업로드 / 2020-04-24



유튜브 대구동산병원 고강도 멸균, 소독 작업 후 정상진료 시작 / 2020-06-19

SNS 게시 리스트

연번	콘텐츠명 및 내용	SNS	일자
1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에 나선 계명대 동산병원!	네이버블로그	2020-02-03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 중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1. 28.부터 출입 제한	페이스북	2020-02-03
3	계명대 동산병원(성서): 부 편의시설 입원환자 출입 통제 안내	네이버블로그	2020-02-04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대응"	페이스북	2020-02-04
5	면회, 방문안 제한 안내: 코로나19 예방	네이버블로그	2020-02-06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위해 전직원 대응 중"	페이스북	2020-02-06
7	"면역력을 키워주는 슈퍼푸드"	페이스북	2020-02-07
8	코로나19: 마스크 종류 및 착용법 바로 알기!	네이버블로그	2020-02-17
9	감염증이 의심될 땐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해 주세요!!	페이스북	2020-02-19
10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필수 행동 수칙!	네이버블로그	2020-02-20
11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안내" #홍콩 #마카오 특별입국절차 적용(2.12~) 및 ...	페이스북	2020-02-20
12	서문시장 앞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지정!	네이버블로그	2020-02-24
13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페이스북	2020-02-25
14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안내!	네이버블로그	2020-02-26
15	인력도,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을 통해서 ...	페이스북	2020-02-26
16	인력도, 의료 물품도 부족한 상황 속에 #대구동산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으로 여러분들이 #채운계 #마스크 #무전기 #간식 ...	페이스북	2020-02-27
17	의료인력 중 간호인력 절실... 24시간도 부족하지만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	페이스북	2020-02-27
18	#대구동산병원 은 코로나19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페이스북	2020-02-28
19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완치 퇴원: 확진자 3명 동시 퇴원!	네이버블로그	2020-03-02
20	물심양면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스북	2020-03-02
21	외신도 대구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스북	2020-03-03

SNS 게시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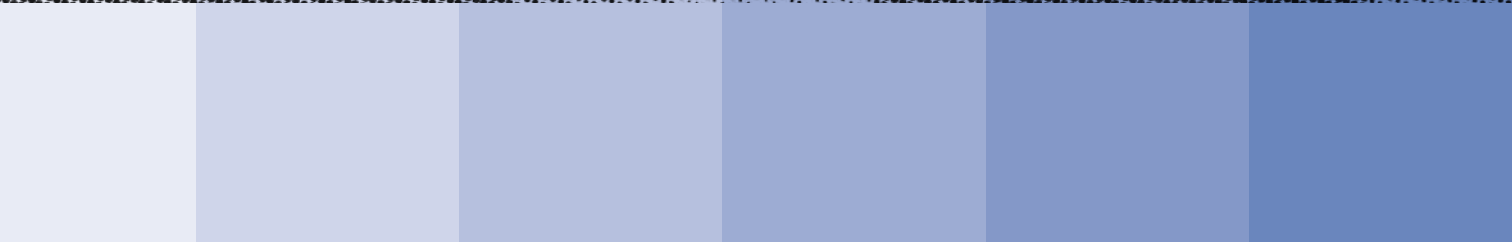
연번	콘텐츠명 및 내용	SNS	일자
22	"의사가 단지 돈 잘 버는 직업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곳이 동산병원이다."	페이스북	2020-03-03
23	코로나19 극복: 병원은 지금 전시체제, 동산병원 의료진들 고군분투!	네이버블로그	2020-03-04
24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있어 오늘도 힘을 냅니다.	페이스북	2020-03-04
25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내외 각계각층 응원 릴레이	페이스북	2020-03-05
26	대구동산병원: 여러분의 소중한 도움의 손길, 잊지 않겠습니다.	네이버블로그	2020-03-06
27	"대구로 달려간 그들 작은 영웅과 함께한 72시간" 2020년 3월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으로 전국에서 ...	페이스북	2020-03-06
28	성서에 위치한 #계명대학교동산병원은 코로나19 감염 청정구역으로 중증환자 치료에 힘쓰고 있으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2020-03-06
29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합시다!	유튜브	2020-03-06
30	외신도 집중하는 코로나19 위기 속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모습	네이버블로그	2020-03-10
31	200306 다큐 3.에 비친 코로나19 대구동산병원 현장 모습	네이버블로그	2020-03-11
32	#대구동산병원 많은 의료진들과 시민들이 함께 해주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페이스북	2020-03-11
33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치료 시설 확충 위해 노력	네이버블로그	2020-03-12
34	#대구동산병원은 2월 21일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7개 병동 240병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치료 중입니다.	페이스북	2020-03-12
35	코로나19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호흡기내과 박순호 교수님	네이버블로그	2020-03-16
36	120년 전 의료봉사로 시작된 동산병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도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2020-03-16
37	빛이될때까지: 120년 제중원 역사의 정신을 이은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유튜브	2020-03-16
38	글로벌케어, 대한중환자의학회,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 중환자 치료지원	네이버블로그	2020-03-17
39	#글로벌케어 #대한중환자의학회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 중환자 치료지원 중환자 진료	페이스북	2020-03-17
40	#대구동산병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의료 현장이지만 또 다른 연대와	페이스북	2020-03-18
41	계명대 동산병원(성서),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네이버블로그	2020-03-19
42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힘들긴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2020-03-19

SNS 게시 리스트

연번	콘텐츠명 및 내용	SNS	일자
43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페이스북	2020-03-20
44	세계보건기구(WHO) 자문위원단 계명대 동산병원 방문!	네이버블로그	2020-03-26
45	"세계보건기구(WHO) 자문위원단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방문"	페이스북	2020-03-30
46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마음돌봄으로 건강하게 이겨 냅시다!	페이스북	2020-04-07
47	코로나19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하게 극복합시다!	네이버블로그	2020-04-09
48	계명대 동산의료원,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특별공로상 수상!	네이버블로그	2020-04-10
49	"2020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특별공로상 수상"	페이스북	2020-04-10
50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재미로 해보는 #사회적_거리두기 빙고	페이스북	2020-04-14
51	동산병원 진료 안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래방문 행동수칙	네이버블로그	2020-04-23
52	외래 방문시 행동수칙	페이스북	2020-04-24
53	코로나19 감염 예방, 외래방문 시 행동수칙! 계명대 동산병원	유튜브	2020-04-24
54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 참여!	네이버블로그	2020-04-29
55	서영성 대구동산병원장 코로나19 응원 릴레이 캠페인 참여	페이스북	2020-04-29
56	김권배 동산의료원장님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페이스북	2020-05-14
57	계명대 동산의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 참여!	네이버블로그	2020-05-15
58	대구동산병원: 6. 15. 재개원, 고강도 방역-소독 진행!	네이버블로그	2020-05-27
59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6월 15일 정상진료를 시작합니다	페이스북	2020-05-27
60	의료진과 가족들, 가수 정인님과 함께한 응원가 #오르막길	페이스북	2020-05-28
61	동산의료원 가족들이 함께 하는 코로나19 극복 응원가!	네이버블로그	2020-05-29
62	병원 출입 위한 '모바일 사전 문진표' 안내	네이버블로그	2020-06-05
63	편리한 병원 출입을 위해 QR코드로 #모바일 사전 문진을 시행합니다.	페이스북	2020-06-05

SNS 게시 리스트

연번	콘텐츠명 및 내용	SNS	일자
64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동한 지 115. 만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해제됩니다.	페이스북	2020-06-10
65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 다시 한번 동참!	네이버블로그	2020-06-11
66	대구동산병원: 6. 15. 정상 진료 시작!	네이버블로그	2020-06-12
67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매일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비긴어게인 코리아가 대구동산병원을 방문했다.	페이스북	2020-06-16
68	대구동산병원: 정상 진료 맞이 타종식 진행	네이버블로그	2020-06-18
69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모든 시설 고강도 멸균, 소독 작업 후 재개원 준비중	페이스북	2020-06-18
70	대구동산병원: 고강도 멸균 · 소독 작업 후 정상진료 시작!	유튜브	2020-06-19
71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사진전 개최!	네이버블로그	2020-06-22
72	"코로나19와 벌인 115일간의 사투"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약한 의료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1층 외래에 전시합니다.	페이스북	2020-06-23
73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대구동산병원 방문! '감사합니다'	네이버블로그	2020-06-25
74	"대한민국 의료진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을 방문하여 응원했다.	페이스북	2020-06-25
75	"코로나19 유증상자 행동수칙"	페이스북	2020-07-09
76	김권배 동산의료원장님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네이버블로그	2020-08-05
77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166. 만에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네이버블로그	2020-08-06
78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이 8월 4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페이스북	2020-08-06
79	"대구동산병원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합니다" 에릭 테어 주한싱가포르대사가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을 방문했다.	페이스북	2020-08-12
80	주한 싱가포르 대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방문 '헌신과 노력에 감사'	네이버블로그	2020-08-14
81	코로나와 폭염에 더욱 힘든 올여름. 여름철 생활수칙 5가지 함께해요!	페이스북	2020-08-18
82	코로나19 속 추석 연휴,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	네이버블로그	2020-09-30
83	코로나19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 추석. 가족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생활방역 수칙 확인하고 함께 실천해요	페이스북	2020-09-30





격려와 관심
응원 메시지

4

간병직에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화사입니다.

코로나/신종 '인제' 고령화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 대하여 기우리는 '인제'로써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서 마음을 통치하며, 한 점의 소일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첫사의 마음을 통치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정성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첫소로 더 많은 기쁨을 얻고자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치료결과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중 고고고 및트시 및트시, 항상 응원하는 사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비밀번호 123456

손잡고 가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안병원 의료진들을 위해
자선단체인성혜리에서
보내주신 사랑의 마음
미리내도신들

힘내세요!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대구팍을 살리는 밑거름이
되게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대구 시민의
편을 돕는
우리 회사와 사원들이
안전을 위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 힘내라 대구 ※ 동안병원 의료진 ※ 감사합니다 ※ 새학기 큰 어린이들

당장 내일이 힘든 자영업자지만,
오늘 더 힘든 당신을 응원합니다

저는 구미 원남초등학교 3학년
김나영입니다. 안 주무시고 환자들을
진료해 주시는 모습이 멋졌어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영웅 같아요.
도와주기 위해 대구로 오시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멋지고
감동 받았어요. 의사, 간호사 선생님
힘내세요.

-나영을림-



To. Nurse, docto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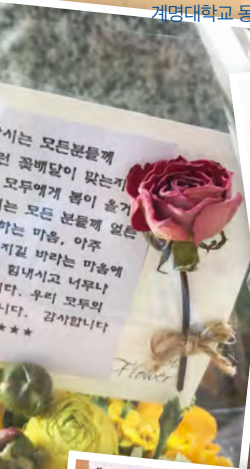
To.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편지 안으로는 마음을 다 전할 수 없지만 제가 하는말 만큼
다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코로나가 퍼지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막내 싸우는 모습이 되게 멋있고 존경스러워요!
바록 직접해서 응원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응원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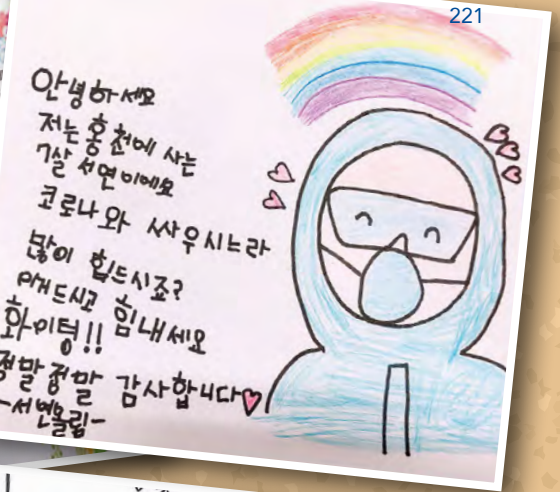
저희 나라(대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정원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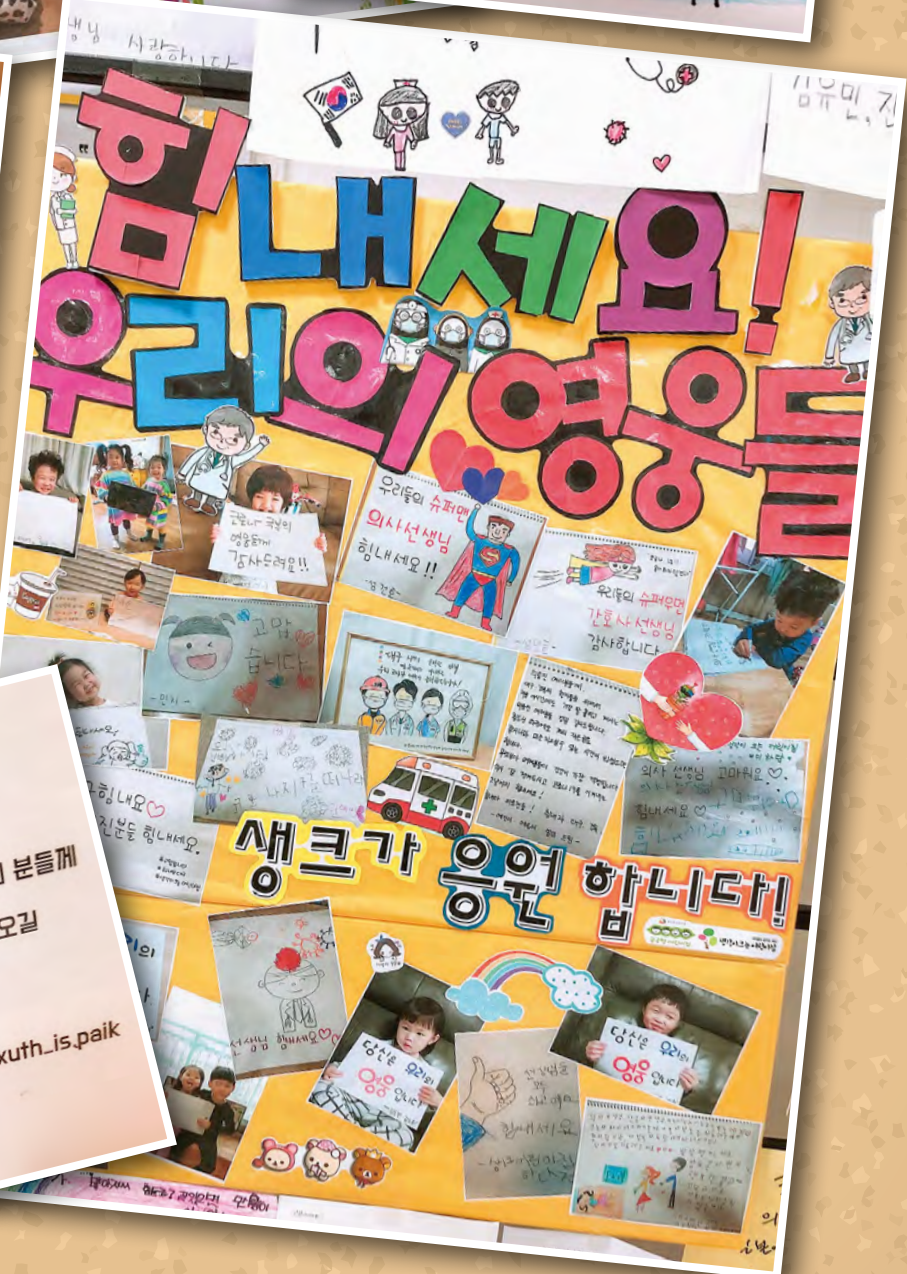




존경하는 의료진 선생님 외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민의 한사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희생과
환자들과 매일 사투하며 힘겹게 하루하루
외로진 선생님들께 작게나마 도움
기부물품을 보냅니다
저도 아이가 27주밖에 되지않은
초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에
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정말
간호사님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현재 무럭무럭 잘 자라
그때의 일로 항상 마음속 담이
기부물품 전달로 대안
작은 것이지만 도움이 되
코로나19가 사라지는 날까지
힘내세요!! 모두가
힘내세요!! 모두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To. 의료진 분들께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 수원시
주민 김도은입니다.
코로나 19가 점점 확산되고,
환자감염 경로도 알기 어려우니
힘든 상황이지만
항상 열심히 기다리고 치료하는
의료진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from 김도은



축구선수 백승호가
대구 동산병원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게도 머지않아 푸른 봄이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축구선수 백승호 팬페이지
@welcome_paik & @my-yxuth_is.pa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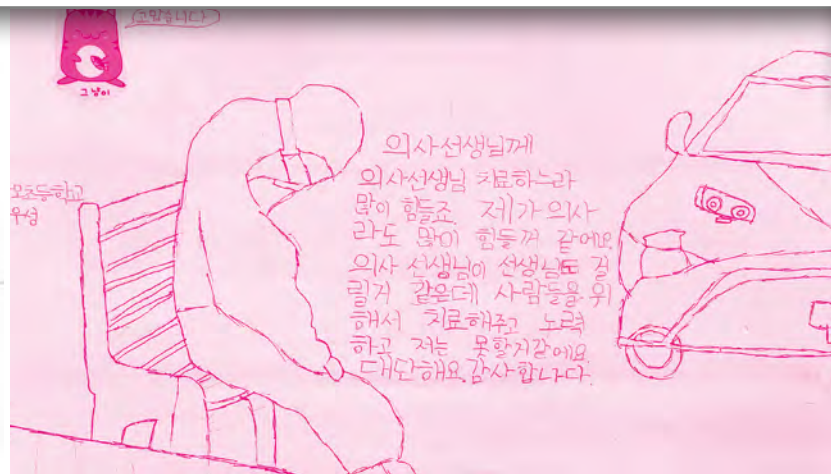
Hi,
My name is Seungmin. I hope
that these hand gels and
sprays are a good help. I
send you our best wishes.
- Seungmin.

격려와 관심 응원 메시지
We send you our best wishes
get through this crisis, with a
mindset and a loving heart. O
hole, Corona, may ta
while, but with a hopeful att
and a supportive community, it
accomplished. We hope that th
sanitizing gels and sprays can
prevent the spread of the disea
through sanitizing products will
realize. We deep within our h
part of this virus makes me wo
maybe we aren't beating the
Coronavirus, but it is testing
need to win this battle and par
the strategy is to believe and
support. We thrive through su

영신초 3
이연우



그대외가인크라
네의 권여치명치를쓴다
기후한적자란
절친구사방을창근
한글방독화문장
임주즉발의드화살촉
네무른심장이아구아
저지 힘주도 선배형지
전라형씨



의사선생님께
의사선생님 치료하느라
많이 힘들죠. 제가 의사
라고 많이 힘들게 끝애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도 길
릴거 같은데 사람들을 위
해서 치료해주고 노력
하고 저는 못할기간애요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조금
건강
조금

We will
positive
overcoming
be a
lude
can be
ese
help and
se. Even
lip, the
hearts.
under,

o. We
t of

oport

의사, 간호사 선생님 힘내세요! 전채윤

감사합니다

코로나 19에 걸린 사람들
구치는 모습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사건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저는 성남시
분당구야탑동에 살고있는
호기민입니다요서 코로나때문에
합의할 대가아코로나까만이요
이런저런 일이만시요.. 코로나
언제 끝이날지몰라요
코로나가 끝이날때까지
힘내세요!! 왜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코로나조심하시고
힘내시고

Medical Workers,

appreciate your hard work, bravery and
the COVID-19 outbreaks. You confronted
challenges in all of Korea to contain the
effect everyone living and working in this
brave work was vital in making Daegu much
an example to the world in this battle.
protect our families, and we feel safer
than most places, including our home country.
filled with respect and gratitude for
done.

thanks,

I'm happy every day
 안일하든 거든 물론 — 유쾌하리
 즐겁습니다
 처음 소개 사내 모임에 같이 참석했어
 대박 — 축하해 감사합니다
 많이 소개가 많았기를 기로
 하였습니다.
 즐겁게만 시작
 하도록할게
 있는 만큼
 Don't worry. 하지만 이젠
 되고 부임 — 모래사막이 많이 있어
 피하는 일로 카카 생각에 이젠
 적인 것 부임하다.
 참! 이젠 잘 부임!; 지금이 사내
 참! 이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 19 때문에 예약사선생님 이랑 간호사
 님들이 힘드시고 잠도 잘 못 자신다고
 어요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
 엄청 힘드시다고 물어보이 사 선생님
 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19 치
 받느 모든 사람들 코로나 19 치료 받
 으니까 다시 건강하게 낫기도 합니다

Lovely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e world.

hello

사랑하세요? 하루상 행복 되길 믿어요!

저는 동생이 사들 두 마더 있어자 화환은 기쁘워워워
연인 좋아하든 눈물 함께 다대가 심하든 다대하 모든
지속에 있을 모든 이음들 화환과 화환에 대해 하고
좋아합니다 간사하든이 불사나 맨날 불이 다대하
변화하든 있고 화환들을 위해 애쓰는 모든, 영혼 주어진
모든까지... 화환들의 모든 보여 정말 정말로
고맙고 화환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의 화환과 연인이 여러분에게 대해 지켜주는 것이라
감사하든 또 감사하든... 화환들끼리 작사나 주제가
전 만화 있어 많아 생각하든 마더나 함께 상,
조금더 바나 좀 화환에 화환입니다 화환자나 연인
화환자나 사들 지나 화환은 정말로 화환이든... 화환
아름다하든 화환에서 화환 할 수 다대하 화환이든
터전 화환이든 (화환이든 화환이든 화환이든)
마더 눈에 기억하든 화환이든 화환이든 안타까운 쓰미
감사하든 화환이든 화환이든 화환이든 화환이든
감사하든 이든 화환이든 화환이든 π π

글로 바드나 다대하 화환이든 있을 것이라 화환이든.....

아름다하든 화환이든 화환이든 화환이든... 화환이든나 화환이든
아름다하든 화환이든 화환이든 화환이든

나와 힘내시라고 전해줍니다
유익하시고 끝까지 화이팅
더 고생해 주세요

정공이라든 수소라든
리튬이 필요없는 상온
반응입니다.

행내시교
강사행내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의환분!
코로나 때문에
병을 많이 많이 힘드시죠..
평소에도 병환일이 힘덜
텐데 대단하세요!
그리고 위험한 일인데
힘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늘 감사해요!
그리고 대환회에서
보내는 소소한 간식
들고 힘내세요! 
- 대환회 청년반 박예은 -


I WISH YOU A LIFE FULL OF
SMILES AND HAPPINESS

시쥬..
 5월
 대극에 의료진분들
 사느
 함주에
 의연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많이 수고해
 합니다. 일거리가
 지치고 힘드실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먹고 힘내세요! :)
 20. 4. 8
 최연드림 - 

[illegible]

★

happy smile

ALWAYS BE HAPPY
(I'll be with you whenever you are)

★

만남을 기대하니까? 돌아보면 의외로 못 관자여러분!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지운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일선에서 고
난보다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께 작별과 힘 되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또 힘든 하루였고, 오늘도 힘든 하루지만, 내일도
힘든 하루였지만 부디 건강히, 우리들 코로나 19 바이러스 종식
까지 함께 준비하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

- 한생영아 일동 드림 -

★

A child's drawing on a white sheet of paper. In the top left corner is a yellow sun with several short lines radiating from it. In the top right corner is a blue cloud with a puffy, irregular shape. In the center of the page is a large rainbow with multiple bands of color: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and purple. The rainbow is drawn with thick, visible strokes. At the base of the rainbow are two blue, cloud-like shapes. In the bottom right corner is a flower with a dark purple center and several orange petals. The flower has a long, thin black stem and a single green leaf at the bottom. The background of the drawing is a light blue sky, and there are some green vertical lines at the very bottom representing grass.

만약에 이럴 경우를 대비합니다.

9. 환자과,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마다 정말 불안하고

안하고, 긴장을 떨치지 않는다고, 이럴때도 불국라고,
도움을 주고, 보살펴주는 여러분들의 그 미소한 큰 힘이

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어 하루를 되게 감사합니다.

저만 믿어주세요!

입니다!

이 끝입니다!

에도!

3. 26

— 항상 여러분들

고난중 (학원 2학년 1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든
의료진과 환자들을 응원합니다

**의료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은 의료진 분들께
봐도 도움이 되려야 하는데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손팍, 발팍을 보내드립니다
주무실 때라도 사용하셔서 길라지지 않게 보습하십시오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손팍과 발팍은 평균 20-30분 정도 하시면 조금이나마
따라 발팍은 주무실 때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를 대신해
헌신하시는 의료진 분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건강 잘 챙기셔서
행복한 모습으로 일상에 복귀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
하
심들
고
로 3월 19 소식들
대일 학교

O. 코로나19를 물리치는 유력수단도
 5월 10일 안경환에게도. 사회는 조금이라도 이따기를 보지
 바를 바라는 가족입니다 매일매일 친구들과 가족들로 코로나19 소식을
 듣고 있는데도 수백만 명과 고를. 그리고 매일같이 일하고 배고
 췌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도 걱정 없이
 되고 하신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도 감사하고
 준비만 안 할 수 있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가도 코로나19가
 기리게 하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금이라도 이편지를 보고
기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 소식을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금이라도 이편지를 보고
기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 소식을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금이라도 이편지를 보고
기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 소식을



격려와 관심 응원 메세지

이기자 코로나

이겨내요

19로 고생하시는 구지역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한국 피자헛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격

조금만 더 무리는 잘하고있

아름다운 나라

힘내세요대구경북

의료진

지마요대구경북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코로나19 백서

자료집

229

관내구는 가고
봄날을 송니다
우리
힘내요!

—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구별리사랑 —

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든 날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걱정 말아요
행복이 이제 찾아
오대 인걸요

힘내요
누군가를 사랑하며
우리를 보듬어
주신 우리들

힘내!
꽃



힘내요



힘내요
대한민국
코로나 바이러스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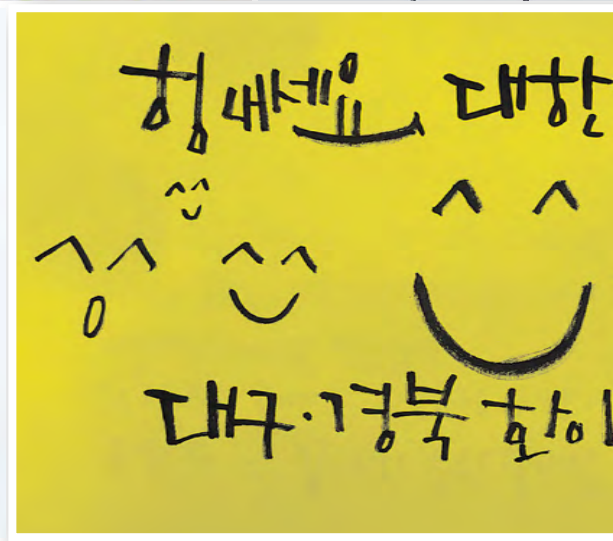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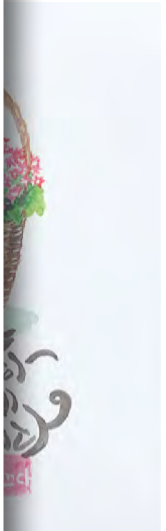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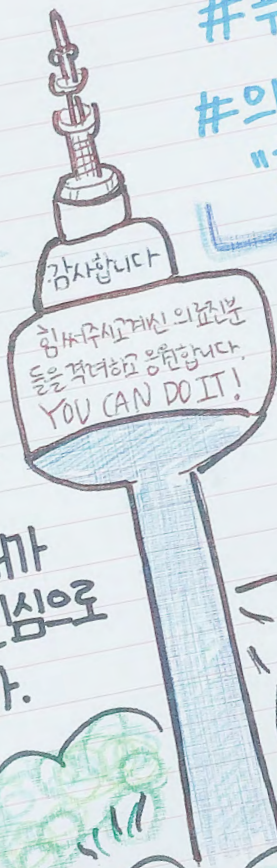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는 듯
몸과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5월 가정의달이라 가족이 더욱더
만나지 못하는 의존자식들에게 조
마음에 카테이션을 만들었어.
하기는 맑은 꽃이지만 꽃말처럼
좋겠어요 ... 끝까지 응원하

<P.S 궁금해하날듯 해서, EVA 라는 스펀지





푸른빛조명
의뢰인에게
"감사와 존경"



빨리 이사태가
진정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frac{0}{0} \frac{F}{L} \div H \frac{0}{1} !$$

가사하
SILIAPI ♡

FROM
밤두미리
7TL20

ssueim&ccl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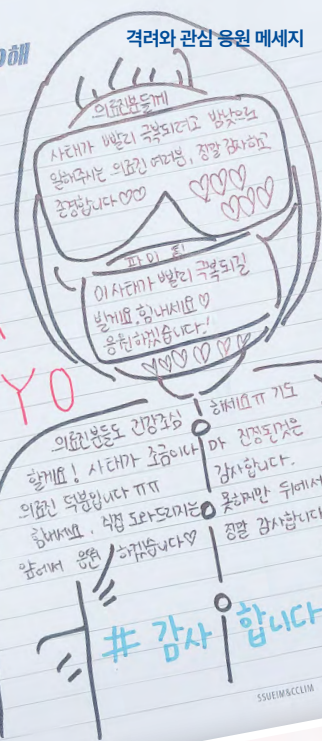
[illegible]

- 송원고 김유민 올림 -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거절은
NONO해

격려와 관심 응원 메시지



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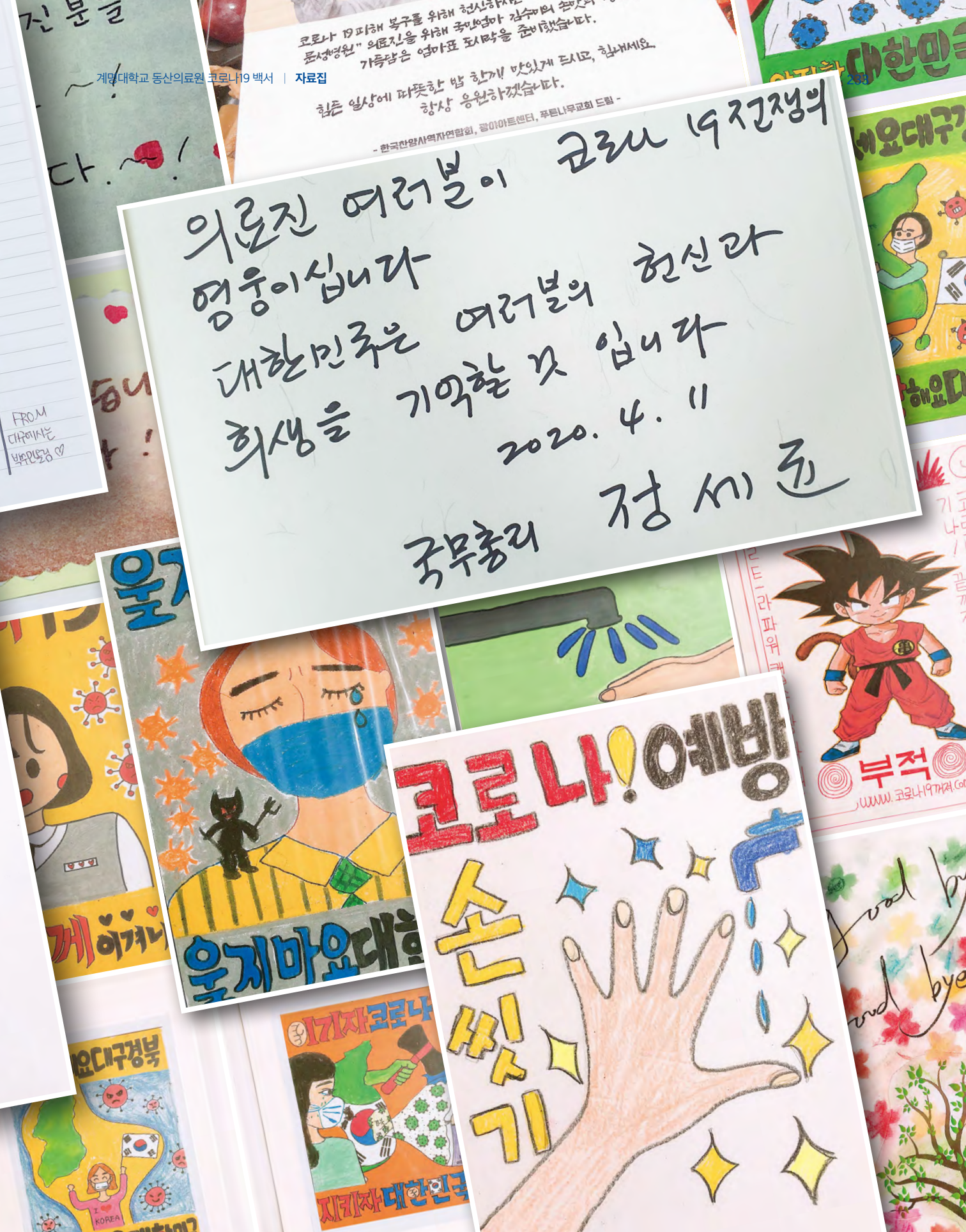
U ♡

감사합니다♡



코로나야
퍼떡
사라져





의료진 여러분이 코로나 19 전쟁의
영웅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할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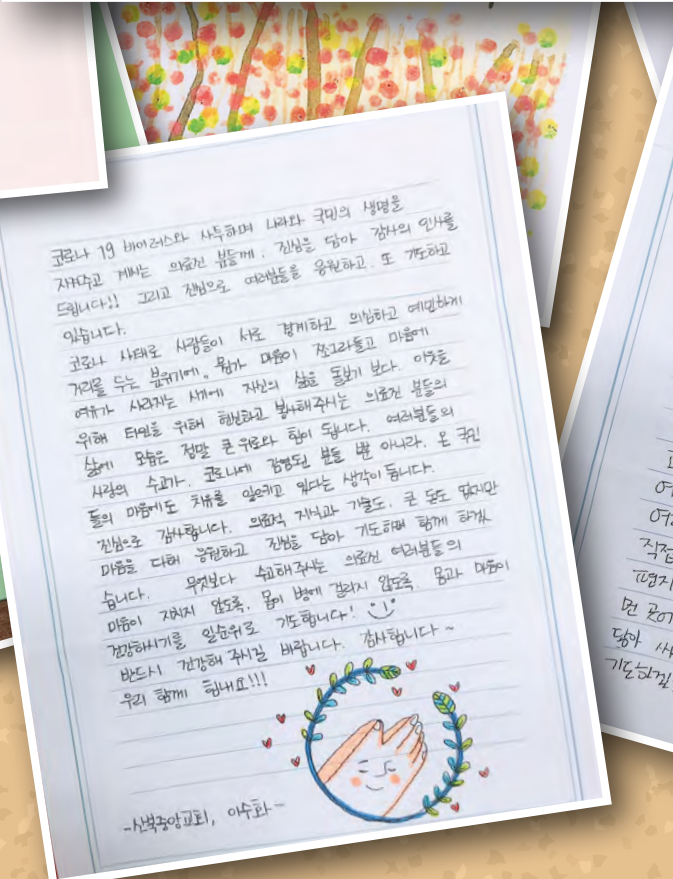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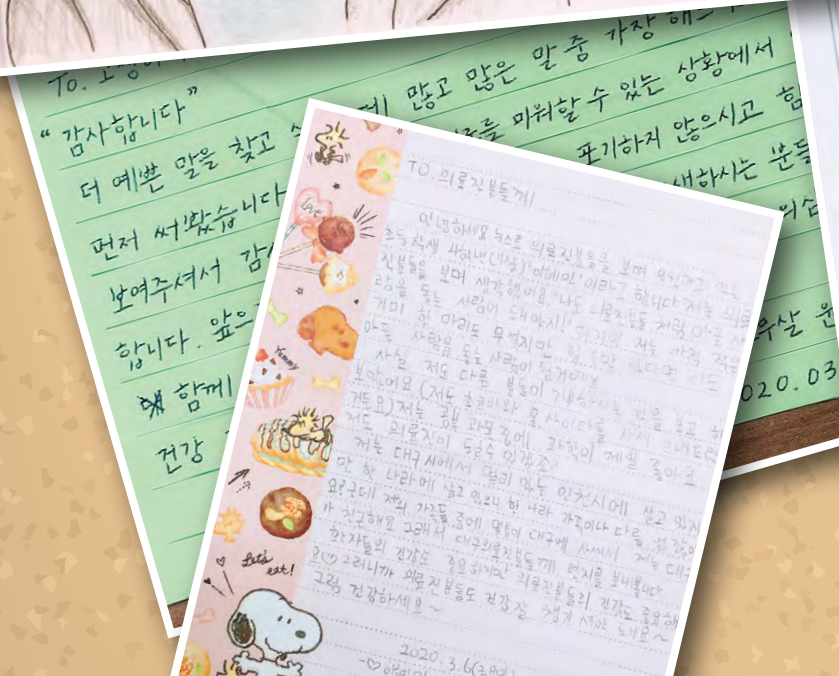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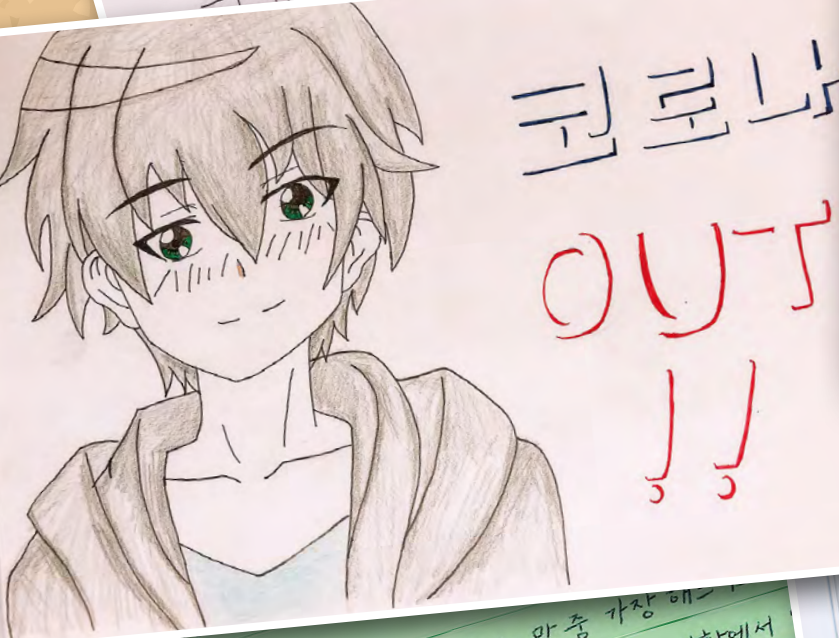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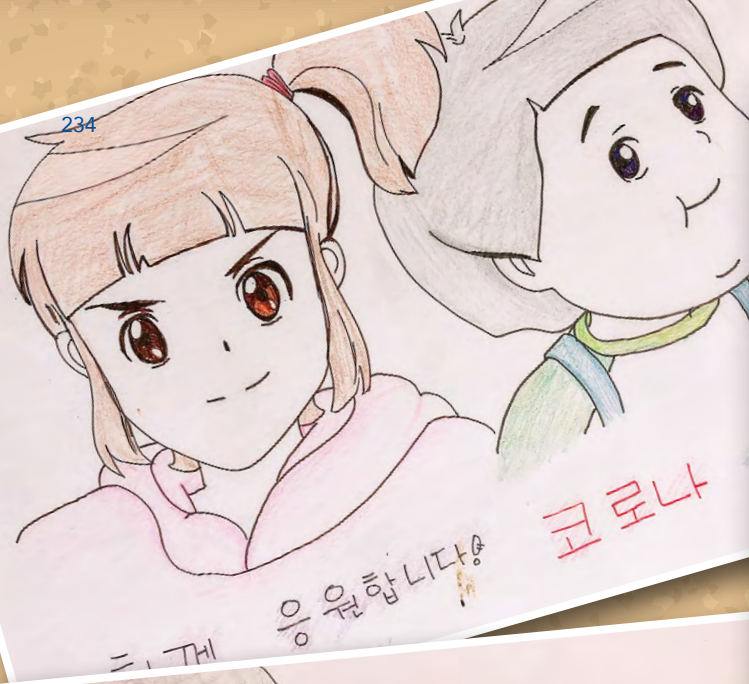
2020. 4. 11

국무총리 정세진

코로나 19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하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족들은 엄마표 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힘든 일상에 따뜻한 밥 한끼 맛있게 드시고, 함께해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한국한양사역자연합회, 팔마아트센터, 푸른나무교회 드림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코로나19 백서 | 자료집

FROM 대학원 박민영



이와요
코리나 19
장르고



ਅੰਤਰਿ ਸੁਖਿ

꽃들아 피어
피어나라
코로나 19 종
단 나가기



등산병원 아픈것까지

235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감사와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려움을 받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2020. 3. 22
부친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봄
날에 ~

[illegible]

2020. 3월 14일 화요일
정기 야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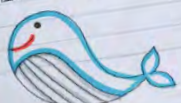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산복강화회에 다녀
왔습니다! 워낙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하
셨는데 위해 많이 치자는 딸일
금 세계적으로 속수무책인 상황에 의사 간호사, 의료진 분들은
그리고 환자들한테 엄청난 분들에게요. 그래서 자부심 땀 땀!
이 위로와 응원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잊어버리지만 이 짧은
기도하네요 ~ 고맙습니다 의료진 분들 힘써주세요!! 건
- 2020. 3. 16. 최보애 -

-2020. 3. 16. 회보-

고종나 1924 사육주는 의뢰인들과 자문위원들!!
어려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나라 국민을 위하여
고생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민들 모두가 이 환상스러운 줄에 양심이 있습니다.
로 대통령 되어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잘게 나마
서도 위대한 공로를 전합니다. 감정의 위험과
저러니 대단한 것이지요! 현재는 거대한
입니다!!

한글서체
- 21호 D2 -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18살 여고생입니다.
코로나 19 전성에서 환절기를 지치고 코로나 19와 영생히 싸우고
계세요. 의료진분들께 조로이마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마스크를
기부합니다. 비록 많지 않은 양이지만 마스크가 부족한
의료진분들께 조로이마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누구보다 코로나 19와 영생히 싸우시는 의료진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대구의
가장 돈드하고 안전한 우리네 의료진분들과 응급대원을 아끼
고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한도 대구시민들이
상응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한도 대구시민들이
빨리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여 제쳐두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구 시민이 따스한 봄을 맞이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2020.3.16
이윤호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교회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시지만 236을 다해 치료해주시는 덕분에 코로나바이러스 완치자와 회복자도 있습니다.

저도 의료진에서 좀 더 힘을 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남을 돕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일상생활로 속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존경합니다. "화이팅"하세요.



꼭 지켜주세요

이런 합니다
모든 힘내세요
자신과 봉사자선생
간호사선생님
의사선생님도

역력과 관심 응원 메시지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완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To. 우리들을 위해 애쓰시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허태영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어떤 날은 새벽까지 일하고
다들 쉬는 동안에도 꼭 의사 선생님을 보면 안다
간호사 선생님을 행정 선생님을, 도방간을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반짝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외로운 자립분자들에게서도
너무 열심히 해 주셨던 것을 다 알고 있어요 ㅎㅎ
우리들이 항상 응원할게요. 그리고 다들에서 큰 선생님들
어느 누구에도 한명도 빠지지 않고 지켜봐서

감사드립니다.
발병을 때까지 얼마나
고민이 있었는지 감히 상상
않습니다. 가장 선두에 서서
국민을 위해 사명을 다하시
멀리서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의료진 선생님!! 저도 자
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되는
꿈이에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님 모두 명ung입니다.♡ 힘내세요.

외관동부초등학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코로나19 백서 | 진료집

Thank You
and
I Love You

그 수고와 희생으로
지금의 어려움도 곧
지나갈거라 믿습니다
항상 고맙고, 존경합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
의료진, 봉사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울산에서
덕신 꽃들할매들이-



계신 의료진 분들께
저는 관악구 신림
테윈 이예요 요즘
드시죠? 그래도 힘 내
도게 발 도새야 코로나가
그리고 마스크도 못
데 우리 의료진 분들이 힘
하신다고!! 코로나야 빨리 몰려
진 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고
우리가 응원 할게요!! 그럼
세오♡ 혜원용림

저희들은 지친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과 땅이 꺼질 듯이 거친 불안함에
당신이 내려다보고 있는 코로나 19 환자분들은
얼마나 고통을 갖고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당신의 따스한 눈빛을 그리워하고,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허염없이 기다리는 그분들을 위해
오늘도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있는 당신은 진정한 성인이십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 모두는
지친 당신에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동방메이테크놀로지
(주)케이엘디 임직원 올림

안녕하세요
가장 지화 주와 딸아입니다.
동산병원원 지화 가족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세이이 와우 동산병원에서 태어난 거든요.
게가 조기진통으로 버려진 그두넝 진공을 받으며
임종처럼 반복하며 미정계 건강할 새이기를
습니다.
19라는 바이러너 사두는 모든 불온까지
공과 견으로 포락니다. 너무 감사하고 칭찬하요~
비팅 ~♡
-가정집이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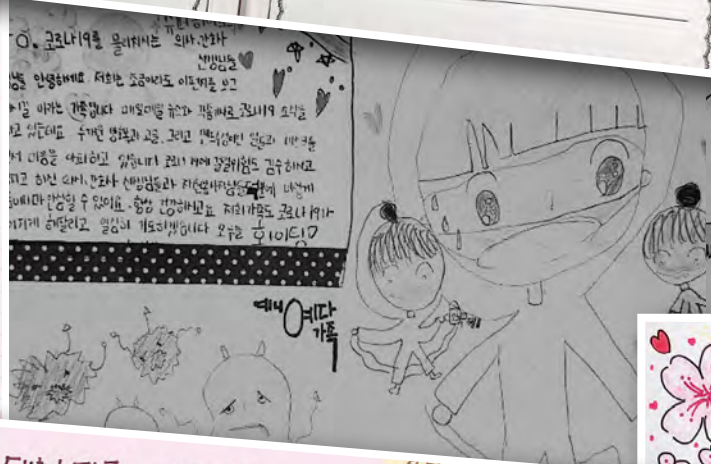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선생님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손도 열심히 닦아서
감사합니다
아프지마세요 밥 잘 챙겨 드세요
서서히 지갑에서 마스크를 꺼내주세요

동사의 교육
238
의사·간호사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힘써주셔서 정말
만 곳에서
작지만 큰 마음 담아
응원 드려요!! 부디 얼른
좋아지길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 아남에서 주원 이네 몰림 -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신보내주신 분들
계속해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코로나가 세상을 잠시 멈춰 세웠지만
여러분들의 노고와 또 함께 응원하는 사람
마음이 있기에 빠른 시간안에 회복되어 잘
회복됩니다
아름다운 봄의 안락에서 코로나를
무엇하게 건강지키시고, 환우들에게 화합
력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2020. 3. 30
'응원합니다'로 시작합니다
제정찬 일동



중병으로 의사장님 & 가정에 안락하게
하루하루 지내고, 많이 낫으시지요?
제가 용기를 내서 왔어요, 이제 병상에서 일어나고
관상도 되리 보네 주저하, 감사하곤 또 보고있습니다.
마스크와 글썽 따끔한 문이 낫으실 듯하도,
Only 병상에서 일어나고 주저하 버티자니 신상정들이
너무너우 걱정스럽습니다.
저와 제 당형이 만드 콜라보에 본내려가면
함께사리로 만들며, 드릴 주 되어 리움합니다.



우리의 백신!
우리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광주 대광여고 총동문회-

말씀드리고 싶은
고마운 감사입니다.
-광주 대광여고 총동문회-

대한민국 의료진을
응원합니다!!
-광주 대광여고 총동문회-

사랑하는 당신들이 세상
고맙고 미안하고
행복합니다 ~
-광주 대광여고 총동문회-

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광주 대광여고 총동문회-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광주 대광여고 총동문회-

산세에 맞서 싸우는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 영웅입니다.
월드클래스 어벤져스
대한민국 의료진 만세 ~
-광주 대광여고 총동문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이 있
살만합니다 ~
-광주 대광여고 총동문회-

아대표의호진 여러분
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신은 우리의 불이요
지 않을게요
-광주 대광여고 총동문회-

전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자들
선생님들의 헌신과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대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광주 대광여고 총동문회-

당신은
우리의 백신!
우리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광주 대광여고 총동문회-

당신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
롭게 느끼게 해주셔서
-광주 대광여고 총동문회-

비밀들에게 의뢰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고생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코로나19 백신 자료집

수많은 환자를 지키는 의사 선생님들이 멋지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많이 생각하고 직접 대피하는 데 우리는 의사 선생님에
호모를 고맙습니다. 한겨울 위기를 잘 견디는 의사선
생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화이팅!



평생시 비영리법인

박은미: 우리 함께 아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김승영: 여러분이 모여 돈독합니다! 감사합
선지엽: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가을: 존경합니다.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임하은: 기도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문서원: 감사합니다. 저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이은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늘 응원

조현수: 작은 힘이지만 서로 보태겠습니다! 윤내세
문성준: 여러분은 최고의 의료가 있습니다!

조혜수: 사랑합니다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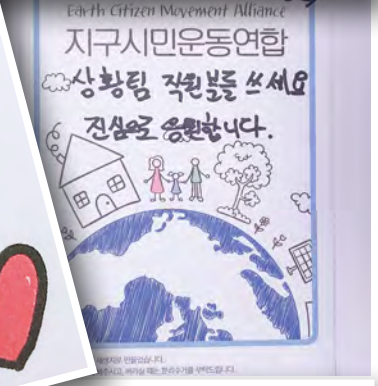
전염병은 의사상생애와 가까운 친구입니다.

바다를 건너고 싶지만, 많이 아프고 싶지 않아요?
제가 큰일을 할게요. 여러분이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보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마스크와 gloves 때문에 많이 불편한데요,
Only 손의 위생이 아니라, 곳곳에 바이러스는 숨어있으니
너무너 조심스럽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만든, 윤내세군 보내드립니다
힘내시라는 말을 전해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2020년 4월 10일
강일영과 강지영, 최은영 드림



대구 의료봉사자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순복음교회 중등부 김나현 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피해를 극복 하기 위하여 언제나
사명감과 열정의 봉사하시는 의료진 분들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는 말을 전하노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픈 환자들을
정말 정성껏 치료해주시고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간호사 언니들, 의료진 분들 아파와 코에
홍터와 마스크 자국이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 자신보다 모든 시민분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불타고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언제나 기도하며
응원 할게요! 코로나가 끝날 그때까지 함께 이겨내요!

동탄순복음교회 중등부 김나현 드림

코로나! 우리가 이겨!

Thank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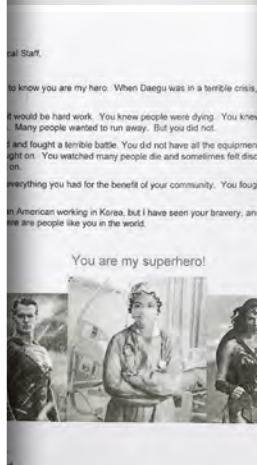
for your courage & hard work
for caring for those affected by this disease
for your patience, your kindness & love you
continued to put yourselves at others' way to help
the disease, we will be forever grateful. You are
extraordinary for putting yourselves on the way
for many lives.

that you've kept covered in prayers. We
wouldn't participate over you & your family.
We're really in need of those that need your
prayers will be grateful.

MICHAEL HANFORTH AND
APRIL 15, 2020

Hello,
my name is Nicholas, I am
9 years old and I live in
Sacheon. Thank you for
your bravery and your
sacrifice and for taking
care of people in need.
You're our heroes we need.

-Nicholas



정성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의료진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김기환과 두가 중학생 *

햇살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질심과
비처럼 내리는 다정다감함에
우리 대한민국이
빛깔이 피었습니다

여러분의 값진 삶에
이따기따기 봄날과
향긋한 꽃길이가득
수놓이길 주복합니다.

대한민국헌정 70주년
대한민국헌정 70주년

TO THE FRONTLINERS,

DURING THESE TUGH TIMES OF COVID-19, MY FAMILY WANTS TO
THANK YOU --
FOR YOUR COURAGE & HARD WORK
FOR CARING FOR THOSE AFFECTED BY THIS DESTRAL VIRUS
FOR YOUR PATIENCE, YOUR KINDNESS & LOVE YOU'VE SHOWN

YOU CONTINUE TO PUT YOURSELVES AT HAZARD'S WAY TO HELP THOSE AFFECTED BY THIS DISEASE. WE WILL BE FOREVER GRATEFUL FOR ALL WHOLES CLOTHES IN HOSPITAL UNIFORMS FOR PUTTING YOURSELVES ON THE LINE... EVERYDAY SO MANY MAY LIVE.

KNOW THAT YOU'VE BEEN COVERED IN PRAYERS. WE IMPLORE FOR BLESSING & PROTECTION OVER YOU & YOUR FAMILY. MAY YOU NEVER GROW WEARY IN HELPING THOSE THAT NEED YOU THE MOST. YOUR REWARD WILL BE GREAT!

MICHA & MARYBETH BOZELAF
APRIL 10, 2020



격려와 관심 응원 메세지

보노이병원
재제Luv
수신환왕가
오뚜기
choikm



매일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힘내세요!

화이팅통

From. 이유진



To. 의료진 선생님들께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19에 감염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수로 직접 내려와 환자들을 돌보시는
것이 정말 대단해요!
의료진 선생님 모두가 항상 건강하면
좋겠어요.
저한테 앞으로 손을 자주 씻고 되도록 밖에
나가지 않으려 노력할게요.
그래도 하루에 나오는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나라를 위해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



힘내세요~ 파이팅!!

달콤
잠시 수고로
여전히 많은
소중한 것들
노력해주시는
존경을
감사합니
아이들이 행복한

출발: 0시45분의 2시20분 도착 03%

감사합니다!
이로진 선생님
힘내세요
국민 여러분

참꽃리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학년 장난끼러기 홍한솔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박선이 발개발개도며 웃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코로나 19화가 오면 마음이 찡찡 내려 앉을 것 같죠?
힘내세요. 저도 의사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모두가요.
그러니 의사 선생님들 모두 힘내세요!
의사 선생님이 힘들어지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요
우리 코로나 19를 빨리 잘라내서 재빨리 나라를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건강을 되찾아서 국어, 나라보다 깨끗한 나라가
되봐요
제가 가서 마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할게요
의사 선생님들 사랑해요

2020년 3월 3일

한글

(10살 흥한데
8살 흥한데)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성다해 만든 든든한 한끼
드시고 힘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영웅이

♡ 어린이 장난감 "우디푸"

한 사탕 드시고
기쁨을 내려놓으세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을 지킬 수 있게
당신들의 노고에
표합니다.

To. 안녕하세요 ♡ 저는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사는 오남매 누나 오지
 원이에요. 누나도 많이 보고 할머니께서 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서 고
 루나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간혹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힘드
 신걸 많이 알고 있어요 T.T 특히나 대아에는 많은 확진자가
 있어 더 힘내시고 큰 저희가 드리는 간식을 드시고 더욱 더
 힘을 얻으세요. 저희, 우리 국민들은 간혹사, 의사, 병원이 없기에
힘을 얻으세요. 저희, 잘 극복할수 있었던 거예요 ~~~~~
병을 치료하고, 잘 보살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소아 임상 병원
 확진자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3 9 - 자원봉사

2020. 3. 9 - 자원올림

크리스마스 19, 함께

이제 냅시다 !

치과 동산 병원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하구 다
대도에 사는 오남매 중에 둘째인
정석이에요. 저희가 드리는 간식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코로나 19
확진자 줄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를 빨리 극복해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요 -정석 올림-

TO. 대구 동산 병원 의료진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선형초 5학년
(남) 윤은채 입니다. 많은 환자
분들께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화이팅하세요 ^^

당신을 히어로로 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지만 맞서 싸워주시는 분들이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거기까지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을 -정윤울림-

영원히 지는 일은 없다.
고통이 지속되는 일도 없다. 격려와 관심 응원 메세지
언젠가 반드시 비는 그치고
구름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인다.
코로나 19,
이 또한 지나가리라.

FINGERS



모든 의료진분들,
뉴스와 SNS로
기사를 많이 접
발 뺀고 나서서
계 꿈은 여러분
여러분을 응원

힘내라
대구!

저희
지켜주셔서

계명대학교 3학년 3반



농산병원에 계신 모든분께
감사해요~ 매일매일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보내주는 물 건들
이 큰 힘이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커
서 사람들에게 큰힘이되는 사람이될 것
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칠지 잘 압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와 싸우면서 지치고 있는 우리의 연대에 힘
을 합니다. 대구농산병원 의료진 여러분 정말 감
사합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가 조금은 나은 내일로 되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정성어린 기도들
다♡ 2020년 3월 16일 - 조유민 -



보내는 사람

서병정학교 2-5 17번 최영민

받는 사람

(계명대학교 등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로 1035 번지)
(계명대학교 등산병원)

41476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확산되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마스크 쓰고 가만히 있어도 힘들다고 생각
하는데 의료진분들께서는 이 더운날 방역복을
입고서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셔서 진짜
대단하시고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아주 큰힘이 되진 못하지만
마스크 잘 끼면서 작은 힘이 되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19 때문에 고를 받지 않는

코로나19 관련 의사, 간호사, 간호
용의사, 그리고 많은 의료진
정말 정말로 고맙고 감사
저는 이제 주머니에 커다란 광
의사! 감사합니다
사건전 저의 아버지가 인공호흡기
고려에 응수하는 응수신생아로
전환, 안정하게 잘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의료진
응수신생아 응수신생아에게 코로나19
다른 응수신생아에 응수신생아
정말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그네』가 72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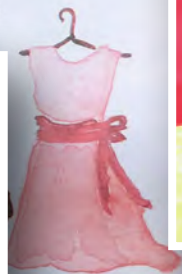


정성을 다해
미안 조금이나마
드립니다
는 것 같
하네요

2014. 4월 24일
2014. 4월 24일
144
2014. 4월 24일

생각과 행동
로 근생활이라는
마지막 한 기로
를 대변하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되면 좋겠다. 행복이 들었으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비해 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 크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
연예나 건강하고 아름다



57 만영의 역사

저 마구치는
말 어린이입니다.
호나 분이 인터넷
받습니다. 질문 들어
나아가 끝나면 무엇
? 라는 질문이었습
본께서는 "가쪽을 보
데 눈물이 나왔습
나 의사가 되려



HELLO

2020년 3월 12일(목) 고령하는 요양원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중인 올해 13살인 이지
고 합니다. 저도 어른이
간단한 거라도 도움 주고 싶
해 드릴게요. 속상합니다
라서 조금이라도 힘을 드
심어서 이 편지를 씁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쁘신
조금만 더 참주세요... 많
힘드시겠지만 코로나 환자
다운치 않을까... 잘 부탁
니다. 늘 감사드리고 힘내
요. 건강하는 지우

지킴의 나이라케임 활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
건강히 각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나임
빨리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 6살 밑서 4살 아를 2삭 두서 -

- 6살 밑에서 4살 아까 2살은서 -

코로나 19로 수고하고,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서는 올해 고생을 맞이한 한 학년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 학생들을 위해 발벗고 서뜻 나서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시는 개인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아예 글을
썼다. 올해 학력제 배려에 따른 코로나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렵게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저처럼도 그랬고! 이 편지를 보게 하는
분들 모두가 그랬을 것이다. 저의 권위를 위해 아예 쓴 결정을
나리고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애쓰시고 개인 위생선물들과 다우
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힘쓰시는 모든 자선단체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화환을 보내거나 화환이나 줄어있는데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화환을 보내주셨고 모두가
여러 엄청난 화환을 감동하고 있습니다! 넘깁니다. 지금 아예에
화환이나 선물도 있는 분들도 그 누구보다 바쁘고 애쓰고있는 분들 아십
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대해서 감사할 수 도아닐 수 있는것은
없이만 저도 제 지위에선 코로나환자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 화환하시는 것과 더불어 많이 자립도 힘들
실려서 이글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품에
앞서서 다름없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 졌길 바랍니다. 대개 개인
분들 주위에 더 힘써주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cayla윤리



안녕하세요 ~ ♥
 저는 슬슬금 3학년 하교하고 집니다
 콘나도 친하게 지내게 하든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립학교 4학년 이하
 지내게 하든가 하든가...
 조금 더 오래 지내게 하든가 하든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고교 졸업이다! (웃음)
 2014. 07. 15
 -한지영-

우리의 **영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함게요

은소



의사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여덟살
안지영이에요
장도 못먹고 음식도 맛없고
시간 지체로 뒤지도 못하
고 정말 힘들것 같아요
제가 몸살이 잡히지 않
고 아픈도 도저히 지겨운
게서 다행히 부모님께
잘 지내요 사랑해요

의사
간호사

대구동산병원에 관계가 분별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병원의 전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난 것을 대구에 화천사가 금중하면서 대한민국은 공로와
덕으로 빛났습니다. 최전방에서 싸워내야 하는 선생님들은
유아나 더 힘들게하고, 잘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하는 그 두려움, 밤에 끝까지 모든 다는 막막함, 알려드
는 화를 가는데 의료장비가 부족한 현실적인 현실
을 다 아예 일어나 청문회를 정작조라 할 수 없습니
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희망을
전한 선생님들께 위로 다할 수 없는 존경과 감사로
드립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이들이 치료의 기회조차 얻지
하고 그들 속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선생님들의
힘과 수고 덕분에 조금씩 생명을 찾아가는 정말 기적같
은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80명의 시민의 마음을 담은
코로나작품 드림

대구동산병원에 보내는 시인 180명
감사합니다! 덕분에입니다!
격려와 관심 응원 메시지
면 후한 대한민국 역사를 말할 때 가장 쉽게
예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남은 삶 속에서 그 감사한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05-13 11:43 김소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2020-05-13 11:28 김소영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노고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모범이 되는 방역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무한한 감사를 표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20-05-12 13:01 김소영
코로나작품
Instagram : corona_azak
Website : azak.kr
QR코드를 통해

사랑하는
영하씨요! 의사, 간호사 선생님
안세연 10살입니다.
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신다고
것습니다.
도가서 돕고싶어요.
런데 부모님께서 저는 너무
리대요.
도 커서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처럼
힘찬 어른이 되겠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드림> 영하씨요...

의사선생님
안녕하세요 의사선생님 저는 여덟살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도 너무 바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존경합니다.
리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의사선생님이 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제가 코로나19의 극복을 할 수 있
기를 바랍니다.

이사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유언에서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후자적 재능에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 수제비누와 수세미를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수세미는 사귀하실때 비누와 함께
사용하시면 부드러운 실을 사귀게
만들겠습니다.
Tune에서 지켜서 좋고 하는 모습.
마스크자국에 걸맞은 피부 고해도 좋으니
현장으로 달려가시며 우리는 패혈증으로
하는 소리에 활짝 눈물 흘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조금씩 회복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백번. 원한을 해도 모자랍니다.
건강은 꼭 챙기며 하세요.
대한민국의 영웅들~
수원기

웃음바이러스와 기공으로 응원하시는 늘





MOOMIN
Moomin helps that Moomintroll is the
wildest and most interesting place in the world.
© Moomin Characters™ Family Room

1246

Q: 무엇이든 ?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힘내세요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료진덕분에
#국민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LOVE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COVID-19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산 병원

감사합니다

의료진분들께

힘내세요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COVID-19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COVID-19

생명사랑 ♥ 코로나 극복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의료진 덕분에
국민 덕분에
감사합니다
코리아는 코로나를
이길수 있다
의료진분들!

힘내세요 우리
있잖아요 힘내세요



편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에게
와 응원들 전하는 의료전력
우리사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해하고 있다는
를 담음 8/13, 김동만 ♥



대구 동산 병원 의료진 분들께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시는 의료진 분들
눈에 안 보이는 세균과 전투 하시는 거 많이
힘드시죠...?
언제 감염 될 지 모르는 세균....
환자들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시고,
덥고 불편한 방호복 마스크 고글까지
착용하고 너무 힘들어 보셔서
제 마음이 몹시 heavy요.
뉴스에서 영상을 볼 때마다
조금 스러플 마음이 커져 갔어요.
바깥구경도 못하고 병원 안에서만
생활하시느라 많이 단단하시죠?
하루 빨리 백신이 개발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여해도 다 취소하고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서..

동산병원의료진분들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로 불철주야 아주
피곤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온 세계가 난국을 겪고 있음
특히 대구 경북지역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통하여 실시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개인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작은
일에서부터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의료
진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동네 자그마한 전통시장에서 자영업하는 상인으로
그나마 영업을 할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식사도 제
때에 하지 못할터라 하루영양식으로나마 보충이 되면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제가 직접 정성을 담아 하루종일 준
비한 하루견과를~ 면역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많다고 하니
약소하지만 맛있게 드시고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우조쪽 건강 잘 유지하시고 ,늘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
니다.
- 자영업자-
2020.03.03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진 분들이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걸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에 뮤지션 케빈오와 팬카페 '케빈의 다락방'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자 마스크를 기부 합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는 대구 경북지역을 응원합니다.

- 케빈오 와 다락방일동 -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
안심하고 있습니다.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의사선생님, 화천자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 모두 힘내세요!

- 천희재 올림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코로나19 백서

자료집

발행일	초판1쇄 인쇄 2021년 2월 26일 초판1쇄 발행 2021년 2월 26일
펴낸이	김권배
펴낸곳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주소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전화	1577-6622
팩스	053-258-7045
디자인·제작	한국에드
ISBN	979-11-86181-36-2 979-11-86181-34-8 (세트)

비매품
© 2021.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제할 수 없습니다.